

# 2024년 경제·산업 전망

## 13대 주력산업편

# 2024년 경제·산업 전망

## 13대 주력산업편



# 차례

제1장 자동차산업 .....	13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3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5
3. 2024년 전망 .....	20
4. 시사점 .....	24
제2장 조선산업 .....	26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26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28
3. 2024년 전망 .....	33
4. 시사점 .....	36
제3장 일반기계산업 .....	38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38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43
3. 2024년 전망 .....	48
4. 시사점 .....	52
제4장 철강산업 .....	54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54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56
3. 2024년 전망 .....	60
4. 시사점 .....	63

제5장 정유산업 .....	65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65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67
3. 2024년 전망 .....	72
4. 시사점 .....	76
제6장 석유화학산업 .....	78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78
2. 2024년 국내외 여건 변화 .....	80
3. 2024년 전망 .....	87
4. 시사점 .....	90
제7장 섬유산업 .....	92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92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94
3. 2024년 전망 .....	99
4. 시사점 .....	105
제8장 정보통신기기산업 .....	108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08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10
3. 2024년 전망 .....	116
4. 시사점 .....	119
제9장 가전산업 .....	122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22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25
3. 2024년 전망 .....	133
4. 시사점 .....	137

제10장 반도체산업 .....	140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40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42
3. 2024년 전망 .....	146
4. 시사점 .....	151
제11장 디스플레이산업 .....	153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53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54
3. 2024년 전망 .....	160
4. 시사점 .....	163
제12장 이차전지산업 .....	165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65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67
3. 2024년 전망 .....	173
4. 시사점 .....	176
제13장 바이오헬스산업 .....	178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178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80
3. 2024년 전망 .....	186
4. 시사점 .....	189

## 표 차례

〈표 1-1〉 자동차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15
〈표 1-2〉 자동차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16
〈표 1-3〉 자동차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17
〈표 1-4〉 자동차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18
〈표 1-5〉 자동차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19
〈표 1-6〉 자동차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19
〈표 1-7〉 자동차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20
〈표 1-8〉 자동차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21
〈표 1-9〉 자동차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22
〈표 1-10〉 자동차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22
〈표 1-11〉 자동차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23
〈표 1-12〉 자동차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24
〈표 1-13〉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24
〈표 1-14〉 자동차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25
〈표 2-1〉 조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29
〈표 2-2〉 조선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30
〈표 2-3〉 조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30
〈표 2-4〉 조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31
〈표 2-5〉 조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32
〈표 2-6〉 조선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32
〈표 2-7〉 조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34
〈표 2-8〉 조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34
〈표 2-9〉 조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35
〈표 2-10〉 조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35
〈표 2-11〉 조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35
〈표 2-12〉 조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36
〈표 2-13〉 조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37

〈표 3-1〉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국가/권역별 수출입 동향 .....	41
〈표 3-2〉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	42
〈표 3-3〉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43
〈표 3-4〉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44
〈표 3-5〉 일반기계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45
〈표 3-6〉 일반기계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45
〈표 3-7〉 일반기계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46
〈표 3-8〉 일반기계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47
〈표 3-9〉 일반기계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47
〈표 3-10〉 일반기계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49
〈표 3-11〉 일반기계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50
〈표 3-12〉 일반기계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50
〈표 3-13〉 일반기계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51
〈표 3-14〉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	51
〈표 3-15〉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51
〈표 3-16〉 일반기계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53
〈표 4-1〉 철강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56
〈표 4-2〉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57
〈표 4-3〉 철강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57
〈표 4-4〉 철강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58
〈표 4-5〉 철강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59
〈표 4-6〉 철강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59
〈표 4-7〉 철강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59
〈표 4-8〉 철강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61
〈표 4-9〉 철강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61
〈표 4-10〉 철강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62
〈표 4-11〉 철강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62
〈표 4-12〉 철강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	63
〈표 4-13〉 철강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63
〈표 4-14〉 철강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64
〈표 5-1〉 정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67
〈표 5-2〉 정유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68
〈표 5-3〉 정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69



〈표 5-4〉 정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70
〈표 5-5〉 정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71
〈표 5-6〉 정유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71
〈표 5-7〉 정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73
〈표 5-8〉 정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73
〈표 5-9〉 정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74
〈표 5-10〉 정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75
〈표 5-11〉 정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	75
〈표 5-12〉 정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75
〈표 5-13〉 정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76
〈표 6-1〉 석유화학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81
〈표 6-2〉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82
〈표 6-3〉 석유화학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83
〈표 6-4〉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84
〈표 6-5〉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85
〈표 6-6〉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86
〈표 6-7〉 석유화학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87
〈표 6-8〉 석유화학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88
〈표 6-9〉 석유화학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88
〈표 6-10〉 석유화학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89
〈표 6-11〉 석유화학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89
〈표 6-12〉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	89
〈표 6-13〉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90
〈표 6-14〉 석유화학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91
〈표 7-1〉 섬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95
〈표 7-2〉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95
〈표 7-3〉 섬유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96
〈표 7-4〉 섬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97
〈표 7-5〉 섬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97
〈표 7-6〉 섬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98
〈표 7-7〉 섬유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99
〈표 7-8〉 섬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00
〈표 7-9〉 섬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01

〈표 7-10〉 섬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03
〈표 7-11〉 섬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04
〈표 7-12〉 섬유산업의 수급 전망(가격 기준) .....	105
〈표 7-13〉 섬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05
〈표 7-14〉 섬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06
〈표 8-1〉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11
〈표 8-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112
〈표 8-3〉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113
〈표 8-4〉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13
〈표 8-5〉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14
〈표 8-6〉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15
〈표 8-7〉 정보통신기기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115
〈표 8-8〉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16
〈표 8-9〉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17
〈표 8-10〉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18
〈표 8-11〉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18
〈표 8-1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	119
〈표 8-13〉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19
〈표 8-14〉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20
〈표 9-1〉 가전산업 품목별 수출액 .....	123
〈표 9-2〉 가전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26
〈표 9-3〉 가전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127
〈표 9-4〉 가전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128
〈표 9-5〉 가전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29
〈표 9-6〉 가전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30
〈표 9-7〉 가전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31
〈표 9-8〉 가전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132
〈표 9-9〉 가전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34
〈표 9-10〉 가전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35
〈표 9-11〉 가전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36
〈표 9-12〉 가전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36
〈표 9-13〉 가전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	137
〈표 9-14〉 가전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37

<표 9-15> 가전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39
<표 10-1> 반도체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42
<표 10-2> 반도체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143
<표 10-3> 반도체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143
<표 10-4> 반도체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44
<표 10-5> 반도체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44
<표 10-6> 반도체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45
<표 10-7> 반도체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146
<표 10-8> 반도체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47
<표 10-9> 반도체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48
<표 10-10> 반도체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49
<표 10-11> 반도체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50
<표 10-12> 반도체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	150
<표 10-13> 반도체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51
<표 10-14> 반도체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52
<표 11-1>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55
<표 11-2> 디스플레이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156
<표 11-3> 디스플레이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156
<표 11-4> 디스플레이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57
<표 11-5> 디스플레이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57
<표 11-6> 디스플레이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58
<표 11-7> 디스플레이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159
<표 11-8>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60
<표 11-9> 디스플레이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61
<표 11-10> 디스플레이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62
<표 11-11>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62
<표 11-12>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전망 .....	162
<표 11-13>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63
<표 11-14> 디스플레이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64
<표 12-1> 이차전지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68
<표 12-2> 이차전지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169
<표 12-3> 이차전지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169
<표 12-4> 이차전지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70

〈표 12-5〉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71
〈표 12-6〉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72
〈표 12-7〉 이차전지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172
〈표 12-8〉 이차전지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73
〈표 12-9〉 이차전지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74
〈표 12-10〉 이차전지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75
〈표 12-11〉 이차전지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75
〈표 12-12〉 이차전지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	176
〈표 12-13〉 이차전지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76
〈표 12-14〉 이차전지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77
〈표 13-1〉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80
〈표 13-2〉 바이오헬스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	181
〈표 13-3〉 바이오헬스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182
〈표 13-4〉 바이오헬스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83
〈표 13-5〉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83
〈표 13-6〉 바이오헬스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184
〈표 13-7〉 바이오헬스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	185
〈표 13-8〉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186
〈표 13-9〉 바이오헬스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187
〈표 13-10〉 바이오헬스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188
〈표 13-11〉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188
〈표 13-12〉 바이오헬스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	189
〈표 13-13〉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	189
〈표 13-14〉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	190

## 그림 차례

〈그림 3-1〉 제조업 생산지수 및 일반기계 내수출하지수 추이 .....	39
〈그림 3-2〉 일반기계산업 생산지수 및 기계 수주 추이 .....	39
〈그림 3-3〉 일반기계산업 출하 및 재고 지수 추이 .....	40
〈그림 6-1〉 석유화학제품 수출 추세 .....	79
〈그림 6-2〉 주요 수출국별 수출액 및 수출량 변화 .....	82
〈그림 6-3〉 석유화학 시장 내 수급 상황 전망 .....	84
〈그림 6-4〉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 .....	86
〈그림 6-5〉 합성수지-에틸렌 스프레드 .....	86
〈그림 12-1〉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 현황(2023년 1~9월 누계) .....	166

# 제1장 자동차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수출, 900억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

-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이 완화되면서 완성차 공급이 정상화되고 주요 수출시장에서 이연된 수요가 실현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
  - 유럽, 미국 등 주요 시장에 차량 공급 차질로 이연 수요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쟁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
  -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차(HEV, PHEV, BEV), SUV의 글로벌 수요 증가와 국내 업체들의 관련 차종 수출 증가로 수출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
    - 친환경차 수출 비중(물량 기준): (2022) 24.1% → (2023. 1~9월) 26.6%, 수출단가(대당): (2022) 2만 1,276달러 → (2023. 1~9월) 2만 2,958달러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본격 시행으로 전기차 수출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IRA 예외 대상인 렌트업체, 리스 등 플릿(Fleet) 판매를 강화하면서 전기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일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를 개선한 상품성 높은 전기차를 수출시장에 본격 투입한 점도 증가 요인
- 2023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비 19.2%의 큰 폭으로 증가한 922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로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할 전망

#### □ 내수, 하반기 감소 전환에도 상반기 실적 호조로 증가

- 내수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의 경기불안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공급 및 대기 수요 해소와 신차효과 등으로 170만 대 수준을 회복
  - 3분기 이후 누적된 이연 수요가 소진되고 경기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감소세로 전환
  -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급발진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기차 판매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4분기 이후 보조금 확대 발표로 증가세로 전환 기대
- 상반기 전년동기비 10.7%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내수가 전년동기비 6.7% 감소하면서 2023년 내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1만 대를 기록할 전망

#### □ 생산, 연간 400만 대 생산 회복

- 2023년 생산은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9% 증가한 412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2018년 402만 대를 생산한 후 5년 만에 400만 대 돌파 전망
  - 상반기 지난 2년간 지속되어 왔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교체와 부품업체 부분파업 영향으로 감소로 반전되어 생산 증가에 다소 제약

#### □ 수입, 수입단가 상승 및 부품 수요 증가

- 2023년 수입은 수입단가 상승과 부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물량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1% 증가한 23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완성차는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업체들의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공급 차질이 반복되면서 물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하였으나 전기차, 대형 세단, 초고가 차량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금액 기준 전년 대비 3.8% 증가

- 이는 수입업체들이 공급 차질을 겪으면서 고가 차량을 우선으로 공급한 것과 양극화 현상으로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서 기인
- 부품의 경우 중국 진출 부품업체들의 역수출과 차량 첨단화 및 고급화에 따른 수입 부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5.5% 증가 예상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기반은 견조한 편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8,900만 대 판매가 예상되며, 여전히 코로나19 직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
  - 부품 공급망 안정화로 차량 생산이 정상화가 예상되며 누적된 대기 수요가 실현되면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 예상
  -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시장 수요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등 대기 수요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
  - 다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의 경제지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이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표 1-1〉 자동차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대기 수요	☆☆
·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
·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의 신차 판매량은 2024년 1,600만 대 규모로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직전의 85% 수준까지 회복할 전망
  - 경기 연속착륙으로 2024년 GDP 성장률이 1.0%로 약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자율 상승 등의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소비 지출의 둔화 강도는 강하지 않은 편
  - 코로나19 이전 1,700만 대 수준의 시장 규모이나 4년 연속 1,600만 대 이하로 판매되면서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은 편으로 수요 증가 지속 예상
- 유럽은 2023년 하반기 이후 공급망 개선으로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판매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
  -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등의 차량 구매 여건은 나쁜 편이며, 유럽 내 CO<sub>2</sub> 규제와 Euro7 등 환경규제 강화로 차량 구매 가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 또는 만료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어 있으며 가격경쟁력을 지닌 중국 완성차업체들의 유럽 시장 본격 진입으로 업체 간 인센티브 제공 등은 긍정적 요인
- 중국은 경기 둔화 여파가 여전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수요가 4% 내외 증가한 2,880만 대 수준 예상

〈표 1-2〉 자동차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40.6	☆☆	⊖	· 4년간 판매 부진에 따른 대기 수요 축적 ·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우려
EU	19.8	☆☆	⊖	· 코로나19 이전 대비 낮은 판매 수준 · 업체들의 가격 인하 등 공격적 판매전략으로 수요 확보 노력
중국	1.6	⊖	⊖	· 경기 둔화 여파 지속으로 차량 구매 수요 감소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 속도가 완만해진 상황에서 판매 비중이 30%에 달하는 전기차 판매는 전기차 할인 폭 확대와 가격경쟁 심화 요인으로 증가 예상

### □ 해외 생산

- 국내 업체의 해외 생산은 주요국에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전기차 전환이 진전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미국 IRA 대응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신규 전기차 공장 가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 전기차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멕시코 공장에서도 전기차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 동남아 시장 공략 강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도 본격화될 예정이며 베트남 OEM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부진했던 체코, 슬로바키아, 튀르키예 공장도 유럽 시장 수요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중국 공장도 전기차 등 현지 수요에 적합한 모델을 투입하면서 소폭 증가 기대

〈표 1-3〉 자동차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중국	☹	☹
미국	☼	☼
브라질/멕시코	☹	☼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	☹
튀르키예	☼☼	☼
인도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제품단가 변화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차량 공급 부족으로 공급 우세에서 최근 부품공급망 안정화로 인해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요 우세로 전환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차량 판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가격 인하로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에 더해 일 충전 주행 거리를 줄이거나 소형차급의 저가형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전동화 전환으로 내연기관차보다는 생산원가가 높아 제품가격도 높은 전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차량 판매단가 상승은 지속
- 전동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등 미래차 기술에 대한 투자비용 확보와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보전을 위해 차량 가격이 높은 SUV, 고급브랜드 차량 판매에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면서 차량 판매단가는 지속적 상승 예상

〈표 1-4〉 자동차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배터리 가격 안정 및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가격 낮은 볼륨 차종 출시	☰
· 생산원가가 높은 전기차 판매 비중의 확대로 차량 단가 상승	☼
· 이익 보전을 위해 SUV, 고급브랜드 등 수익성 높은 차량에 마케팅 활동 강화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층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 수요보다 대체 수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경기상황이 차량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2024년 고금리 지속,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 추세 지속, 가계부채 증가 등 자동차 구매 여건은 부정적 요인이 우세
  - 코로나19로 이연된 수요도 주요 시장 대비 빠르게 해소되어 역기저 효과로 내수 감소 예상
  - 차량 구매 시 할부금융 이용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구매비용 상승으로 수요 위축 전망

〈표 1-5〉 자동차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 차량 구매 할부금융 비용 증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견업체들 일부가 정상화되면서 실적 만회를 위해 제품 및 생산 전략을 강화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
  - 한국GM은 모기업인 GM의 생산전략에서 CUV와 소형 SUV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면서 미국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가동률이 높아질 전망
  - KG모빌리티는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기존 모델을 활용한 HEV, BEV 모델을 투입하여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계획

〈표 1-6〉 자동차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해소	☆☆
· 중견 완성차업체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한 제품 및 판매 전략 강화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설비투자는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동력차 전용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와 신규 생산모델 생산에 따른 생산라인 조정 위주의 투자 예상
  - 현대기아차는 신규 전기차 생산을 위해 기존 생산라인 일부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 생산 설비로 교체할 예정
  - 미래차 관련 투자는 일부 완성차업체와 대형 1차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중소형 부품업체들의 경우 실적 악화 지속에 따른 투자 여력 부족으로 양극화 심화 예상

〈표 1-7〉 자동차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연구개발, 생산라인 교체			
투자 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전동차 성능 개선 및 개발 투자 ·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전환			
요인	· 미래차 관련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 수행 · 미래차 관련 투자는 일부 완성차, 대형 부품업체 중심으로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진행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3. 2024년 전망

#### □ 수출, 사상 최대 수출 실적 기대

- 2024년 주요 자동차 시장 수요의 견조한 성장과 수출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94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긍정 요인)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80% 수준으로 4년간 지속되어 대기 수요 물량이 누적되면서 경기 침체 지속에도 꾸준하게 성장
  -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반도체 공급 불안을 경쟁업체에 비해 빠르게 대응하고 상품성 높은 차량을 출시하면서 주요 수출시장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며 긍정적으로 작용
  - 전기차 수요 증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판매 증가는 지속될 전망으로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출시로 전기차 수출 물량 및 단가 상승 예상
  - 한국GM, KG모빌리티 등 중견업체들은 각각 CUV, HEV 등의 차종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 중심으로 판매를 증가시키는 등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
- (부정 요인) BEV 시장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BEV 글로벌 시장 판매를 늘리고 있으며, 특히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전략을 강화

〈표 1-8〉 자동차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수출시장 수요 견조한 성장 예상</li> <li>· 국내 업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li> <li>· HEV, BEV, 고급차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전략 강화</li> <li>· 일본 업체 경쟁우위 차종인 HEV 수요 증가</li> <li>· 국내 업체 해외 생산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유럽 시장 수요 견조한 성장세와 수출단가 상승의 요인 등 긍정적 요인에도 전년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로 물량은 소폭 감소 예상</li> </ul>

- 최근 BEV 수요가 HEV로 대체되고, HEV 경쟁우위를 지닌 일본 업체들도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판매 회복을 위해 HEV를 중심으로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일본 업체 대비 HEV 경쟁 열위인 국내 업체 글로벌 판매에 부정적
- 보호주의 무역정책 대응방안으로 국내 업체는 해외 생산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이후 구축 중인 현지 생산설비가 가동되면서 수출 물량을 일부 대체할 전망
- 부품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의 해외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지 부품조달과 기진출 국내 부품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수출에 부정적

□ 내수, 구매심리 위축에 따른 감소

- 2024년 내수는 누적된 이연 수요 실현과 차량 구매여건이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2.0% 감소한 168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
- (증가 요인) 공급망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공급이 정상화되었으며 일부 인기 차종을 제외하고는 계약 후 대기 물량이 해소된 상황
  - BEV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2024년 다양한 세그먼트의 BEV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며 볼륨차급의 HEV 신차도 출시 예정으로 내수에 긍정적 요인
- (감소 요인) 경기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체 수요 중심의 내수시장 특성상 최근 경기 악화로 구매여건이 악화되는 점은 부정적 영향
  - 금리 인상으로 차량 구매비용이 상승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도 낮아지면서 차량 구매 심리가 크게 낮아질 전망

〈표 1-9〉 자동차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생산 정상화에 따른 원활한 공급</li> <li>· 전기차 등 활발한 신모델 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li> <li>· 기술전환기 교체 수요 차량 구매 지연</li> <li>· 누적된 차량 구매 대기 수요 소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적된 대기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기 둔화 지속으로 차량 구매 수요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요인 우세</li> </ul>

- BEV 등 기술 전환기에 일부 차량 교체가 필요한 보수적 성향의 소비자들은 충전이나 안전 문제 등이 해소된 후로 차량 구매를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생산, 내수 및 수출 물량 감소에 따른 감소

- 일부 업체 가동률 향상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403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며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65.6%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낮아질 전망
- (증가 요인)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반복되던 부품공급망 불안정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차량 생산이 정상화되어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한국GM은 모기업 GM의 CUV, 소형 SUV의 생산거점이 될 예정이며, 르노코리아도 중국 업체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 KG모빌리티도 BEV와 HEV 신규 모델 생산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중견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감소 요인) 2023년 내수 및 수출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와 구매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 부진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표 1-10〉 자동차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망 정상화</li> <li>· GM, KG모빌리티 등 중견업체 신규 모델 생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li> <li>·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해외 생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업체 가동률 향상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및 수출 물량 감소로 생산 부진</li> </ul>

- 미국 IRA에 이어 프랑스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을 통해 자국 또는 유럽 내 생산 전기차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생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 □ 수입, 고급차 수요 증가로 증가

- 2024년 수입은 고급차량 시장의 확대에 따른 고급차 수요 증가와 전년 수입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233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으로 내수 점유율은 17.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높아질 전망
- (증가 요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득양극화로 인해 고급브랜드 차량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어 고급차종의 비중이 높은 수입차 판매에는 긍정적인 영향
  - 환경규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HEV의 경우 일본 업체가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HEV 신차 확대 등의 판매전략 강화
  -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로 그간 부진했던 차량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차량 대기기간이 단축
  - 부품의 경우 수입차 내수 점유율이 15% 이상으로 AS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DAS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
- (감소 요인) 국내 업체의 고급브랜드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이 많아지고 국내 고급차 브랜드에 대한 인식 제고는 수입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할부금융 이용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자동차 할부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차량 구매비용 상승 예상

〈표 1-11〉 자동차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급차 수요 확대</li> <li>· 공급망 불확실성 해소</li> <li>· AS 및 OEM 부품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완성차 고급 브랜드 라인업 확대</li> <li>· 자동차 할부 금리 인상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금리에 따른 구매비용 상승에도 고급차 시장 확대와 AS 부품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 우세</li> </ul>



〈표 1-12〉 자동차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단위: 천대,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2,300 (12.7)	1,421 (32.5)	1,291 (5.2)	2,713 (17.9)	1,297 (-8.8)	1,350 (4.6)	2,647 (-2.4)
내수	1,686 (-2.3)	894 (10.7)	820 (-6.7)	1,714 (1.6)	830 (-7.1)	850 (3.6)	1,680 (-2.0)
생산	3,757 (8.5)	2,198 (23.5)	1,931 (-2.4)	4,129 (9.9)	1,982 (-9.8)	2,050 (6.1)	4,032 (-2.3)
수입	302 (1.5)	134 (-3.0)	144 (-11.9)	278 (-7.8)	145 (7.8)	150 (4.5)	295 (6.1)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1-13〉 자동차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77,383 (11.8)	47,274 (30.9)	44,953 (9.0)	92,227 (19.2)	46,453 (-1.7)	47,581 (5.8)	94,034 (2.0)
수입	22,133 (8.0)	12,651 (21.2)	10,386 (-11.2)	23,037 (4.1)	11,483 (-9.2)	11,804 (13.7)	23,286 (1.1)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기준).

## 4. 시사점

- 2023년 1~9월까지 전기차 내수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주요 시장 중 판매 감소는 한국 시장이 유일한 상황
  -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동급의 내연기관차 대비 고가이며 충전 시간, 충전소 등 인프라 상황을 고려할 때 판매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우세를 보이지는 못한 상황

-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전략이 요구되며 국내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주력을 다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 기인
- 초기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해 내수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지속되어야 하는 점에서 전기차 내수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
- 우리 정부도 글로벌 수준의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이 있지만 보조금 지원은 향후 전기차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보조금 재원 마련 등의 재정적 문제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보급방안을 모색할 필요
- 최근 급발진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기차 보급 초기 장애가 되었던 안전 관련 이슈도 전기차 판매 부진의 이유로 부상되고 있어 전기차 운행이나 운영상의 특징과 차이점 등을 차량 구매 시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의 방안 마련
- 또한 운전교습소나 운전면허시험 차량들을 전기차로 교체하여 처음 자동차를 운전하는 수요자들이 전기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전동화, 자율주행화, 모빌리티 서비스화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4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되고,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세액공제가 확대되는 등 국내 투자여건 개선
-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국가전략기술은 2024년 종료 예정으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원자재가격 인상 등 기업 투자여건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미래차 분야의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
- 2025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미래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불확실성 해소 필요

〈표 1-14〉 자동차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수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li> <li>· 미래차 관련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 지원 외에 전기차 수요 중심의 다양한 구매 지원 방안 발굴</li> <li>· 임시투자세액공제(2023년 종료 예정), 국가전략기술(2024년 종료 예정) 등 일몰기한 연장</li> </ul>

## 제2장 조선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해운 시황은 세계 경제 불안, 특히 중국 부동산 침체와 전쟁 등으로 낮은 수준 유지
  - 벌크선운임지수(BDI)는 11월 1일 현재 상반기 1,157에서 하반기 1,367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 건설업 침체에 따른 철강 수요 위축으로 낮은 수준 기록
  - 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는 10월 27일 현재 상반기 평균 976에서 하반기 977로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더딘 물동량 증가율 대비 신조 인도로 선복량 증가율은 높았기 때문
  - 탱커는 선복량 증가가 많지 않았으나,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량 감소로 유류 해상물동량 성장률이 낮아 상반기 평균 62에서 하반기 49로 하락
  
- 세계 발주는 감소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발주됐고, 우리나라 선별 수주로 중국이 주도
  - 높은 선가, 컨테이너선 시황 약세 전환, 세계 경제 불안,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가 2023년에 지속되면서 10월 누적 세계 발주량은 전년동기비 23.5% 감소한 3,369만 CGT였는데, 우리나라 조선사의 선별 수주가 지속되면서 중국이 대량 수주
    - 우리나라는 893만 CGT(-41.5%)를 수주하며 세계 점유율이 26.5%로 2022년 대비 6.5%포인트 하락했고 일본은 363만 CGT(-30.1%)로 1%포인트 하락한 10.8%를 기록했는데, 중국이 1,933만 CGT(-8.8%)를 수주하면서 7.5%포인트 상승한 57.4%를 차지

-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력 부족, 높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으로 생산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선별 수주를 진행하면서 중국에 비해 수주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
- 선종별로는 3분기 누적 탱커는 전년동기비 219%, LPG운반선 133%, 벌크선 4% 증가한 반면, LNG운반선은 69%, 컨테이너선은 26% 감소
- LNG운반선은 카타르LNG 2차 물량을 고려하면 연간으로 감소세 완화가 예상되고 컨테이너선은 기대보다 더 많은 발주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모든 선종에서 양호
- 10월 27일 누적 LNG운반선의 점유율은 우리나라 74.5%, 중국 25.5%, 컨테이너선은 중국 45.2%, 우리나라 37.4%, 일본 16.9%, LPG운반선은 중국 50.4%, 우리나라 40.5%, 일본 9.2%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점유율이 높은 편
- 탱커는 중국 70.6%, 우리나라 16.6%, 일본 9.4%로 중국이 시장을 주도했고, 벌크선 시장 점유율은 중국 75.3%, 일본 18.6%로 양국이 시장을 지배
- 전통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벌크선과 탱커, 기타 선박이 다수 발주되면서 대안연료(LNG, LPG, 메탄올, 암모니아, 바이오 등)추진선박의 발주 비중은 44.3%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수주의 79.5%가 대안연료추진선박
- 컨테이너선의 경우 메탄올추진선박이 55.9%, LNG연료추진선박이 24.3% 등 80.5%가 대안연료추진선박으로 발주된 반면, 벌크선은 97%, 탱커는 82.8%가 전통연료로 발주
- 우리나라는 LNG운반선과 LPG운반선을 대량 수주했고, 메탄올연료추진 컨테이너선의 57.8%를 수주하면서, 중국(35.6%), 일본(24.0%)에 비해 대안연료추진선박 수주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생산과 수출은 생산능력 한계로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

- 2023년 생산은 인력 부족에 따른 납기 조정과 일부 조선사의 경영 안정화 문제 등으로 계획된 물량보다 16.3%가 감소했음에도 2021년 이후 대량 수주한 물량이 본격 인도되면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25만 CGT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수출도 예상보다 많이 감소하더라도 전년 대비 16.1% 증가한 210억 9,800만 달러로 예

상되나, 연말에 추가적인 인도 조정이 발생한다면 생산과 수출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상존

#### □ 내수도 증가했으나 예상보다는 낮았고, 수입은 감소

- 내수도 인수 연기·지연으로 예상보다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 21.6% 증가한 169만 CGT로 추정되는데 국내 조선사로부터 대량으로 컨테이너선과 가스운반선을 인도받았기 때문
- 수입은 해양플랜트 블록이나 선체 블록, 주요 기자재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해운 환경규제 강화로 중고 화물선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0.6%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는 해운 시황 약세,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높은 선가, 환경규제 관망세로 위축 지속

- 세계 경제 둔화로 해운 시황 개선이 더딘 가운데 금융 불안, 높은 금리로 선박금융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해운사의 발주 여력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 우량 조선사는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장납기 리스크를 선가에 반영하며 선별 수주를 지속할 전망
  -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2021~2023년에 예상외로 많은 물량이 발주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물량은 감소하겠으나, LNG 수요 증가(모잠비크 프로젝트 등)와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체 수요,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가 꾸준하므로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우량 조선사는 충분한 수주잔량을 확보하여 낮은 선가에서 수주할 유인이 없고 장납기에 따른 공급망 혼란, 원자재 가격 변동, 인력 부족 등에 대한 리스크를 선가에 반영하므로, 부족한 조선사의 슬롯과 높은 선가도 해운사가 발주하기에 어려운 환경
-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규정의 강제화 시점과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이 2024

년까지 이어지면서 해운사의 관망세도 단기적으로 지속

- 암모니아연료추진용 엔진이 2024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나, 초기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 암모니아연료의 위험성이나 병커링 환경, 연료의 경제성과 같은 다양한 이슈도 해결되어야 하므로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은 지속
  - 2023년 IMO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목표를 강화하고 2024년에는 선박의 CII 등급이 결정되면서 노후 선박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나, CII 규제의 강제화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해운사의 관망세는 2024년에도 어느 정도 지속
- 다만, EU-ETS, FuelEU와 같은 규제가 진행되고 탱커와 벌크선과 같은 선종은 발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전환 수요도 꾸준할 전망
- EU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연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랜기간 발주가 많지 않았던 벌크선이나 탱커 같은 선종의 발주는 지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표 2-1〉 조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해운 시황의 더딘 개선과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지속	↕
· 높은 금리 및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 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과 긴 납기로 인한 고선가 선별 수주	↕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해외 생산은 중국 블록공장과 베트남 조선소 증가 예상

- 국내 선체 블록 제작사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중국에 블록공장을 보유한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중국 생산은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
- 현대베트남조선은 2023년에 12척을 인도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에 인도해야 할 15척의 수주잔량과 기존에 건조하던 MR탱커나 파나막스 탱커보다 규모가 큰 Aframax 탱커도 5척이 있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

〈표 2-2〉 조선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중국	☆☆	☆
베트남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선가는 원자재(철강재) 가격 하락 가능성과 발주량 감소로 하락 요인은 있으나, 우량 조선사의 선별 수주와 긴 납기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세계 및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글로벌 철강 수요의 약세가 지속되는 반면, 해외에서 생산된 철강재가 낮은 가격에 유입되면서 선가 하락 가능성
- 또한 선박 발주 감소로 조선사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된다면 선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우량 조선사들은 충분한 수주잔량을 보유하여 긴 납기에 따른 위험비용을 반영한 고선가에서 선별 수주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가의 큰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표 2-3〉 조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선가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철강재 가격 하락	↑
·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에 따른 조선사 간 경쟁 심화	↑
· 우량 조선사의 충분한 수주잔량에 따른 선별 수주	☆
· 긴 납기에 따른 위험비용의 선가 반영	☆

주: (전년동기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국내 수요도 글로벌 수요와 유사하여 발주 감소 예상

- 해운 시황 둔화와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 높은 금리에 따른 선박금융 조달의 어려움, 높은 선가와 우량 조선사의 부족한 선표 등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나라 해운사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

〈표 2-4〉 조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해운 시황의 더딘 개선과 환경규제 대응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지속	↕
· 높은 금리 및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 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고선가에 선별 수주 지속	↕
·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다만,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충분한 자산을 확보한 우량 선사나 선박 공급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기대

-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같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선주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서 국내 수요의 확대도 기대

□ 생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급능력 확대의 어려움은 점차 완화될 전망

○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하여 블록 및 LNG운반선 건조를 위한 설비투자는 지속

- 우리나라 조선사가 인도해야 하는 2024년 물량은 클락슨 리서치 수주잔량 기준(2023. 10. 27) 1,399만 CGT로 예상보다 더 증가했는데, 기능인력 부족에 따른 생산 일정 조정과 2023년 가스운반선 및 컨테이너선 등 양호한 수주에 따른 영향

- 주요 조선사에서는 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지능화된 생산 현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

- 또한 2022년 이후 블록 제작을 위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HJ중공업의 블록공장 인수가 진행됐고, 증가하는 LNG운반선 건조를 위해 현대삼호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안벽을 확장

- 한편 SK오션플랜트는 고성 양촌·용정 산업단지에 해상풍력발전 구조물과 조선용 공장 건설을 진행

○ 생산 인력의 부족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상화와 숙련도 향상, 내국인의 증가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표 2-5〉 조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급격히 증가하는 건조 물량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
· 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기술 및 설비 확대	☆
· 외국인과 내국인 유입으로 기능인력의 심각한 부족은 완화되더라도 일부 영향 지속	↑
· 외국인, 비숙련 인력 증가에 따른 숙련 형성 시간 필요와 안전 강화 노력에 따른 영향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와 숙련도 향상, 생산 인력의 처우개선 및 인력양성으로 내국 인도 증가하면서 심각했던 생산 인력 부족은 완화되고 있지만, 순연된 생산 물량과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공급능력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외국인 노동자와 비숙련 인력 증가로 숙련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면서 생산과 투자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는 여전히 상존

○ 설비투자는 생산량 증가에 대비하고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생산 현장의 디지털 기술 개발 및 생산·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확대될 전망

- LNG운반선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안벽 확대 등의 생산설비 투자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표 2-6〉 조선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인력양성			
투자 수요 특성	·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및 유지보수 · 친환경 스마트 선박, 미래 선박 및 관련 시스템 기술개발 · 디지털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기술 인력 양성			
요인	· LNG운반선의 급격한 생산량 증가를 위한 기존 설비(안벽 등) 확장, 합리화 및 유지보수 확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설비투자, 일부 기업의 해상풍력 제조 시설 건설에 따른 투자 ·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수소 관련 선박, 액화 탄산가스 운반선 등 새로운 선박과 관련 시스템,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인력 및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인력 양성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비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대안연료(LNG, LP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추진 선박 및 관련 기자재,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과 같은 미래 선박의 기술개발 확대
- 부족한 기능인력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인력 등의 양성도 지속될 전망

### 3. 2024년 전망

□ 세계 수주는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선박금융 불안, 고선가, 해운사의 관망세 등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수주는 선별적으로 진행되어 910만 CGT 내외가 될 전망

○ 세계 수주는 해운 시황의 제한적 개선, 해운사의 환경규제에 대한 관망세 지속, 고금리·장납기·우량 조선사의 슬롯 부족에 따른 고선가로 2023년에 비해 감소가 예상

○ 우리나라는 중국 조선소와의 선가 차이와 공급능력 확대의 어려움으로 고기술·고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부 선종의 선별 수주를 지속하여 수주량은 10% 내외 감소할 전망

- 탱커, PCC, 페리, 벌크선과 같이 철강이나 공수가 많이 소요되는 선박은 중국의 철강 가격·인건비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가동을 통해 새로 진입하는 중국 조선사의 저가 수주로 우리나라가 대량으로 수주하기는 어려울 전망

- 또한 대형 조선사는 충분한 수주잔량을 보유했기 때문에 생산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에서 장납기로 인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큼.

- 다만 세계 발주가 감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LNG운반선·LPG운반선·컨테이너선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대형 액화암모니아운반선, 고가라도 고품질을 요구하는 우량 선사의 탱커 등을 선별 수주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풍부한 수주잔량과 고가 선박의 인도 증가로 전년 대비 10.2% 증가 예상

○ 우리나라 조선사는 2021년 고선가에서 수주한 대량의 선박을 2024년에 인도하면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232억 4,500만 달러의 수출이 예상

- 탱커와 LPG운반선은 감소하지만, 컨테이너선과 고가의 LNG운반선이 대폭 증가하고

2021년 이후 고선가에서 수주한 물량이 대부분이어서 가격 효과로 크게 증가

- 생산능력 확대의 어려움으로 고객과의 납기 일정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선소의 노력으로 빠른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숙련도 증가, 내국인 인력의 조선업 유입 등이 확대된다면 인도 연기한 물량을 빠르게 생산하여 추가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표 2-7〉 조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이후 대량 수주한 물량의 인도</li> <li>· 고가의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LPG운반선 인도 증가</li> <li>· 2021년 이후 선가 상승한 수주 물량의 수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능력(기능인력) 증가 한계 및 비숙련공의 숙련 형성 시간 필요, 안전 강화 움직임으로 수출 지연 우려</li> <li>· 해운경기의 더딘 회복, 일부 조선사 경영안정화 문제로 인도 연기 및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이후 높은 선가에서 대량 수주한 물량의 본격 인도로 증가하지만,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영향이 지속</li> <li>· 소연된 물량의 빠른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수출이 가능할 전망</li> </ul>

□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대량의 선박 인도로 전년 대비 84.2% 증가한 311만 CGT 예상

- 우리나라 해운사는 국내 조선사에서 대량의 컨테이너선과 LNG운반선을, 중국 조선사로부터도 전년보다 더 많은 벌크선, 일반화물선, PCC, 페리선을 인도받을 예정

〈표 2-8〉 조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수 증가</li> <li>· 중국으로부터 벌크선, PCC, 페리선 등 선박 인수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능력(기능인력) 증가 한계 및 비숙련공의 숙련 형성 시간 필요, 안전 강화 움직임으로 생산 지연 우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국내로부터 고부가가치 선박, 해외로부터 범용 선박의 인수가 증가하면서 내수 물량 증가</li> </ul>

□ 생산은 7.9% 증가한 998만 CGT로 전망되며, 생산 지연 만회 시 추가 증가 가능

- 클락슨 리서치 수주잔량 기준 2024년 인도 예정인 물량은 1,399만 CGT이나, 선포 조정·인도 연기 등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7.9% 증가한 998만 CGT에 그칠 전망
- 고기술이 필요한 LNG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생산이 증가하고 생산 지연 만회 시 더 많은 건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표 2-9〉 조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이후 대량 수주 물량의 본격 인도</li> <li>· 고기술이 필요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LPG운반선 인도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능력(기능인력) 증가 한계 및 비숙련 공의 숙련 형성 시간 필요, 안전 강화 움직임으로 생산 지연 우려</li> <li>· 해운 경기의 더딘 회복, 일부 조선사 경영 안정화 문제로 인도 연기 및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이후 대량 수주한 물량의 본격 인도로 증가하지만,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영향이 지속</li> <li>· 순연된 물량의 빠른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할 전망</li> </ul>

□ 수입은 해외 건조 선박 인수,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및 선체·해양 플랜트 블록 등의 수입 확대로 4.5% 증가한 26억 달러 예상

○ 2024년에는 중국 조선사에서 우리나라 해운사의 벌크선, PCC, 페리선 등이 인도될 예정이고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LNG운반선의 건조가 크게 확대

〈표 2-10〉 조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li> <li>· 해외로부터 선박 및 해양플랜트 블록의 반입 증가</li> <li>· 국내 해운사가 해외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의 수입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운산업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중고 선박 수입 감소</li> <li>·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해운사의 해외 건조 선박 도입 확대, 기자재 수입 증가에도 환경규제 강화로 중고선 수입이 많지 않아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li> </ul>

〈표 2-11〉 조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단위: 만 CGT,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651 (-25.1)	392 (9.5)	374 (27.6)	766 (17.7)	365 (-6.9)	345 (-7.9)	710 (-7.3)
내수	139 (-36.5)	74 (-3.9)	95 (53.2)	169 (21.6)	164 (121.6)	147 (54.7)	311 (84.0)
생산	782 (-25.7)	461 (7.2)	464 (31.8)	925 (18.3)	516 (11.9)	482 (3.9)	998 (7.9)
수입	8 (-77.8)	5 (0.0)	5 (66.7)	10 (25.0)	13 (160.0)	10 (100.0)	23 (130.0)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국내 해운사의 신조 인수 물량.  
 3) 수입은 국내 해운사의 해외 신조 건조 물량.

〈표 2-12〉 조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18,178 (-20.9)	9,223 (11.9)	11,875 (19.5)	21,098 (16.1)	10,788 (17.0)	12,457 (4.9)	23,245 (10.2)
수입	3,165 (-13.2)	1,195 (-26.9)	1,319 (-13.8)	2,514 (-20.6)	1,262 (5.6)	1,364 (3.4)	2,626 (4.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MTI 746(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준으로 화물선, 선박부품, 군함,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

- 우리나라 조선사 협력업체의 인력 부족도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아, 중국의 블록공장과 협력업체로부터 선체 블록이나 해양플랜트 모듈의 수입 증가도 지속될 전망

#### 4. 시사점

-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 체계적 인력 운영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대량 유입에 따른 사회적 소통과 적응을 위한 조선사·지방정부의 노력 필요
  -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 환경에 대한 적응과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원하청 간·비자 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외국 인력 운영이 필요
  - 조선업 밀집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소통과 적응을 위한 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내국인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확대
- 내국인 인력의 유입, 육성을 위한 노력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선소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노사협력 지속
  -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근무 환경 개선, 인력 육성 등을 통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구축
  -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선소의 디지털 전환에서 노사협력

- 노사협력을 통해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카메라, GPS 센서, 스마트 용접기와 같은 장비와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 조선산업의 특성상 영향을 크게 받는 전후방 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시황 회복기에 충분한 수주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은 조선산업의 특성에 맞도록 선수금 환급보증, 제작 금융, 선물환 등의 금융지원 확대
  - 조선·조선기자재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조선사의 빠른 안정화 필요
  - 조선사의 실적 회복과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자재의 가격과 공급이 중요하므로 조선-철강 산업의 상생협력 강화
  -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이라도 철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선종의 경우, 중국 철강사의 저가 후판 공급으로 중국 조선사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 조선-철강 산업은 공동으로 원가절감과 안정적 공급을 노력해야 함.
  - 해운산업의 환경규제 대응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조선-해운 산업 간 협력
  -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친환경 기술과 선박이 개발·제안·적용되고 있는데, 해운(에너지)사의 선제 대응이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우리나라의 해운사가 세계를 선도하고 조선산업과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예. 암모니아연료추진선박, 대형 액화암모니아운반선, 대형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를 추진할 필요

〈표 2-13〉 조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인력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대응 및 내국인 인력 육성</li> <li>· 전후방산업 및 연관산업 협력 기반 마련</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증가에 대한 지역 사회 융합 프로그램 확대</li> <li>·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유지를 위한 건전한 인력 육성 방안 마련</li> <li>·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산 현장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조선소의 디지털 전환)과 적용</li> <li>· 조선-해운-철강-화주-금융 상생을 위한 협업체 운영 및 발주 기반 친환경 스마트선박 시장 대응</li> </ul>

## 제3장 일반기계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은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 추정

○ 2023년 수출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 수출국의 건설, 교통 인프라 및 EPC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527억 달러 규모로 추정

- 미국, 인도, 유럽, 중동지역 수출은 주요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와 플랜트·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 호조로 양호한 실적을 유지

- 반면, 대중국 수출은 2021년부터 시작된 두 자릿수 감소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2023년 3분기 누계) -16.6%의 증가율 기록

· 일반기계 대중국 수출증감률(%): (2021) -10.0 → (2022) -15.6 → (2023. 3분기) -16.6

- 대베트남 수출 역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베트남 현지 생산 공장의 가동률 하락 및 투자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비 감소(-8.8%)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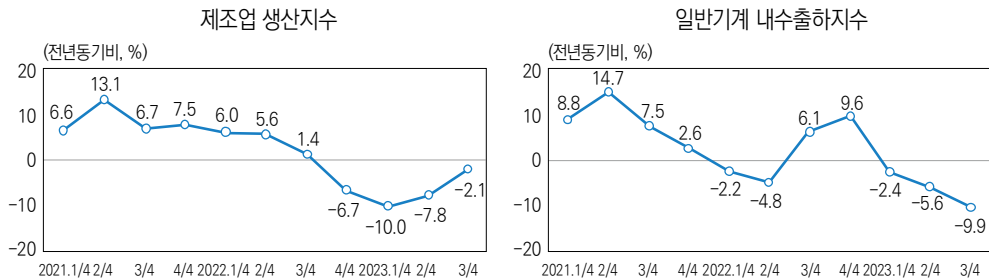
· 일반기계 대베트남 수출증감률(%): (2021) -14.6 → (2022) 1.4 → (2023. 3분기) -8.8

□ 내수는 제조업 경기 위축에 따른 설비투자과 기계 수주 실적 부진으로 큰 폭 감소

○ 2023년 내수는 수요산업 생산 위축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 추정

-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와 고금리, 고환율 지속에 따른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
- 일반기계 주요 수요산업(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 경기 위축으로 기계류 완제품 및 부품 수요 역시 부진

〈그림 3-1〉 제조업 생산지수 및 일반기계 내수출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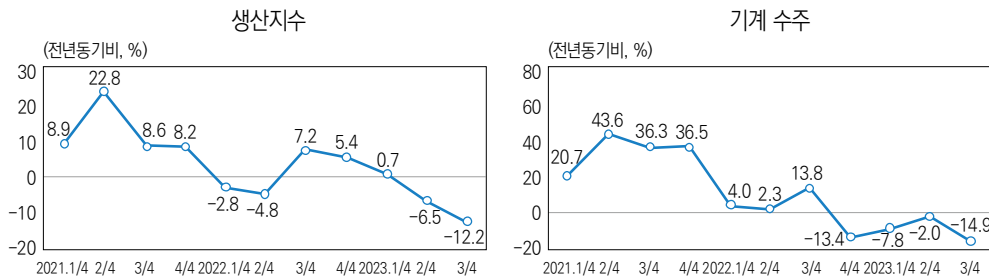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 생산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감소로 전환 예상

- 2023년 생산은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위축으로 내수가 크게 부진하여 전년 대비 6.8% 감소 추정
- 일반기계 생산지수와 기계 수주는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올해 1분기 감소로 돌아선 이후 3분기까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그림 3-2〉 일반기계산업 생산지수 및 기계 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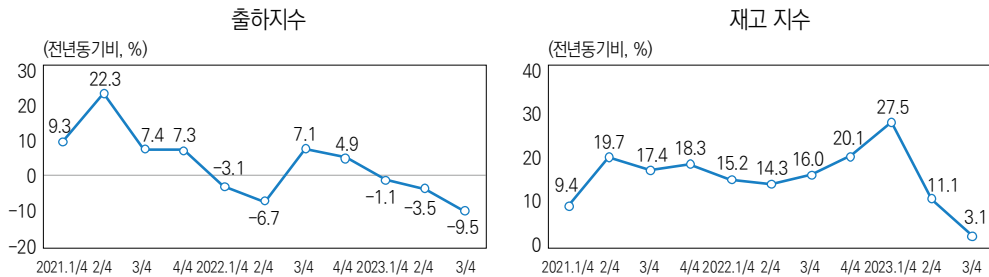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 재고율(재고/출하)은 출하 감소세가 심화되고 재고 누적 또한 장기간 지속되면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

- 일반기계산업 재고율(%): (2023. 7월) 150.8 → (8월) 146.4 → (9월) 122.5
- 제조업 평균 재고율(%): (2023. 7월) 124.0 → (8월) 124.3 → (9월) 113.9

〈그림 3-3〉 일반기계산업 출하 및 재고 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2023년 1분기는 잠정치.

□ 수입은 내수 경기 둔화로 소폭 감소 전환

○ 2023년 수입은 전년도 수입 증가(0.7%)의 기저효과와 국내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감소 등 전반적인 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4.3% 감소한 303억 달러 수준 예상

- 주요 품목별로(2023년 3분기 누계)는 운반하역기계(33.3%), 금형(17.4%), 금속공작기계(14.0%), 기계요소(12.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10.7%) 등에서 전년동기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광학기기(-31.5%), 농기계(-11.4%), 섬유 및 화학기계(-0.6%) 등은 감소

〈표 3-1〉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국가/권역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2021	2022	2023. 3분기(누계)	비중	2021	2022	2023. 3분기(누계)	비중
전 세계	50,075 (4.6)	51,099 (2.0)	39,540 (3.3)	100.0	31,431 (9.6)	31,659 (0.7)	23,216 (-2.7)	100.0
미국	10,161 (18.3)	11,679 (14.9)	9,813 (10.9)	24.8	3,236 (-2.6)	3,606 (11.4)	2,427 (-10.1)	10.5
중국	10,308 (-10.0)	8,699 (-15.6)	5,635 (-16.6)	14.3	9,604 (23.0)	10,175 (5.9)	7,349 (-5.3)	31.7
베트남	3,228 (-14.6)	3,274 (1.4)	2,315 (-8.8)	5.9	490 (18.9)	548 (11.8)	380 (-8.7)	1.6
일본	2,669 (0.9)	2,696 (1.0)	2,176 (8.6)	5.5	6,392 (6.5)	5,858 (-8.4)	3,835 (-15.2)	16.5
멕시코	1,663 (23.6)	2,082 (25.2)	1,582 (2.8)	4.0	169 (-41.7)	212 (25.4)	593 (320.6)	2.6
인도	1,682 (0.6)	1,931 (14.8)	1,442 (0.4)	3.6	241 (20.5)	282 (17.0)	209 (-3.2)	0.9
EU	6,931 (19.0)	7,340 (5.9)	5,504 (6.9)	13.9	7,455 (4.0)	7,084 (-5.0)	5,661 (8.1)	24.4
아세안	6,874 (1.0)	7,063 (2.7)	5,451 (2.2)	13.8	1,737 (8.9)	1,649 (-5.1)	1,186 (-5.9)	5.1
중동	1,909 (-7.5)	2,071 (8.5)	1,871 (23.7)	4.7	109 (7.9)	142 (30.3)	114 (25.3)	0.5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71+72+75+79) 기준.

2) (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표 3-2〉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2021	2022	2023. 3분기(누계)	비중	2021	2022	2023. 3분기(누계)	비중
일반기계 전체	50,075 (4.6)	51,099 (2.0)	39,540 (3.3)	100.0	31,431 (9.6)	31,659 (0.7)	23,216 (-2.7)	100.0
원동기 및 펌프	7,567 (11.4)	7,729 (2.1)	6,332 (9.1)	16.0	5,671 (-2.6)	6,027 (6.3)	5,082 (15.4)	21.9
운반하역기계	1,752 (7.9)	1,930 (10.2)	1,851 (33.3)	4.7	1,648 (49.1)	1,495 (-9.3)	985 (-13.0)	4.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953 (1.4)	3,287 (11.3)	2,697 (10.7)	6.8	1,348 (20.1)	1,476 (9.5)	1,158 (-0.3)	5.0
광학기기	4,755 (-27.5)	3,873 (-18.5)	2,141 (-31.5)	5.4	3,333 (-5.9)	3,266 (-2.0)	1,725 (-29.5)	7.4
섬유 및 화학기계	3,617 (-15.9)	3,412 (-5.7)	2,675 (-0.6)	6.8	2,058 (-25.3)	1,937 (-5.9)	1,402 (-3.5)	6.0
금속공작기계	2,669 (21.1)	2,911 (9.1)	2,493 (14.0)	6.3	1,431 (24.9)	1,315 (-8.1)	890 (-13.4)	3.8
건설광산기계	6,707 (36.8)	7,170 (6.9)	5,783 (9.2)	14.6	1,281 (50.5)	1,367 (6.7)	1,007 (-3.5)	4.3
농기계	1,133 (46.4)	1,365 (20.5)	872 (-11.4)	2.2	581 (9.2)	583 (0.3)	536 (12.0)	2.3
기계요소	5,423 (7.7)	5,569 (2.7)	1,598 (12.9)	4.0	5,866 (19.4)	5,996 (2.2)	4,400 (-2.5)	19.0
금형	2,287 (-20.0)	1,933 (-15.5)	595 (17.4)	4.5	221 (26.3)	206 (-6.8)	140 (-9.8)	0.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71+72+75+79) 기준.

2)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인프라 투자 지속 및 중동과 중남미 신흥국들의 건설경기 호조로 기계류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고금리 지속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회복세를 제약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주요국들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은 일반기계계의 세계 수요 확대를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표 3-3〉 일반기계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선진국 인프라 투자 지속	☼
·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건설경기 호조세	☼
· 지정학적 긴장 고조(러-우, 이-팔 전쟁)	☹
· 고물가, 고금리, 통화긴축 기조 지속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 수출은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와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생산설비 고도화 추진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의 일환으로 도로, 교량, 항만, 전력 등 주요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해 2024년도에 총 61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sup>1)</sup>

1)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iden-Harris Administration Sending States \$61 Billion from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for America's Roads and Bridges", 2023. 10. 5.

- 다만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경기 회복이 제약되어 수출 증가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

· 미국 제조업 PMI: (2023. 7월) 49.0 → (8월) 47.0 → (9월) 49.8 → (10월) 50.0

○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정책<sup>2)</sup>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發)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성장률 둔화 우려로 2024년에도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전망

- 중국의 제조업 PMI는 연초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2월에 51.6까지 상승하였으나, 하반기 접어들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

· 중국 제조업 PMI: (2023. 7월) 49.3 → (8월) 49.7 → (9월) 50.2 → (10월) 49.5

○ 유럽은 최근 제조업 경기가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고물가 지속과 고강도 통화 긴축정책에 따른 투자 수요 둔화가 2024년 수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유럽 제조업 PMI: (2023. 7월) 42.7 → (8월) 43.5 → (9월) 43.4 → (10월) 43.0

〈표 3-4〉 일반기계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24.8	☆☆	☆	·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 제약 가능성
중국	17.0	↑↑↑	↑	·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로 기계류 수요 감소세 지속 전망
유럽	13.9	☆	☹	· 제조업 경기 둔화 국면 지속 · 고강도 통화 긴축정책 장기화에 따른 투자 수요 회복 지연
기타	32.9	☆	☹	· (중동)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및 건설투자 확대, 현지 생산공장 건설 등으로 기계류 수출 증가 전망 · (중남미) 광물 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로 건설 장비비 수요 확대 · (러시아) 건설기계 수출 통제(2023. 4. 28 지정) 본격화 가능성
합계	100.0	☹	☹	· 대미 수출은 2024년에도 주요 기반시설 및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과 중국은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수입 수요 둔화 혹은 감소 전망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 교통·에너지·발전설비 분야에 12조 2,0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

## □ 해외 생산

- 2024년 일반기계 해외 생산은 미국, 인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요 광물 및 원자재 채굴에 따른 건설기계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확대될 전망
  -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주택 경기 회복세로 현지 생산 증가 전망
  - 인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인 ‘가티 샤크티’(Gati Shakti) 추진으로 철도 및 도로 개발을 위한 건설기계 현지 생산 증가 기대
  -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 채굴 및 자원 개발을 위한 대형 건설중장비 수요가 지속될 전망

〈표 3-5〉 일반기계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중국	↑↑	↑
미국	☆☆	☆
인도	☆☆	☆
중남미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제품단가 변화

- 유가, 철강 등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고환율 지속으로 비용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으나, 주요 부품 수급 안정화로 제품단가 상승은 제한될 전망
  -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저 장기화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표 3-6〉 일반기계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원자재 가격 상승세 및 고환율 지속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
· 주요 부품 수급 안정화	-
· 엔저 장기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2024년 일반기계 내수는 하반기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회복 가능성과 설비·건설 투자 증가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지속 등의 경기 하방 불확실성이 내수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
  -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금융조달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설비투자 계획을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등 투자 수요는 약세를 보일 전망
  - 경기선행지수인 기계류 내수출하와 건설수주액 모두 2023년 3분기 기준 각각 -9.9%와 -44.1%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제조업 PMI도 50 미만에서 횡보하고 있어 큰 폭의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한국 제조업 PMI: (2023. 7월) 49.4 → (8월) 48.9 → (9월) 49.9 → (10월) 49.8
- 다만, 2024년 하반기 설비투자(+5.8%)와 건설투자(+3.0%)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점진적 내수 회복세 기대

〈표 3-7〉 일반기계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감소	⬆
· 세계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산업 회복세 제약	⬆
· 2024년 하반기 설비·건설 투자 증가	⬆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첨단 기계·장비, 친환경 고효율 기기 투자 수요 지속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2024년 하반기 내수 회복세에 따라 공급능력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전망
  - 2022년부터 감소세를 기록하던 일반기계 생산능력지수는 올해 2분기까지 감소세가 점차 완화되고, 3분기부터는 증가로 전환

- 생산능력지수 증감률(전년동분기, %): (2023. 1분기) -3.5 → (2분기) -0.3 → (3분기) 2.8
-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던 재고지수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2024년 생산 활동의 회복 기대
- 재고지수(전년동분기, %): (2023. 1분기) 27.5 → (2분기) 11.1 → (3분기) 3.1
-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환경 및 사회적 규제 준수를 위한 자동화 기기 및 에너지 효율화 장비 관련 설비투자는 지속될 전망

〈표 3-8〉 일반기계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내수 회복 및 재고 누적 안정세로 생산능력 회복 전망	☆
· 자동화 및 친환경 설비 관련 투자 지속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일반기계 설비투자는 자동화·스마트화 추진과 환경규제 대응 및 ESG 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에너지 효율화 투자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

〈표 3-9〉 일반기계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자동화·스마트화, 친환경 분야 연구개발 투자 및 신규 설비 도입			
투자 수요 특성	· 생산설비 고도화,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자동화 및 친환경, 고효율화 설비투자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제조를 위한 투자 수요 확대</li> <li>·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고효율화 추진</li> <li>· 내수 경기 둔화 장기화에 따른 투자 여력 부족으로 설비투자 규모는 5% 미만으로 제한될 전망</li> </ul>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3. 2024년 전망

□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및 신흥국 투자 수요 확대에 증가세 지속 전망

○ 2024년 일반기계 수출은 선진국(미국, 유럽 등)과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 활성화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532억 4,000만 달러 전망

○ (증가 요인)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과 2023년 해외 엔지니어링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은 일반기계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국, 중동, 중남미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설비 확충 및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건설중장비, 산업기계 등 일반기계 완제품 및 부품류 수요 증가 예상

· (미국) 주택건설 및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장기 투자 프로젝트 확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쇼어링 정책 추진으로 신규 설비투자 및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 전망

· (인도) 도시개발·철도·도로·항만 등 주택·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에 건설기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중동) 산업플랜트, EPC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 및 국내 자동차 기업의 사우디 현지 공장 설립(2024년 6월 착공 예정)으로 플랜트 기자재, 건설기계, 공작기계 품목의 수출 확대 전망

· 중동지역 해외플랜트 수주 증감률(전년동월비, %): (2023. 8월) 8.1 → (9월) 3.5 → (10월) 9.5

· 2023년 하반기 주요 수주사업: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현대건설, 29억 3,989만 달러), 사우디 AGIC 탈수소/폴리프로필렌 프로젝트(삼성엔지니어링, 5억 5,518만 달러), 사우디 초고압 직류 송전로 건설 프로젝트(현대건설, 1억 4,531만 달러) 등

· (중남미) 자원보유국들의 핵심 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광물 자원 채굴을 위한 중·대형 건설기계 수요도 지속될 전망

○ (감소 요인) 주요국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의 대외 불확실성은 수출 증가를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고물가와 미 연준(Fed)의 긴축기조 완화 지연 등이 경기 회복을 제약하여 기계류 수입 확대를 제한할 가능성
- (중국) 리오프닝 효과 미약,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및 자국산 제품 선호 정책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러시아) 대러시아 건설기계 수출 통제에 의한 건설기계 수출 감소 우려

〈표 3-10〉 일반기계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동, 중남미 등 주요 수출국 건설 인프라 투자 지속</li> <li>· 국내 기업의 해외플랜트, EPC 프로젝트 수주 호조</li> <li>· 수요산업(자동차) 해외 생산공장 설립에 따른 생산장비 발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우 및 이·팔 전쟁 등 국제 정세 불안</li> <li>·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li> <li>· 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li> <li>· 대러시아 수출 통제(건설기계) 본격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학적 리스크, 대중국 수출 부진의 감소 요인이 존재하지만, 주요국 인프라 투자 확대의 긍정적 요인 우세로 소폭의 수출 증가세(+1%)를 이어갈 전망</li> </ul>

□ 내수는 하반기 수요산업 경기 회복 및 설비·건설 투자 확대에 감소세 완화 전망

- 제조업 경기가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스마트 장비 및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전년(-12.1%) 대비 감소폭이 완화된 -3.4%의 증가율 기록 전망
- (증가 요인) 제조업 설비투자가 내년 하반기 증가세로 전환되고, 생산설비 자동화 및 친환경 기기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완만한 내수 회복세 전망
  -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 (2023) -0.6 → (2024. 상반기) -1.5 → (2024. 하반기) 5.8
  - 건설투자 증감률 전망(%): (2023) 2.2 → (2024. 상반기) -0.7 → (2024. 하반기) 3.0
- (감소 요인) 민간 건설경기 위축 및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은 일반기계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공공부문 건설은 정부의 SOC 예산 확대에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주택 가격 하락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민간 건설투자 여력 악화로 건설수주액은 감소세가 확대

- 국내 건설수주액 증감률(%): (2023. 1분기) -11.1 → (2분기) -31.5 → (3분기) -48.4
- 제조업 분야에서의 자동화·친환경 관련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경기 둔화로 투자 규모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

〈표 3-11〉 일반기계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산업 경기 회복세(하반기)</li> <li>· 설비·건설 투자 증가 전환(하반기)</li> <li>· 자동화 및 친환경화에 따른 관련 설비투자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li> <li>· 주택 가격 하락 및 민간 건설경기 위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산업의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로 감소세 완화 전망</li> </ul>

□ 생산은 수출 증가세 지속 및 내수 개선 기대감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 축소 예상

-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1.0%)를 유지하고, 내수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6.8%) 대비 감소폭이 축소된 -1.1% 증가율 전망
- (증가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 건설·교통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로 기계류 수출 증가세 지속
  -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보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강화로 관련 인프라 및 설비투자 수요 증가
- (감소 요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민간 건설경기 위축 등의 경기 하방 위험 요인 상존으로 내수 경기 위축 가능성

〈표 3-12〉 일반기계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li> <li>·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 가능성</li> <li>· 민간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증가세 및 내수 개선으로 감소세 완화 전망</li> </ul>

□ 수입은 하반기 제조업 경기 개선 흐름으로 감소세 완화 전망

○ 2024년 수입은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의 영향으로 전년(-4.3%) 대비 감소세가 완화(-3.6%)될 전망

〈표 3-13〉 일반기계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 제조업 전반의 경기 회복세(하반기) · 자동차 기기 및 친환경 설비류 수입 증가	· 내수 회복세 미약 · 하반기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 제조업 경기 회복으로 감소세 완화 전망

〈표 3-14〉 일반기계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	상반기	하반기	연
수출	66,389 (15.9)	34,520 (6.9)	34,661 (1.6)	69,181 (4.2)	35,019 (1.4)	34,481 (-0.5)	69,500 (0.5)
내수	112,067 (-2.1)	50,136 (-6.0)	48,426 (-17.5)	98,561 (-12.1)	47,018 (-6.2)	48,236 (-0.4)	95,254 (-3.4)
생산	137,253 (1.1)	64,197 (-3.1)	63,780 (-10.2)	127,977 (-6.8)	62,913 (-2.0)	63,717 (-0.1)	126,629 (-1.1)
수입	41,204 (14.6)	20,458 (5.4)	19,306 (-11.4)	39,765 (-3.5)	19,124 (-6.5)	19,000 (-1.6)	38,125 (-4.1)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수출 및 수입은 MTI 71(기초산업기계)+72(산업기계)+75(기계요소공구 및 금형)+79(기타기계류)로 '생산'에 포함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계는 미포함, 생산에 포함되지 않은 공구 및 기계요소, 광학기기, 가열난방기(보일러) 등은 포함.

〈표 3-15〉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	상반기	하반기	연
수출	51,099 (2.0)	26,656 (1.7)	26,042 (4.6)	52,698 (3.1)	26,469 (-0.7)	26,771 (2.8)	53,240 (1.0)
수입	31,662 (0.7)	15,798 (0.3)	14,505 (-8.8)	30,303 (-4.3)	14,455 (-8.5)	14,752 (1.7)	29,207 (-3.6)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증가 요인) 생산 자동화 및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로 관련 완제품 및 부품류 수요 증가
- (감소 요인) 제조업 전반의 내수 회복세 미약으로 기계류 수입 감소

## 4. 시사점

- 최근 일반기계산업은 수출과 내수 경기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 수출은 대중국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동·중남미 등 신흥국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통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는 수요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장기간 부진한 모습이 지속
    - 수출 증감률: (전년동기비, %): (2023. 1분기) -2.0 → (2분기) 5.6 → (3분기) 6.6
    - 내수출하 증감률: (전년동기비, %): (2023. 1분기) -2.4 → (2분기) -5.6 → (3분기) -9.9
- 2024년 세계 경제는 제한적 성장세가 예상되고, 국내 경기도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2% 성장률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위주의 일반기계산업 특성상 기업들의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출 활성화와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
-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해외 거래처 발굴 프로그램 확대
    - 해외 잠재 고객사에 콜드메일 송부 시 회신율이 매우 낮아 현지 유통업체나 제3자의 소개 외에는 신규 거래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고객사와 제조사를 매칭해 줄 수 있는 지원 채널 필요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국내 수출상담회만으로는 해외 거래처 발굴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망 신규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 마련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붐으로 건설기계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선적

〈표 3-16〉 일반기계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확보</li> <li>· 중소 일반기계 업체들의 경영환경 안정화</li> <li>·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해외 거래처 발굴 프로그램 확대</li> <li>· 수출용 RoRo선 수급 지원 및 임시선박(벌크선, FR 컨테이너선 등) 추가 할당을 통한 물류 차질 해소</li> <li>· 중소 일반기계 업체들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금융지원 확대(환변동보험 한도 확대 등)</li> <li>·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본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li> </ul>

지연, 수출용 선박 부족,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 애로 발생

- 수출용 RoRo선 수급 지원 및 임시선박(벌크선, FR 컨테이너선 등) 추가 할당을 통한 수출 품목의 적기 인도로 수출 경쟁력 확보 필요
- 고환율·고금리 지속,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엔저 장기화 등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국내 중소 기계업체들의 수익성 크게 악화
  - 환리스크에 취약한 중소 일반기계 업체들의 경영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금융지원 확대(환변동보험 한도 확대 등) 필요
- 뿌리산업(금형 등)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정책(E-9, E-7-4쿼터 확대) 추진으로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최근 뿌리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생산 자동화로 현장 직무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능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본 직무교육을 이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제4장 철강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 물량은 증가세 전환,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

○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2,705만 1,000톤 규모 예상

-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미국 및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 및 건설경기 호조세를 나타낸 EU, 인도, 일본향(向) 수출 증가, 튀르키예의 지진 복구 수요가 증가하며 물량 기준 수출은 증가세를 시현
- 중국 내 내수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및 감산 일정 지연으로 후판, STS열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중국 수출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침수 피해 복구 완료에 따라 생산이 안정화된 열연강판과 중후판, STS열연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 내 에너지용 수요 증가로 강관의 수출도 전년 대비 증가
  - 2023년 1~9월 주요 국가별 수출 증감률(전년동기비, MTI61 물량 기준): 일본 13.3%, 중국 -16.6%, 인도 10.5%, 미국 -4.7%, 튀르키예 78.9%
- 수출단가는 전년 말 수준에서 6월까지 소폭 상승하다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평균 수출단가는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이 예상, 금액 기준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8.3%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내수는 자동차, 조선 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 2023년 내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5,304만 1,000톤 규모로 추정

- 자동차 판매량 호조, 조선업 시황 회복에 따른 판재류 및 조선용 중후판 수요 증가와 지난해 내수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수 증가세 전환
- 토목건설 부진 및 신규 투자 위축에 따른 하반기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로 H형강, 철근, 중후판 등 건설용 철강재 내수는 부진 예상

□ 생산은 침수 피해 설비 복구 완료에 따른 조업 정상화와 내수 증가로 증가세 전환

○ 2023년 생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7,009만 2,000톤 규모 예상

- 조업 정상화에 따라 3월부터 열연강판의 생산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아연도강판, STS열연의 생산도 소폭 회복세를 시현
- 자동차 경기 호조로 아연도강판 등 판재류 생산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중국산 저가 수입이 급증한 중후판, H형강 및 냉연강판의 생산은 부진
- 2023년 1~9월 주요 품목별 생산 증감률(전년동기비, 철강재 기준): 열연강판 18.1%, 아연도강판 4.0%, 강판 3.5%, 중후판 -2.4%, 철근 -3.4%, 냉연강판 -5.1%, H형강 -11.3%, STS핫코일 -48.9%

□ 수입은 엔저에 따른 일본산 수입 증가와 하반기 저가 중국산 유입 확대에 10% 이상 증가 예상

○ 2023년 철강재 수입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000만 1,000톤을 기록할 전망

- 엔저로 인한 고품위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 증가와 중국 내 감산 지연에 의한 공급과잉 심화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중후판, H형강 등의 수출 확대에 국내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지속
- 태풍 피해로 인해 국산 제품을 대체한 수입 철강재의 유입이 하반기까지 지속되며 수입 증가가 심화
- 상반기부터 수입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금액 기준 수입은 전년 대비 10.2% 하락 예상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세계 철강 수요는 인도, 아세안 등의 신흥국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요 선진국의 통화 긴축기조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
  -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인플레이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및 중국의 경기 둔화로 2023년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철강 수요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여부, 유럽의 긴축정책 및 고에너지 비용에 따른 투자 부진 회복, 미국의 인프라 부문 경기 회복 등이 세계 철강 수요 회복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표 4-1〉 철강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2024년 세계 경제성장 기조	☼
· 중국 부동산 경기 안정화 불확실성	⬆
· 주요국의 인플레이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기조	⬆
·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성장세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중국의 철강 수요 증가 요인이 미미하고, 미국, EU 등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제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세안, 인도의 철강 수요 성장세는 2024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중국 및 일본의 철강 수요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의 호조와 2023년도 수요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의 상승이 예상

- 인도의 고성장 기조와 아세안 지역의 내수 확대 및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이들 지역에서의 철강 수요는 전년 대비 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표 4-2〉 철강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북미	11.4	↔	↔	·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둔화가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인프라용 투자 확대 내수 소폭 개선 예상
EU, 러시아	14.0	↔	↔	· 재고 소진 및 전년도 기저영향으로 소폭 증가 예상,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가자지구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불확실성은 증가 예상
중국	8.5	↔	↔	·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건설용 수요 회복 둔화, 가전, 자동차 등 수요산업 경기개선 및 정부 부양정책에 따른 일부 증가 요인 존재
일본	13.2	↔	↔	· 건설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자동차 중심의 제조업 수요 개선으로 철강 수요 소폭 증가 예상
아세안, 인도	26.3	☀	☀	· 도시화, 도로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제조업 성장 등으로 철강 수요 성장세 지속 예상
합계	73.4	↔	↔	· 전년비 소폭 증가 예상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1~9월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해외 생산

○ 2024년 철강산업의 해외 생산은 아세안, 북미 등 수요 지역에서의 현지 생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 내 수요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

〈표 4-3〉 철강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유럽	🟡	🟡
아세안	↔	↔
북중미	↔	↔
중국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현대제철은 2023년 8월 중국 내 코일센터 두 곳을 매각, 미국 조지아주에는 2024년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코일센터 신설 추진 중

### □ 제품단가 변화

- 2023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 기조는 2024년 상반기에 소폭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원료탄 가격 상승은 상반기 철강 가격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중국의 내수 부진과 최근 아세안 지역 내 설비용량 확대에 의한 공급과잉은 국제 철강 가격 상승의 제약요인, 이에 상반기 이후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표 4-4〉 철강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원료가격의 변화	☆
· 중국의 감산 지면에 따른 공급과잉, 내수 부진	↑
· 아세안 지역의 공급과잉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2024년 국내 철강 수요는 설비투자 증가와 조선용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에 2023년 대비 증가폭이 매우 제한적일 것
  - 연간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건설투자는 -0.2%로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조선용 수요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동차용 수요는 전년 대비 둔화가 예상

〈표 4-5〉 철강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설비투자 등 국내 거시경제 지표	☆
· 조선용 수요 견조	☆
· 자동차용 수요 둔화	↑
·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2024년 전체 공급능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친환경 관련 유망제품 생산 확대 및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된 투자 수요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요 둔화의 지속 및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기존 상공 정 설비의 공급능력 확대 관련 수요는 높지 않을 것

〈표 4-6〉 철강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기업 수익성	↑
· 제품 및 공정 전환 위한 신·증설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표 4-7〉 철강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신규 설비 도입, 연구개발			
투자 수요 특성	· 생산능력 확대, 효율 증대 위한 개체			
요인	· 전기로 신규 투자 및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경기 불확실성으로 제한적 상승 전망 · 설비 효율 증대를 위한 유지보수 · 신규 유망수요 관련 증설 및 사업 다각화 위한 신규 투자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비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향후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전기로 확대, 전기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이차전지파우치용 도금강판 등 친환경 유망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진행

#### □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최종 승인되면서 2023년 10월부터 EU 수출 철강제품에 대한 탄소 내재량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도 협상을 진행 중
- 2024년 철강재 교역에 있어 CBAM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저탄소 철강재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 미국은 공급과잉 원인 제공 및 탄소집약도 기준 미충족, 협정 비(非)참가국의 시장 접근 제한을 위해 EU와 함께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을 논의 중이며,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 시 GSSA 시장에서 고율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 3. 2024년 전망

#### □ 수출은 인도 등 신흥국의 내수 확대와 철강 가격 상승 영향으로 소폭 증가 전망

- 2024년 철강재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2,732만 2,000톤 규모 예상
- 인도, 아세안의 내수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는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아세안 내 철강기업들의 공급능력 확대로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부동산 경기 및 내수 부진으로 현재의 철강 수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단 지연되고 있는 중국의 감산이 실행되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내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미국, 유럽 등에서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으로 전년 대비 성장 예상, 이에 국내 주요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용 판재류 수출이 증가할 전망

〈표 4-8〉 철강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감산</li> <li>· 중국의 경기부양책</li> <li>· 인도, 아세안의 고성장, 내수 확대</li> <li>·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세</li> <li>·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미국의 내수 둔화</li> <li>· 아세안 지역의 공급과잉</li> <li>· 무역장벽 심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인도 등 신흥국 중심으로의 수출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 요인으로 소폭 개선 전망</li> </ul>

- 철강 수출액은 수출단가의 소폭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 예상

□ 내수는 설비투자 개선에도 자동차 생산 둔화 및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제한적 증가 예상

○ 2024년 내수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5,336만 톤 기록 전망

- 2024년 하반기 설비투자의 소폭 회복과 조선용 수요의 견조에 따라 관련 철강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년 대비 생산 둔화와 2023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회복 부진은 내수 확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대내외 불확실성과 제조업의 경기 회복 지연은 설비투자 확대에 제약요인

〈표 4-9〉 철강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설비투자 개선에 따른 관련 철강재 수요 증가</li> <li>·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 자동차 생산 부진</li> <li>·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li> <li>· 거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반기 설비투자 및 조선용 수요 견조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되나 부동산 및 거시경기 불확실성으로 증가폭은 매우 제한적 전망</li> </ul>

□ 생산은 내수 및 수출의 제한적 성장에 따라 전년 수준 대비 소폭 성장 전망

○ 2024년 생산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7,072만 3,000톤 기록 전망

- 2023년 일부 생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던 아연도강판 및 STS열연 등에서 생산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상반기 건설 수요 개선에 따른 봉형강류 생산 소폭 확대가 전망

〈표 4-10〉 철강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로 생산 정상화</li> <li>· 건설용 봉형강류 수요 소폭 증가</li> <li>· 유망 수요 대응 신제품 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내수 회복 부진에 따른 수입재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과 내수 성장으로 소폭 증가 예상, 수입재 확대는 증가세 제약 예상</li> </ul>

- 기계, 조선 등 수요산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H형강, 중후판 등 저가 수입재의 수입은 상반기에도 지속될 예상이며, 이는 생산 확대의 부정적 요인
- 원료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가격 회복이 부진할 경우, 철강사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

□ 수입은 전년도 큰 폭의 규모 증가에 따른 역기저 영향으로 소폭 감소 전망

○ 2024년 수입은 전년 대비 0.4% 감소한 995만 8,000톤 규모 예상

- 중국의 감산 지연과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경우 2024년 중국산 수입의 감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2023년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입단가 하락은 2024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시장에서의 저가의 수입산 수요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침수 피해로 인해 수입산으로 일부 대체된 아연도강판, STS열연 등의 국내산 수요가 회복될 경우 관련 품목의 수입은 감소할 가능성 존재

〈표 4-11〉 철강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의 감산 지연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li> <li>· 수입재 가격경쟁력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실적 증가의 기저효과</li> <li>· 국내 시장의 적극적 수입재 대응 기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내수의 제한적 성장과 기저효과로 물량은 소폭 감소, 단가 상승으로 금액은 소폭 증가 전망</li> </ul>

〈표 4-12〉 철강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단위: 천톤,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25,680 (-5.3)	13,517 (2.8)	13,534 (8.0)	27,051 (5.3)	13,706 (1.4)	13,616 (0.6)	27,322 (1.0)
내수	51,297 (-8.5)	28,262 (1.9)	24,779 (5.2)	53,041 (3.4)	28,092 (-0.6)	25,267 (2.0)	53,360 (0.6)
생산	67,918 (-7.8)	36,511 (0.9)	33,581 (5.8)	70,092 (3.2)	36,550 (0.1)	34,173 (1.8)	70,723 (0.9)
수입	9,058 (-4.5)	5,268 (11.7)	4,733 (9.0)	10,001 (10.4)	5,249 (-0.4)	4,710 (-0.5)	9,958 (-0.4)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물량은 철강재 기준.

〈표 4-13〉 철강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38,448 (5.7)	18,512 (-10.8)	16,739 (-5.4)	35,251 (-8.3)	17,493 (-5.5)	18,252 (9.0)	35,746 (1.4)
수입	24,947 (2.0)	12,261 (-11.2)	10,152 (-8.8)	22,413 (-10.2)	11,763 (-4.1)	10,766 (6.0)	22,529 (0.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전철강(MTI61) 기준.

## 4. 시사점

○ 2024년 철강산업의 생산, 수출 및 내수 성장세는 2023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내수는 설비투자, 조선을 중심으로 소폭의 회복세가 예상되나 상반기의 부진이 장기화 될 경우 회복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및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출 및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표 4-14〉 철강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공급과잉, 친환경화 대응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확대방안 마련</li> <li>· CBAM, GSSA 등 글로벌 탄소 통상 정책 대응 종합전략 마련</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 철강사 저탄소 제품 전환 지원 확대</li> <li>· 고부가 유망 제품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설비교체 지원</li> <li>· EU CBAM 보고의무 발생에 따른 기업 기밀 유출 방지와 수출 관련 행정부담 지원</li> <li>· 시나리오 기반 GSSA 협정, 공급망 강화 정책 대응 전략의 선제적 수립</li> </ul>

-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에서는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와 함께 자국 내 철강생산 설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전망
- 주요 수출 경쟁국에 대한 정책 및 산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철강 기업이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선제적인 저탄소 공정 전환 및 공정 효율화 추진, 친환경 고부가 철강재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 통상 기조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
- 철강 가격 약세, 원부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취약한 중소 철강 기업 대상으로 저탄소 제품 전환과 관련된 지원 확대 필요
- CBAM 전환 기간 개시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의 기회요인 및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논의가 진행 중인 GSSA 협정 및 국가별 공급망 강화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수출, 단가 및 물량 동반 하락으로 16.1% 감소

- 수출단가가 유가 하락 및 정제마진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5.0% 이상 하락하며 수출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약 13.3% 하락하였으며 정제마진은 과거 평년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전년도 기저효과로 감소
- 수출 물량은 국내 정유사의 대규모 정기보수 및 하반기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유사한 수준을 유지
  - 항공유의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하였으나 수출 비중이 높은 휘발유 및 경유를 비롯한 전반적 석유제품의 수출 물량이 감소
  -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및 호주로의 수출 물량은 확대된 반면, 동남아 국가로의 수출 물량이 감소하며 아시아 역내 수출은 약 3.8% 축소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으로의 대체 수출은 증가하였지만 석유제품 전체 수출 물량은 약 0.8% 감소

#### □ 내수, 석유화학용 및 발전용 수요 축소로 0.2% 감소

- 국내 석유제품 소비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용 수요는 전년 대비 6.5% 감소
  - 전년 대비 약 40.0% 증가한 항공유 수요는 코로나19 이전의 90% 정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도로용 수요도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상업용 수요는 소폭 증가한 반면 가정용 소비는 약 9.0%, 발전용 소비는 40.0%나 감소
- 제품별로는 항공유, 휘발유, 윤활유 및 아스팔트의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경유, 병커C유, LPG 및 나프타 등의 소비는 감소

#### □ 생산, 국내 정유사의 대규모 정기보수 및 기저효과로 1.4% 감소

- 글로벌 정제마진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의 가동률 상향 조정 추세가 지속
- 국내 정유사의 가동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3분기의 대규모 정기보수 및 전년도 하반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생산량은 감소

#### □ 수입, 물량은 확대된 반면 단가 하락으로 9.2% 감소

- 석유제품 수입 물량은 전방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3.2% 확대
  - 전체 석유제품 수입 중에서 석유화학용 나프타와 LPG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5% 및 23.1%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
  - 하반기 국내 석유화학산업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가 전체 수입 물량의 확대를 견인
- 수입액은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수입단가가 약 13.5% 하락하며 수입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9.2% 감소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글로벌 석유 수요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2023년 대비 약 0.9% 증가한 1억 220만b/d,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약 0.8% 증가한 1억 270만b/d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추정
  - OPEC도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1억 30만b/d보다 4.0% 증가한 1억 430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제품별로는 수송용 및 석유화학용 등 전반적 석유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는 반면 병커C유 및 아스팔트 등의 수요는 감소
  - 석유화학용 나프타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겠지만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전반적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폭이 제한
  - 수송용 석유제품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가속화 및 연비 효율성 향상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표 5-1〉 정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따른 항공유 수요 확대폭 감소	☼
· 경기 침체로 인한 산업용 수요 감소	☂
·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
·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지속적 수요 증가	☼
·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수송용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 추세로 전환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 엔데믹에 따라 항공유 등의 소비는 증가하겠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에 의해 전체 석유제품 소비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내 석유제품 생산은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정제설비 폐쇄 등의 영향으로 2024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될 전망
- (중국) 석유제품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지만 중국 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등으로 인해 확대폭은 제한적
  - 휘발유 소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증가폭이 크지 않겠지만 리오프닝에 따른 항공유 및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 등의 수요 확대가 전체 석유제품의 내수 확대를 견인
  - 석유제품 생산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상향 조정 및 신규 정제시설 가동으로 2023년에 1,500만b/d를 상회하였으며 2024년에도 확대 추세 지속
- (유럽)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석유화학용 및 산업용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표 5-2〉 정유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11.6	☼	●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수송용 에너지의 전환 ·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중국	8.6	☼☼	☁	· 리오프닝에 따른 항공유 및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 등의 수요 확대 · 신규 정제설비 가동, 정제설비 가동률 및 수출쿼터제 확대에 경쟁 심화
EU	5.2	●	●	·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 석유제품 수요 위축 · 산업용 및 도로·수송용 수요 감소
아시아 (중국 제외)	70.0	☁	☁	· 휘발유 및 항공유 등의 도로·수송용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비OECD 아시아 국가의 석유제품 소비 확대가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증가를 견인
기타	4.6	☁	☁	·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의 석유제품 소비는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
합계	100	☁	☁	·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중국과 미국 및 비OECD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약 1.0%대 증가 · 미국 및 유럽 등 OECD 국가의 석유제품 수요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및 경제활동 부진이 이어지며 휘발유와 경유 등 도로용 및 수송용 석유제품의 감소세도 지속될 전망

○ (아시아) 중국과 더불어 비OECD 아시아 국가의 석유제품 소비 확대가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증가를 견인

- 동남아 국가 및 인도 등의 견고한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대비 3.5~4.0%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가 예상

### □ 제품단가 변화

○ 석유제품 수출단가는 정제마진 하락 및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으로 2023년 대비 약 2.0% 낮아질 것으로 전망

-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8.8% 상승한 86.0달러로 추정되지만, 하반기에는 5.3% 하락할 것으로 추정

○ 글로벌 정제마진은 석유제품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3년 대비 감소하겠지만 전반적인 호조세는 지속

- 중국의 석유제품 생산량 및 수출 쿼터 확대와 인도 및 중동 국가의 생산량 증가가 정제마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공급 확대폭은 제한적

〈표 5-3〉 정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	☼
·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	☂
· 중국, 인도 및 중동국가의 석유제품 공급 확대	☂
· 비OECD 국가의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 미국 및 유럽 등 OECD 국가의 석유제품 소비 감소	☂
· 글로벌 정제마진 하락	☂

주: (전년동기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글로벌 석유화학용 나프타의 견고한 수요 증가와 비OECD 국가의 전반적 석유제품 소비 확대가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과거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정제마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나프타 및 LPG 등 국내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가 국내 전체 석유제품의 소비 확대를 견인
  - 석유화학제품의 내수 및 수출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완료 및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량이 확대
- 도로용 석유제품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연비 효율 개선으로 증가율은 제한적
  - 항공유 소비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엔데믹 시간 경과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폭은 점진적으로 감소
  - 산업용 수요는 경기 회복 지연 및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

〈표 5-4〉 정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석유화학제품 내수 및 수출 확대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	☼
· 엔데믹에 따른 항공유 및 휘발유 수요 확대	☼
·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정용 석유제품 수요 감소	☹
·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및 연비 효율화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신규 정제설비 증설보다는 코로나19로 축소된 정제설비 가동률의 점진적 상향 조정 및 공정 개선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
  -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글로벌 정제마진 강세 지속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며 석유제품 생산량이 소폭 확대

〈표 5-5〉 정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 정제설비의 효율 개선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국내 정유사의 설비투자는 석유화학산업 및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 비정유 부문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다각화 중심으로 추진
  - 사업다각화의 경우 S-Oil이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COTC(Crude Oil to Chemicals)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
  - 탄소중립이 본격화되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및 재생항공유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를 실행

〈표 5-6〉 정유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기존 설비 합리화, 사업다각화, 연구개발, 에너지 및 환경			
투자 수요 특성	· 사업다각화 투자 · 설비효율 증대 위한 개체·유지보수 · 친환경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투자			
요인	· 사업다각화를 위한 비정유 부문(석유화학시설) 투자 확대 ·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설비투자 확대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4) 정유사 기준으로 석유화학 부문 다각화 투자 포함.



### □ 여건 변화 및 주요 이슈

- 글로벌 정제설비의 가동률 상향 조정 및 신규 정제설비의 가동으로 수요 우위 추세가 완화될 전망
  - 중국 22만b/d, 인도 및 중동 국가는 13만 2,000b/d의 신·증설 설비가 순차적으로 가동되며 글로벌 공급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 다만, 미국 및 유럽 등 OECD 국가의 석유제품 생산량 감소로 급격한 공급과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 원유 도입 및 석유제품 수출 확대로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
  - 중국과 인도는 가격이 하락한 러시아산 원유의 55% 이상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
  - 중국은 지난해부터 석유제품 생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해외 수출 킬터는 2021년 3,700만 톤에서 2022년 3,730만 톤, 2023년에는 4,000만 톤으로 증가
-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지만 유럽 등의 경기 침체 장기화와 주요 경쟁국과의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는 글로벌 정제마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3. 2024년 전망

### □ 수출, 물량은 확대되는 반면 단가 하락으로 1.0% 증가

- (긍정 요인) 석유화학용 중심의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확대 및 비OECD 국가의 견고한 수요 증가 추세 지속
  - IEA는 휘발유 수요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반면 석유화학용 나프타 수요가 2023년 대비 5.8% 증가하며 전체 석유제품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OECD 국가의 석유제품 수요는 감소하겠지만 비OECD 국가의 석유제품 수요는 2.0%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수요를 견인

〈표 5-7〉 정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화학용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li> <li>· 비OECD 국가의 수요 증가세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유가 하락</li> <li>· OECD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li> <li>·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물량은 증가하겠지만 유가 및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li> </ul>

○ (부정 요인) 글로벌 석유제품 수출경쟁 심화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

- 수출단가는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 및 수요 우위 추세 완화에 따른 정제마진 감소로 전년 대비 약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도입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아시아 역내 수출 물량 확대는 정제마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내수,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로 1.5% 증가

○ (긍정 요인)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설비 운영 및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나프타 및 LPG 등의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증가

- 항공유 소비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겠지만 휘발유 등 도로용 석유제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연비 개선으로 소폭 확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는 약 2.0%의 국내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소폭의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부정 요인)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한 가정용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 가정용 석유제품 수요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 12월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될 경우 석유제품 소비 감소에 영향

〈표 5-8〉 정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가동 및 기존 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li> <li>· 내수 및 수출 확대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정용 수요 감소</li> <li>·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의 종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확대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li> </ul>

□ 생산은 수출 및 내수 확대로 1.8% 증가

- (긍정 요인) 글로벌 정제마진 호조세 지속에 따른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생산량 확대
  - 국내 석유제품 생산량은 수출 및 내수 동반 증가와 글로벌 정제마진 강세 지속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 (부정 요인) 가정용 및 산업용 석유제품의 내수 부진과 주요 경쟁국과의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
  -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유, 병커C유 및 LPG 등의 수요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OECD 국가의 경기 침체 심화와 중국 및 인도 등의 아시아 수출 물량 확대는 국내 석유제품 생산 확대폭을 제한

〈표 5-9〉 정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정제마진 호조세 지속</li> <li>· OECD 국가로의 수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및 가정용 석유제품 내수 부진</li> <li>· 중국 및 인도 등 주요 경쟁국과의 아시아 역내 수출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및 내수 동반 상승과 글로벌 정제 마진 강세 지속에 따른 생산량 증가</li> </ul>

□ 수입, 물량 확대 및 전년도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6.2% 증가

- (긍정 요인)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완료 및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량이 확대
  - 전체 석유제품 수입에서 석유화학용으로 사용되는 나프타 및 LPG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
  - 지난해 상반기 석유화학산업 부진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 기저효과도 수입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부정 요인)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자급률 확대는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

〈표 5-10〉 정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원료 및 가동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확대</li> <li>· 전년도 상반기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에 따른 석유화학용 석유제품의 자급률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에 따른 수입 물량 확대로 수입액 증가</li> </ul>

〈표 5-11〉 정유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단위: 천 배럴,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497,020 (11.3)	242,155 (3.6)	250,698 (-4.7)	492,853 (-0.8)	244,591 (1.0)	256,096 (2.2)	500,687 (1.6)
내수	1,114,043 (0.4)	546,993 (-2.2)	564,763 (1.8)	1,111,756 (-0.2)	566,663 (3.6)	561,688 (-0.5)	1,128,351 (1.5)
생산	1,243,990 (6.9)	611,059 (0.4)	614,908 (-3.2)	1,225,967 (-1.4)	616,807 (0.9)	631,709 (2.7)	1,248,516 (1.8)
수입	367,073 (-6.4)	178,089 (-3.5)	200,553 (9.9)	378,642 (3.2)	194,447 (9.2)	186,075 (-7.2)	380,522 (0.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5-12〉 정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62,873 (64.9)	24,577 (-19.8)	28,144 (-12.7)	52,721 (-16.1)	26,477 (7.7)	26,756 (-4.9)	53,233 (1.0)
수입	26,709 (10.9)	11,140 (-21.4)	13,103 (4.6)	24,243 (-9.2)	13,384 (20.1)	12,361 (-5.7)	25,744 (6.2)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MTI 133 기준.

## 4. 시사점

-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우위 추세 완화 및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정제마진 악화에 대비할 필요성 존재
  -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생산 효율화 및 가동률 최적화 등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중 확대와 유종 및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 노력 지속
  - 석유제품 생산 공정용 원료로 투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LPG 생산용 원유 수입 부과금 감면 등 정부의 세제지원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 검토
- 중국 및 인도, 중동 국가의 신·증설 설비 순차 가동 등 글로벌 석유제품의 공급 및 수출 확대에 대비한 수출 강화 전략 마련
  - 중국 정부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3,999만 톤의 석유제품 수출쿼터를 부여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
  - 주요 수출 지역인 아시아 역내 비OECD 국가로의 수출 물량 유지와 더불어 자국 석유제품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OECD 국가에 대한 수출 다변화 및 판로 강화 전략이 필요
- 탄소중립 및 비정유 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표 5-13〉 정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우위 추세 완화 및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정제마진 악화에 대비</li> <li>· 글로벌 석유제품 수출 확대에 대비한 수출 강화 전략 마련</li> <li>· 탄소중립 및 비정유 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효율화 및 가동률 최적화 등을 통한 이익 극대화</li> <li>· 원유 수입선 최적화 및 세제 개선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li> <li>· 아시아 비OECD 국가로의 수출 물량 유지 및 OECD 국가에 대한 수출 다변화 및 판로 강화</li> <li>· SAF에 대한 R&amp;D 지원 및 세액공제 적용</li> <li>·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수요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li> </ul>

- 국내 정유사들은 재생항공유인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  
중으로 정부의 R&D 투자 지원과 미국과 같은 SAF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공장의 상업 가동 및 정유공정 투입을 위한 실증연구가 본격화  
됨에 따라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한 수요 시장 확대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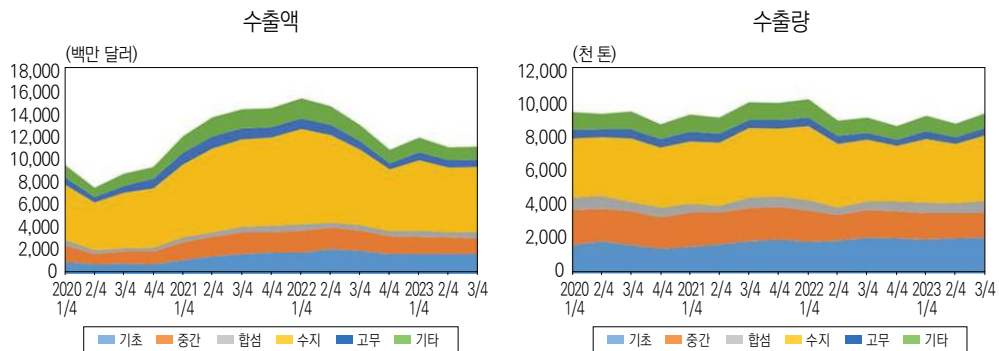
## 제6장 석유화학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은 글로벌 화학 시장 내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수출액과 수출량 모두 전년 대비 큰 폭 감소
- 2023년 수출량은 국내 공급 역량 확충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세 둔화와 중국 석유화학 시장 내 자급률 상승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
  -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석유화학 시장 내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이 2022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되며 생산능력이 대폭 확충
    - 특히 중국은 기존 에틸렌 생산설비 이외에도 프로필렌 생산설비(PDH) 증설이 본격화되며 프로필렌 계열 제품의 생산능력도 향상
  - 2023년 상반기까지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지연되면서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폭도 제한적이었으나, 3분기부터 다소 회복되는 모습
  - 중국 이외에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인도향, 베트남향 수출 물량도 상반기까지 감소했으나,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
- 동년 수출액은 수출량 소폭 감소와 제품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
  -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입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하락

- 중국, 미국, 아세안 및 인도 등 주력 수출시장 내 석유화학 전방산업의 업황 개선이 지연
  -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 완화 등 경기부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리스크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전망
- 동아시아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확충으로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되며 제품가격 하락
- 동년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액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한 모습

〈그림 6-1〉 석유화학제품 수출 추세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 품목별 수출입통계.  
 주: MTI 기준(211, 212, 213, 214, 215, 219).

□ 내수는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2022년 이래 감소세 지속

- 2023년 내수는 국내 석유화학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하나, 하반기 들어 전방산업 업황이 다소 개선되며 1.9% 증가
  - 상반기에는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반도체와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건설산업 등 주요 수요산업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중간재 수요 감소 뚜렷
  - 하반기 석유화학제품 내수는 상반기 대비 소폭 증가하지만, 2022년 하반기 대비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

□ 생산은 상반기 감소 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2.7% 감소

- 2022년 말까지 국내 석유화학사들과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생산설비 신·증설을 완료하



면서 국내 공급 역량은 대폭 확대

- 동아시아 화학 시장 내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가 위축되며 국내 생산설비 가동률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이에 대응해 국내 석유화학사와 정유사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생산설비 정기보수를 진행하며 2023년 상반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1% 감소
- 하반기부터 생산시설 정기보수 종료로 가동률이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며 생산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
-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과잉이 완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생산량은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 수입 물량은 상반기 내수 부진이 하반기에 회복되며 전년 대비 2.7% 증가

- 2023년 석유화학제품 수입량은 상반기 내수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8.9% 증가
- 하반기 국내 석유화학 생산시설 재가동에 따라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입량 증가
-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대부분 제품 스프레드가 감소하며 하반기 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감소세 지속

## 2. 2024년 국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 수요) 세계 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소폭 회복 기대
- 2023년부터 주요국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 긴축정책이 추진되며 제한적으

### 로나마 성장할 전망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로 고에너지 가격 및 고유가 상황은 2024년에도 지속될 전망
- 미국, 유럽, EU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긴축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반면,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해소 여부가 글로벌 경기 변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표 6-1〉 석유화학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주요 수출 대상국 경제성장을 제한적 성장	☼
· 고유가, 고에너지 가격(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 기저효과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의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나 중국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중국) 중국 경기 부진과 자금률 상승에 따른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수요 감소 우려
  - 중국 정부는 제로코로나 정책 이후 통화 완화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나, 부동산 부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제한적인 경제성장 전망
  - 동시에 2022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신·증설이 완료되면서 공급 역량이 확대되었고, 주요 제품별 자금률도 상승
  - 한국의 대중국 주력 수출 제품(중간원료(P-X), 합성수지 등)의 공급 규모가 확대되며 원가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국산 제품의 대중 수출량은 감소할 전망
- (미국) 미국 경기의 제한적 성장의 영향으로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수요도 소폭 증가
  - 통화 긴축정책 기조가 유지되며 화학 시장 내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여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 규모 증가폭을 제한할 전망

〈표 6-2〉 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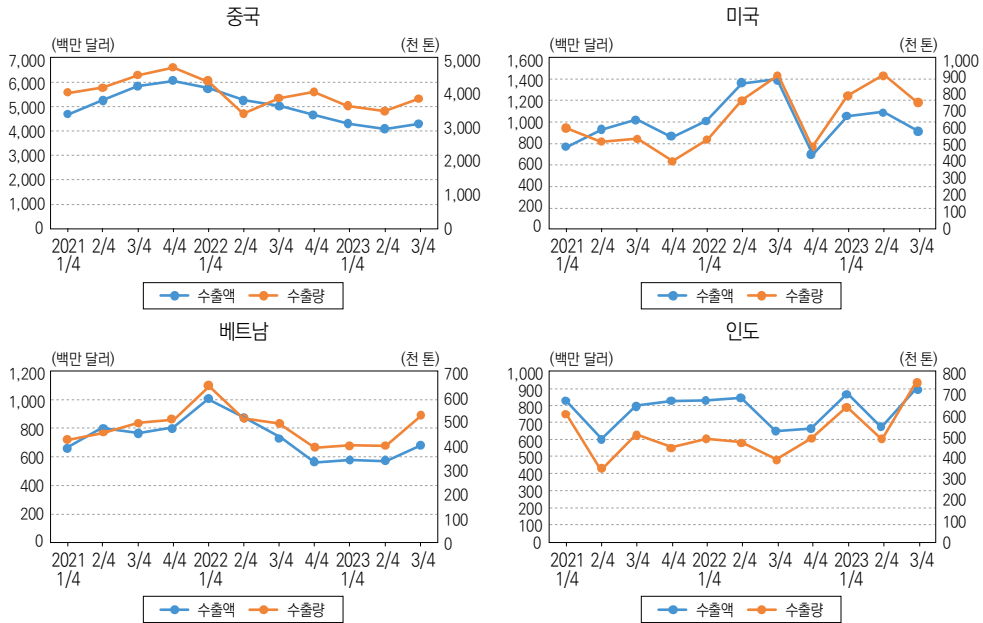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50	↗	↗	· 더딘 경기 회복 속도와 자급률 상승으로 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 감소
아세안	15	↗	↔	· 전방산업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량 감소
기타	35	↗	↔	· (미) 2022년 상반기까지 경기 회복 여파로 수출액 증가 후 감소 · (인) 전방산업 호조로 수출 증가 후 제품단가 인상으로 수출량 감소
합계	100	↗	↔	· 수출량 감소폭은 개선되나, 단가 하락에 의한 수출액 감소폭 증가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에탄(ECC) 기반 미국 석유화학 시장 내 자급률이 낮은 방향족 제품 중심의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 형성
-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기존 중국향 수출 물류비용 대비 미국향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

〈그림 6-2〉 주요 수출국별 수출액 및 수출량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2023).

주: MTI 21(석유화학제품) 기준.

- (인도)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화학제품 초과 수요 시장으로 향후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출시장으로 대두될 전망
  - 2022년 기준 인도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750만 톤 수준이며, 인도는 수요 대비 공급 역량이 부족한 순수입 시장
  - 최근 자동차용 소재 및 건축자재용 화학제품 수요 증가세 뚜렷해 PVC, ABS 등 다운스트림 제품 중심으로 수출량 증가
  - 향후 완전 자급에 근접해 수출된 중국산 화학제품과 국산 제품 간 경쟁 격화 전망

□ (해외 생산)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 내 수요가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감소

- 주요국 정부의 통화 긴축정책과 글로벌 화학 시장 내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 유화사들의 해외 생산은 회복
  - (중국)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생산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미국) 정부의 통화 긴축정책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유화사들의 생산 규모도 다소 감소할 전망
  - (아세안) 현지 전방산업 경기 둔화 속에서도 범용제품 중심 생산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6-3〉 석유화학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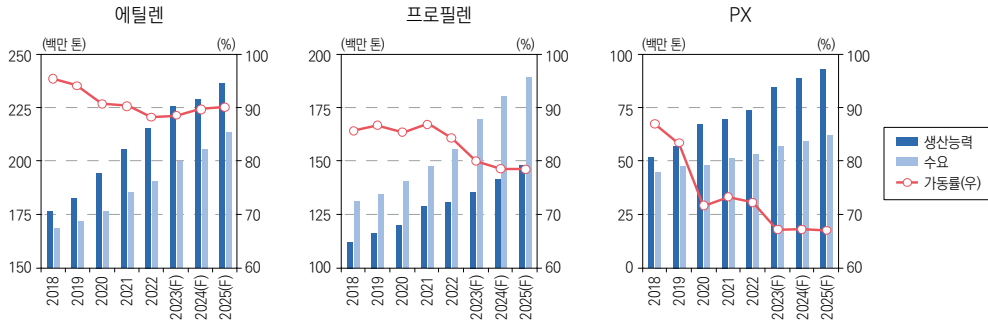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중국	↔	↔
아세안(말레이시아 등)	↔	↔
미국	↔	↕
합계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제품단가)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과잉 속 점진적 수요 성장도 기대

- 2022년 말까지 한국, 중국, 아세안 지역 내 생산시설 신·증설로 공급 규모가 확대되며 시

〈그림 6-3〉 석유화학 시장 내 수급 상황 전망



자료: 김서연(2023), "공급과잉 장기화에 따라 저조한 사업환경 지속될 전망", 「Nice Industry Roundup」, 나이스산업평가.

장 내 공급과잉 현상은 2025년까지 지속될 전망

- 점진적으로 수요도 회복되고 있으나 공급과잉 현상 장기화로 주요 제품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국제유가는 2023년보다 상승하며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비용 상승을 견인

-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하에서 상반기 원유 생산국들의 공급 감소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하나, 하반기부터 수요 둔화에 따라 하향 안정화될 전망
- 나프타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중 원가 비중이 80% 이상인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비용 부담은 전년 대비 증가하며 제품가격 하락과 더불어 스프레드 악화가 우려
- 주요 수출국 시장 내 나프타 기반 국산 석유화학제품은 에탄 기반 제품과의 원가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이며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

〈표 6-4〉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국제유가 변화(상향 안정화)	⬆
· 시장 수급(공급과잉, 점진적 수요 회복)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국내 수요) 국내 경제의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IT 제조업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됨에 힘입어 소폭 개선
- 2024년 국내 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2023년 저성장에 의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부동산 리스크를 반영한 중국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요인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 가능
- 내년 민간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소폭 증가에 따라 화학제품 중간재 내수 증가 기대
  - 민간 소비는 정부의 긴축통화정책과 고금리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 설비투자과 건설투자 규모가 소폭 증가할 전망
  - 자동차 및 IT제품 관련 합성수지, 건축자재용 화학제품 수요 증가가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

〈표 6-5〉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국내 경제성장률 증가(설비투자, 건설)	☼
·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 회복	☼
· 기저효과	☼
· 제품가격 하락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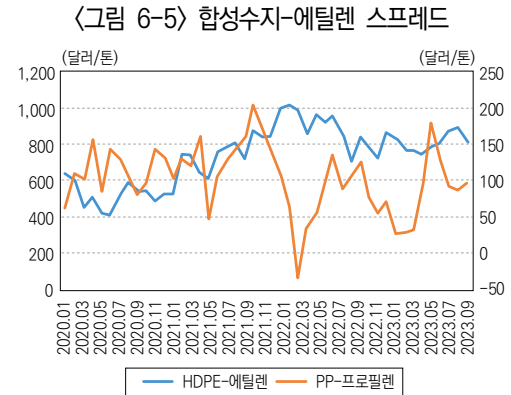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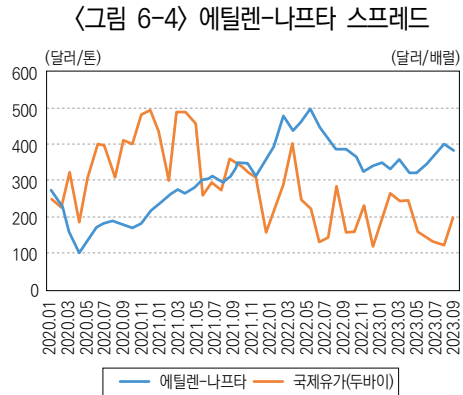
- (공급능력)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이 완료되어 공급능력은 증가하겠으나 제품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공급량 증가폭은 제한
-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이 완료되어 국내 석유화학제품 공급 역량은 크게 개선

- 동년 하반기부터 원료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주요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가 축소되며 생산설비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생산설비 가동률을 80% 이하로 낮추거나 정기보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잉 공급 상황에 대응
  - 2023년 하반기부터 생산시설 가동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재고 소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급량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표 6-6〉 석유화학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국내외) 생산시설 신·증설 원료	☆
·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	↑
· 제품 스프레드 위축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자료: 한국석유화학협회 (2023).

- 2024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투자는 기존 생산설비의 효율 개선 및 신제품 개발에 집중
  - 제품 스프레드 위축으로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화학 시장 내 수요 개선과 과잉 공급이 해소되기까지 대규모 생산시설 증설은 보류될 전망
  - 다운스트림 분야 스페셜티 또는 비석유 화학 분야 신제품 개발 투자는 지속

〈표 6-7〉 석유화학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2024년	
투자 종류	· 기존 설비 합리화, 연구개발			
투자 수요 특성	· 생산시설 유지보수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요인	· 2024년까지 업황 악화의 영향으로 추가적 설비 확장 투자 수요 위축 · 다운스트림 분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되며 설비투자 감소폭 제한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3. 2024년 전망

□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횡보(-0.5%)하며 점진적으로  
 업황 회복 국면에 진입

○ 2024년 수출량은 국내 공급 역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 내 수입 수요 둔화로 전년 대비 0.7% 증가에 그칠 전망

- 동년 상반기는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이 상승하고 기저효과에 의해 전년 대비 1.4% 증가

- 하반기에는 석유화학제품 재고 우선 소진 문제로 동아시아 시장 내 수요자들이 구매 시점을 연기하며 수출량은 전년 대비 횡보할 전망

-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중국보다 인도 및 아세안 등 신흥국향 수출 물량 증가 기대

○ 2024년 수출액은 수출단가 하락 영향이 지속되며 2023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전망

- 중국 시장 내 자급률 상승으로 동아시아 시장 내 공급과잉 상황이 동년 하반기까지 유지되며 제품가격 하락을 견인

-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가 제한적이거나 개선되어 동아시아 시장 내 수요도 소폭 증가하면서 동년 하반기부터 공급과잉 상황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2025년부터 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액은 감소세가 종료된 후 점차 반등할 것으로 기대



〈표 6-8〉 석유화학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보수 종료로 국내 공급 역량 확대</li> <li>· 가동률 평년 수준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시장 공급과잉에 의한 수출단가 하락</li> <li>· 중국 자급률 상승으로 국산 제품 수입 수요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물량 소폭 증가</li> <li>·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 횡보 (회복 국면 시작)</li> </ul>

□ (내수) 민간 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전방산업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며 전년 대비 1% 증가

○ 2023년 상반기까지 내수는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국내 전방산업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2024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제품군 수출이 반등하고, 자동차 경기가 호조세를 유지하면서 관련 화학 중간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
- 민간 소비 감소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이 2%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화학제품 내수 규모는 평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

〈표 6-9〉 석유화학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제성장률 2% 초반대 성장</li> <li>· 전방산업(자동차, IT) 경기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소비 위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진적 경기 회복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li> </ul>

□ (생산) 내수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생산시설 가동률이 상향 조정되어 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겠으나 재고 처리 문제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

○ 2022년까지 국내 유화사 및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생산시설 신·증설을 완료하면서 국내 공급 역량은 대폭 확대

- 2023년 상반기까지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생산시설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정기보수를 진행하며 감산하는 전략을 추진
- 2024년부터 내수와 수출량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며 석유화학사들은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을 상향 조정할 전망

〈표 6-10〉 석유화학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li> <li>· 내수 개선</li> <li>· 수출 물량 소폭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고 우선 처리 부담</li> <li>· 중국 자급률 상승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li> </ul>	· 생산량 소폭 증가

- 동아시아 화학 시장 내 공급과잉 문제로 축적된 재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2024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증가에 머물 전망

□ 수입은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범용제품 수입량 규모가 확대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2024년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범용제품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표 6-11〉 석유화학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경기 소폭 회복</li> <li>· 범용제품 중심 수입 규모 증가</li> </ul>	· 공급과잉에 의한 수입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량, 수입액 증가</li> <li>·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 증가폭 제한</li> </ul>

〈표 6-12〉 석유화학산업의 수급 전망(물량 기준)

단위: 천톤,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36,883 (-4.1)	17,996 (-5.9)	18,081 (1.8)	36,077 (-2.2)	18,252 (1.4)	18,069 (-0.1)	36,321 (0.7)
내수	10,955 (-3.5)	5,235 (-10.1)	5,228 (1.9)	10,463 (-4.5)	5,287 (1.0)	5,283 (1.1)	10,570 (1.0)
생산	22,115 (-1.8)	10,654 (-10.1)	10,871 (5.9)	21,525 (-2.7)	10,765 (1.0)	10,892 (0.2)	21,657 (0.6)
수입	8,988 (-12.1)	4,650 (-2.7)	4,582 (8.9)	9,232 (2.7)	4,748 (2.1)	4,690 (2.4)	9,438 (2.2)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수출입은 MTI 21(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내수는 3대 유도품 기준.

〈표 6-13〉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54,316 (-1.4)	23,222 (-23.3)	22,055 (-8.3)	45,277 (-16.6)	23,055 (-0.7)	22,002 (-0.2)	45,057 (-0.5)
수입	14,317 (-2.3)	6,416 (-18.7)	6,068 (-5.6)	12,484 (-12.8)	6,392 (-0.4)	6,176 (1.8)	12,568 (0.7)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수출입은 MTI 21(석유화학제품), 생산 및 내수는 3대 유도품 기준.

- 2023년 하반기부터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내수도 소폭 개선되며 해외 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규모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동년 해외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단가 하락폭은 전년 대비 다소 축소되었지만 상반기까지 감소세는 지속되며 수입액 증가폭을 제한할 전망

#### 4. 시사점

-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다운스트림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화학 가치사슬 내 업스트림 부분으로 진입 확대, 중국산 범용 석유화학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석유화학사들은 다운스트림 분야로의 진출 전략 추진
  - 2023년 상반기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경영 실적이 악화하였으나, 비석유화학 분야의 경영 실적이 양호한 모습
  - 향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석유 기반 원료 의존성이 높은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채산성은 악화될 전망
  - 국산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응해 석유화학사들은 고부가 화학 신소재, 친환경 소재, 이차전지, 바이오 소재 등 다운스트림 분야로의 진출 전략을 추진

〈표 6-14〉 석유화학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 석유화학사의 다운스트림 진출 활성화 지원
대응방안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에 석유화학 스페셜티 제품 포함

-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다운스트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사업재편지원제도 (기활법)」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동력 기술 내에 화학 신소재, 스페셜티 제품, 친환경공법 활용 소재 등을 포함함으로써 다운스트림 분야에 진출한 석유화학 기업을 신산업 진출 기업으로 지정하여 기활법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자주회사 규제 특례, 자금 지원,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제7장 섬유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은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및 리스크 병존에 따른 의류 소비 급감으로 큰 폭 감소

○ 수출은 전년 2분기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어 큰 폭의 감소를 기록

- 각국의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러-우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금융권 불안 요인 등으로 글로벌 섬유 수입 수요는 급감

· 수출 증감률(전년동분기비): (2023. 1분기) -15.1% → (2분기) -11.3% → (3분기) -11.7%

○ 국가별로는 주요 미국, 일본 등 선진권의 의류 수요 위축으로 의류 수출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생산기지향 섬유소재 수출 동반 급감

- 수출 증감률(9월 누계, 전년동기비): 베트남 -14.8%, 중국 -6.8%, 미국 -16.0%, 인도네시아 -22.8%, 일본 -7.4% 등

□ 내수는 상반기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의류 소비 증가 및 단가 상승으로 증가

○ 내수는 상반기에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단가 상승으로 의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하반기 경기 부진과 더불어 주춤

- 상반기 엔데믹 본격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행 확대에 의류 소비 증가, 온라인 거래의 지속 성장과 더불어 대면 활동 증가로 온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등 내수 확대 견인
  - 의류 소매판매액 증감률(전년동분기비): (2023. 1분기) 13.8% → (2분기) 4.0% → (3분기) 0.0%
  - 의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감률(전년동분기비): (2022. 4분기) 2.6% → (2023. 1분기) 9.7% → (2분기) 0.4%
- 백화점 매출 동향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여성캐주얼, 아동·스포츠, 잡화 중심으로 증가
- 반면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의류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경기 및 제조업 부진으로 산업자재용 수요까지 위축되며 섬유 내수는 둔화

□ 생산은 급격한 수출 둔화 및 화섬사 구조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내수 확대 및 가격 상승 효과로 증가

- 금액 기준 국내 생산 증가는 상반기 의류 내수 증가와 더불어 원·부자재 등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과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의류의 고급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에 기인
- 물량 기준 생산은 세계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동률 조정 등으로 감소
  - 선진권의 경기 부진에 따른 의류 소비 위축으로 글로벌 유통바이어 및 브랜드의 섬유소재 소싱 축소에 따른 생산 위축
-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국내 화섬사의 사업 정리 및 생산능력 축소로 화섬 생산 물량 대폭 감소
  - 금년 상반기에 국내 화섬사가 폴리에스터 장섬유(PF) 일반 사 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생산능력 축소에 생산 감소 불가피
    - 2023년 2월 말 TK케미컬이 연산 12만 톤, 4월 24일 성안합섬이 연산 10만 톤 규모의 폴리에스터 장섬유(PF) 일반 사 사업을 정리, 이는 전체 PF 생산능력의 약 33%에 해당

- 화섬 생산물량 증감률(전년동기비, 통계청): (2023. 1분기) -31.7% → (2분기) -37.7% → (3분기) -34.2%
- 면방업계 역시 글로벌 의류 소비 부진에 따른 면사 수요 감소로 감산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체증 및 면사 값 하락 지속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 악화
- 방직 생산 증감률(전년동기비, 통계청): (2023. 1분기) -7.1% → (2분기) -10.7% → (3분기) -13.4%

□ 수입은 전년 실적 호재에 따른 기저효과 및 하반기 소비 위축으로 감소

- 상반기 의류 내수 확대로 상반기까지 의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민간 소비가 급격히 둔화하며 의류 수입이 감소로 전환
- 섬유 생산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산 투입용 원사 및 직물 등의 수입 수요가 줄고,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라 산업자재용 섬유소재의 수입도 부진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 수요

- 세계 섬유 수요는 글로벌 여건 악화 지속으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러-우 사태 장기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성장 둔화, 주요국의 긴축재정 및 금리 인상 등은 민간 소비 및 세계 산업활동을 저해하여 섬유·의류 수요를 제약
- 반면 미국 및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 디지털 전환 지속으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지속
- 리사이클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전기차 성장에 따른 아라미드 타이어코드, 5G 확대에 따른 아라미드, 수소차 저장용기용 탄소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표 7-1〉 섬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의류 및 산자용 섬유 수요 부진	↑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섬유 수입 수요는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소폭 감소 전망
- 미국, 일본 등 주요 의류 수입국의 수입 수요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의류 생산기지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향 수출의류용 원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금년 10월 발발한 이-팔 전쟁은 내년 대중동 수출에 부정적 영향

〈표 7-2〉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베트남	20.4	●	☁	·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
미국	13.6	●	☁	·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의류 소비 감소 ·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증가
중국	12.6	☁	●	· 부동산 경기 리스크,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섬유 수요 둔화 ·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EU	9.4	☁	☁	·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 유로 경기 소폭 개선 전망 · 친환경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증가
인도네시아	6.6	●	●	·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일본	5.2	●	●	· 민간 소비 회복세 약화로 의류 소비 부진 · 엔화 약세 ·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증가
중동	4.0	●	●	· 이-팔 전쟁에 따른 섬유 소비 둔화
전 세계	100.0	●	☁	·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섬유 수요 부진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2)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해외 생산

- 섬유 기업의 해외 생산은 세계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 및 고금리, 러-우 및 이-팔 등 지역 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섬유·의류 수요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의 해외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은 탈중국 현상에 의한 반사이익 기대와 다양한 무역협정 효과에 의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이 생산 확대 요인으로 작용
  - 타이어코드, 스판덱스 및 스판덱스 원료, 의류 등 국내 진출 기업의 생산 물량이 다소 증가
- 중국의 경우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생산 품목이 수출용 의류 및 원단에 집중되어 있어서 글로벌 경기의 제한적 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생산 증가는 어려울 전망
  - 또한 중국의 섬유소재 품질 및 경쟁력 제고로 현지 조달 비율이 높아진 것도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생산 증가를 제약

〈표 7-3〉 섬유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4년 상반기 추정	2024년 하반기 전망	2024년 전망
베트남	↔	↔	↔
인도네시아	↕	↔	↔
중국	↕	↕	↕
합계	↕	↔	↔

주: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제품단가 변화

- 섬유제품의 단가는 2024년 상반기 유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이-팔 전쟁의 확산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병존하는 가운데, 원유 생산국들의 공급 감소 등으로 상반기 원유가 상승이 예상
  - 석유 기반 화학섬유를 원료로 하는 섬유제품의 비중이 높아서 유가의 상승은 섬유제품의 단가 인상으로 직결

- 다만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및 글로벌 바이어들의 단가 인하 압력, 온라인 거래 확산 등은 단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반기 유가 하락과 더불어 단가는 하향 안정화 전망

〈표 7-4〉 섬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원유, 화석원료, 염료 등)	☼
·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 및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력	⬆

주: (전년동기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국내 경기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섬유 수요 회복은 제한적
  - 하반기 민간 소비 증가로 국내 의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자산가치 하락 및 실질소득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 및 이자 비용 부담 등이 증가세를 제약
  - 국내 제조 활동의 둔화가 예상되면서 산업용 자재 및 의류용 소재의 수요 둔화 불가피, 반면 섬유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고도화에 따른 수요 증대 전망

〈표 7-5〉 섬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 및 고금리 등 소비심리 위축	⬆
· 국내 제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섬유 수요 둔화	⬆
· 경기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소비 증가	☼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국내 섬유업체의 생산능력은 범용제품의 경우 수출 및 내수 등 수요 변화에는 가동률 조정으로 대응하며, 공급능력을 확대할 유인이 없는 상황
- 화학섬유산업의 경우 2023년 상반기에 TK케미컬과 성안합섬이 중국산 범용 폴리에스터 장섬유(PF)와의 가격경쟁력에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면서 생산능력 및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며, 범용제품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
- 반면 화섬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가 진행되어 생산능력은 확대 지속
  - 효성첨단소재: 2024년까지 아라미드 생산설비 증설
  - 코오롱인더스트리: 2024년 하반기까지 220억여 원을 투자해 구미공장에 연산 1,500톤 규모의 아라미드 펄프 생산 라인 증설, 2024년 상반기까지 여수공장에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PMR) 생산시설 증설
  - 태광산업: 2025년까지 아라미드 생산능력 3,500톤 증설(1,450억 원) 진행 중
  - 화섬 원사의 경우 주력 품목인 폴리에스터 사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산자용 소재의 해외 증설도 동시에 진행
- 효성그룹, 베트남 탄소섬유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2023. 7. 25)

〈표 7-6〉 섬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산 및 폐업 등 공급능력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표 7-7〉 섬유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기존 설비 확장, 연구개발			
투자 주요 특성	·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요인	·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 대응 설비 증설 투자 진행: 전기차, 5G, 수소차 확대 등 대응 * 효성첨단소재: 2024년까지 아라미드 5,000톤으로 증설(612억 원) 등 * 코오롱인더스트리: 2024년 하반기까지 220억여 원을 투자해 구미공장에 연산 1,500톤 규모의 아라미드 펄프 생산라인 증설, 2024년 상반기까지 여수공장에 고순도 방향족계 석유수지(PMR) 생산시설 증설 * 태광산업: 2025년까지 아라미드 3,500톤 증설(1,450억 원) · 기획, 생산공정, 유통/홍보 등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설비투자 진행 · 범용 섬유소재 및 봉제 의류 등은 유지보수 등 소극적 투자 진행			

주: 1) 전망: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주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3. 2024년 전망

#### □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 불구, 첨단소재 수출 및 기저효과로 증가

-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재 불구, 전년의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단가 상승으로 소폭 증가로 전환
- (증가 요인) 제품의 수요 구조 고도화 및 제품 첨단화, 한류,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지속가능 성장 요구, 탈탄소 대응 등으로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수요 확대로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전기차(아라미드 타이어코드), 탄소섬유(CNG 고압용기, 케이블용, 재생에너지용 등), 5G(광케이블용 아라미드) 등
    - 2023년 7월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증설분(2,500톤/년) 가동, 2023년 11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파라아라미드 증설분(7,500톤/년) 가동 등 고성능 소재 증설로 수출 증가 예상

- 2024년 신규 투자분인 효성 탄소섬유, 도레이 탄소섬유/메타아라미드가 2024년 말부터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 이-팔 전쟁 및 산유국 원유 공급 조절 가능성 등에 의한 유가 및 원부자재가 상승을 일정 부분 수출단가에 반영하면서 수출액이 증가하나, 하반기 수출단가는 유가 하락으로 하향 안정화 예상
  - 한류 열풍이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에서 증동 등지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확대로 의류 수출에 긍정적
- (감소 요인) 지정학적 위험,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재로 감소
- 러-우 사태 지속, 이-팔 전쟁 등 불확실성 병존,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 및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의류 수출 감소 불가피
  - 특히 이-팔 전쟁 장기화 시 2023년 유일하게 전년 대비 10% 정도 상승하였던 대중동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차도르직물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화섬사의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한 전통 의류용 화섬제품 수출 감소
  - 수요가 줄어든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로 글로벌 바이어의 수출단가 인하 압력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산업생산 위축으로 산자용 섬유소재의 수출 둔화 전망

〈표 7-8〉 섬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li> <li>·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li> <li>·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국 통화 긴축 및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li> <li>·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둔화</li> <li>· 러-우 사태, 이-팔 전쟁 등 불확실성 상존</li> <li>· 글로벌 산업생산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요 위축</li> <li>·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수출 대체</li> <li>· 수요 위축에 따른 경쟁국 간 글로벌 경쟁 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섬유 수요 부진 불가, 기저효과 및 고성능 섬유 수요 확대에 수출 증가</li> </ul>

□ 내수는 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 소비 둔화 및 국내 생산활동 부진에 따른 섬유소재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

○ 내수는 민간 소비 성장세 둔화, 섬유 및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 전환

- 전년 상반기의 높은 의류 소비 증가에 의한 기저효과로 상반기에는 내수가 감소할 전망이다이나, 하반기 민간 소비 증대로 다소 증가로 전환하겠으나 연간으로는 감소할 전망이다

○ (증가 요인) 하반기 물가 하락 안정화 및 금리 기조 전환 등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내수 증가

- 경기 및 민간 소비 부진으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할인 상품 선호 상승과 중저가 의류 소비가 확대되는 불황형 소비 추세 강화

- 엔저 전인 일본 여행 확대 및 해외여행 증가, 테니스·등산 등 야외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소비 증가 및 기능성 스판덱스 등 의류용 소재의 내수 판매 확대 예상

-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종합쇼핑몰의 지속 성장도 의류의 내수 성장 견인

○ (감소 요인)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이자 부담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낮아져 의류 소비 증가세를 제한하고, 의류용 섬유소재의 내수 부진 심화

- 경기 위축 및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 의류 소비 확대는 수입 의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내 생산 확대에 이어지지 못하면서 의류용 소재의 내수 증가는 다소 제한적

- 국내 제조업의 생산 둔화에 따른 산자용 소재 수요 부진

〈표 7-9〉 섬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li> <li>· 온·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li> <li>·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li> <li>·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기 둔화, 금리 상승,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li> <li>· 수요산업의 생산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및 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섬유 내수 소폭 감소</li> </ul>

## □ 생산은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및 국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

- 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감소세 지속
- (증가 요인) 디지털 전환 강화, 친환경 트렌드 대응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고기능성 섬유소재 생산 확대 등
  - 국내외 수요산업의 첨단화에 따른 국산 섬유소재의 고기능·성능 제품의 투자 및 생산 확대
    - 고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투자 확대(2021~2024년 매년 1개 라인씩 증설)로 생산 증가 (2014년 2,000톤 → 2023년 9,000톤 → 2024년 1만 1,500톤)
    - 파라아라미드 수요 증가에 대응한 투자 확대 및 생산 증가(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 말 7,500톤 → 1만 5,000톤, 태광산업: 2024년 말 1,500톤 → 5,000톤)로 2024년에도 생산 증가
    - 도레이첨단소재의 탄소섬유, 메타아라미드 투자분의 연말 생산 증가
  - 반면 레귤러 제품의 생산은 감소하는 한편, 친환경(리사이클, 생분해소재 등) 소재의 생산은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확대 추세
    - SK, 롯데 등 유화 기업의 Chemical Recycle 투자로 2024년 말부터 의류 리사이클 가능 시, 화섬사의 리사이클 섬유 생산도 증가 예상
  - 스판덱스, 냉감기능성 소재 등 고기능성 소재 및 의류 수요 확대 대응 생산 증가 예상
- (감소 요인) 세계 경기 둔화 및 범용제품 중심의 대내외 경쟁 심화, 생산비 상승 등 수익성 악화 및 재고 증가, 자발적 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 단행 등으로 생산 감소
  -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의류 오더 감소로 생산 감소
  - 염색 및 직물업계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고금리 및 경영 자금 부족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생산 감소가 불가피

- 이-팔 전쟁 장기화 시 대중동 차드로직물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
-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의 해외 생산 확대
  - 면방업계는 전기세 등 유틸리티 비용 증가로 베트남 등지에서의 해외 생산 확대
- 공급망 리스크 등에 대비한 니어쇼오링 지역으로 중남미 해외 생산 확대
  - 한세실업(주): 2024년 방직-편직-염색 등의 수직계열화를 목표로 중남미 투자(2026년 3억 달러)
  - 세아상역(2023년 코스타리카 및 엘살바도르), 영원무역(2023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투자 확대
- 주력 품목인 폴리에스터장섬유의 국내외 과잉경쟁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생산 및 출하 감소
  - 티케이케미칼 PF 사업 중단, 성안합섬 법정관리로 국내 PF 생산의 30% 수준 공급 감소
- 범용제품 중심의 대내외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및 재고 증가 영향으로 2023년 화섬 생산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이후 일부 회복할 전망
  - 2023년 생산 기준 PF 30%, NF 40%, ASF 40% 감소, PSF만 2% 증가
- 한국 카프로의 나일론 원료 공급 중단에 따라 수입 대체 중,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원가경쟁 열세, 경쟁 심화 등으로 일부 감산 중이며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표 7-10〉 섬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li> <li>· 냉감기능성 소재, 스판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증가세 부진 및 내수 감소</li> <li>·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수익성 악화</li> <li>·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li> <li>· 폐업 등 국내 생산 감소</li> <li>· 해외 중저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생산 감소</li> </ul>



□ 수입은 의류 수입 확대로 지속 증가하나 내수 둔화로 증가세는 둔화

- 수입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하나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요 확대로 증가
- (증가 요인) 수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가성비 중시 의류 수요 확대 및 국내 생산이 감소한 PF 일반 사 감소 물량의 수입 대체,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
  -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생산 제품의 수입 확대 지속
  - 경기 및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산으로 고가의 명품보다는 중저가 수입 의류 소비 확대
    -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앱의 한국 내 마케팅 확대 및 사용자 증가로 해외직구 급성장
  - 중국 경쟁사의 규모의 경제 및 최신 설비 투자 등을 통한 저가 양질의 화섬사 수입 증대, 특히 성안합성 생산 중단 이후 POY원사 수입량 지속 증가 전망
- (감소 요인) 내수 부진에 따른 의류 수입 증가세 둔화 및 산자용 소재 수입 위축
  - 경기 둔화,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수입 증가세 둔화
  -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 수요 위축
  - 국산 중간재·가공재의 해외 수요 감소로 섬유 원자재 및 섬유소재(생지) 수입 감소

〈표 7-11〉 섬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생산 제품 역수입 증가</li> <li>·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li> <li>· 중국 중저가 온라인 직구 확대</li> <li>· 국내 공급이 감소한 PF 일반 사 수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 소재 수요 감소</li> <li>·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 수요 위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은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로 증가</li> </ul>

〈표 7-12〉 석유산업의 수급 전망(가격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6,410 (12.0)	7,274 (-9.2)	7,016 (-16.5)	14,290 (-12.9)	7,609 (4.6)	6,892 (-1.8)	14,501 (1.5)
내수	64,020 (2.5)	34,410 (15.3)	30,934 (-9.5)	65,344 (2.1)	33,457 (-2.8)	31,403 (1.5)	64,859 (-0.7)
생산	53,641 (-4.5)	30,084 (14.1)	24,810 (-9.0)	54,894 (2.3)	29,050 (-3.4)	25,090 (1.1)	54,140 (-1.4)
수입	26,789 (27.8)	11,601 (0.9)	13,140 (-14.1)	24,741 (-7.6)	12,016 (3.6)	13,205 (0.5)	25,221 (1.9)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3) 생산은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상 석유, 의류, 화학석유의 실적치를 반영한 후 2023년까지 2분기까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GDP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

〈표 7-13〉 석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2,301 (-4.0)	5,616 (-13.2)	5,270 (-9.6)	10,886 (-11.5)	5,750 (2.4)	5,350 (1.5)	11,100 (2.0)
수입	19,901 (8.8)	8,956 (-3.6)	9,870 (-7.0)	18,826 (-5.4)	9,080 (1.4)	10,250 (3.9)	19,330 (2.7)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4. 시사점

○ 친환경 제품(바이오유래, 생분해, 리사이클 등)의 시장 진입 및 연착륙 지원

- 고품질 원료 확보, 소비자 인식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확대 및 조달 시 가점제 확대를 통한 내수 기반 확대 지원 필요

○ 대러시아 규제(상황허가 품목) 확대 관련 비전시 물자의 수출규제 해제

- 일부 화섬(아라미드단섬유, 폴리에스터단섬유) 및 화섬 직물류의 대러시아 상황허가 제품 지정 및 규제로 수출 애로 → 의류 및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범용제품의 규제 대상 제외 요청

○ 글로벌 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소재산업 기반 유지 전략 추진

- 국내 섬유 스트림 간 협력 및 균형 있는 상생 노력 필요
- 폴리에스터장섬유 생산 감소로 인한 수요업체 수급 애로 문제 인식 및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방안 마련
- 수입을 통해 단기적인 공급 문제는 해결 가능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등이 가격, 수급 결정권을 갖게 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국내 소재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

○ 경쟁력 우위 품목의 수출 확대 지원 강화

- (홍보·마케팅) 기능성·고부가가치 소재의 수출 진작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 대상의 전시회 참가 지원, 미국·EU·중국 등 시장 현황 모니터링 등
  - KOTRA 무역투자24의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수출시장 정보 제공 강화
- (시제품 제작)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경쟁력 증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및 인증, 기획·컨설팅 지원
  - 섬유소재 해외 인증 수혜기업 모집, 시제품 제작 수혜기업 기획·기술 컨설팅 지원

〈표 7-14〉 섬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되는 기후·환경 규제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대응</li> <li>·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확대 등 수요 창출 지원</li> <li>· 국내 생산 기반 강화</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 제품(바이오유래, 생분해, 리사이클 등)의 시장 진입 및 연착륙 지원</li> <li>· 대러시아 규제(상황허가 품목) 확대 관련 비전시 물자의 수출규제 해제</li> <li>· 글로벌 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소재산업 기반 유지 전략 추진</li> <li>· 경쟁력 우위 품목의 수출 확대 지원 강화</li> <li>· 미래 고부가 산업용 섬유의 국내 생산 확대(증산)를 위해 외국인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무관세) 적용</li> </ul>

- (수출애로 해소) 추후 수출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취합, FTA 활용 교육 및 무역 컨설팅 등 지원

○ (수입설비에 대한 무관세 혜택) 미래 고부가 산업용 섬유의 국내 생산 확대(증산)를 위해 외국산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무관세) 적용

- 탄소섬유 필수 생산설비인 탄화로(기존 6.4%), 탄소섬유 와인더(4.0%)의 할당관세(0%) 연장 및 결정화기(7.2%), 사이징제(5.2%) 등 신규 지원 필요

## 제8장 정보통신기기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수출은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 감소

- 2023년 수출은 스마트폰 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 스마트폰 및 SSD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0.6%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와 미·중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 사태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세계 시장 수요가 감소
-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금융 불안 등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투자 축소와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주력 품목인 SSD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약 47% 감소 추정
  - 세계 PC 시장은 보급률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요가 크게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컴퓨터 부품 수출과 프린터 및 모니터 수출도 감소
- 통신기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14.5% 감소한 것으로 추정
  - 프리미엄폰 수출이 양호했고 스마트폰 부품 수출이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2023년 1~9월 74%)했지만, 스마트폰 수출은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과 해외 생산 등의 영향으로 30% 이상 감소 추정

#### □ 내수는 신제품 교체 수요에 힘입어 증가

- 2023년 내수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PC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신규 5G 플래그십 스마트폰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산 및 외산 5G 프리미엄폰, 폴더블폰 수요 증가로 소폭 성장한 것으로 추정
  - 국내 PC 시장은 프리미엄 노트북, 게이밍 PC 수요 그리고 공공 PC 시장의 교체 수요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지만 기업용 및 교육용 PC 시장이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

#### □ 생산은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

- 2023년 생산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SSD 및 스마트폰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스마트폰·PC의 해외 생산 비중이 매우 높은(97% 이상) 가운데, 수요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재고 조정, 수출 부진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감소
- 수출 호조로 스마트폰 부품 생산이 증가했으나 스마트폰 수출 부진과 중국 ODM 위탁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스마트폰 생산 물량이 축소된 것으로 판단
  - 컴퓨터·주변기기 생산은 PC 및 태블릿 등 IT기기 수요 둔화와 데이터센터 투자 축소 등의 영향으로 SSD를 중심으로 감소

#### □ 수입은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감소

- 2023년 수입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심리가 저하되면서 스마트폰, PC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 추정
  - 완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용 부품 수입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무선교환기 및 증계기 수입도 국내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감소
  - SSD 수입이 전년 수입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비교적 양호했으나, 국내 PC 시장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부진하면서 수입 수요도 감소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세계 정보통신기기 시장은 경기 둔화의 요인이 상존하나 전반적으로 ICT 수요가 회복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세계 SSD 시장은 PC 수요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가 회복되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초거대 AI(생성형 AI) 확산 등에 따른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소비자용 SSD 신제품으로의 교체 수요 증가, 그리고 SSD 단가 상승 등에 기인
    - 인텔의 5세대 CPU(제온 프로세스)가 2023년 말에 출시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서버 및 PC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가트너(2023. 7)는 2023년 세계 SSD 시장(매출액 기준)은 전년 대비 37.2% 감소하고 2024년에는 85.1% 성장(출하량은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PC 시장은 2024년에 증가세로 전환이 전망되는데, 이는 재고가 안정되고 신제품 교체 수요 주기 도래, 윈도 11 교체 수요(2025년 10월경 윈도 10 지원 종료) 등에 기인
    - 2024년 PC 시장은 교체 주기가 도래할 전망이다 가운데 AI 지원 PC 수요가 시장 성장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IDC(2023. 8)는 2023년 세계 PC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7% 감소하지만,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가트너(2023. 9)는 세계 PC 출하량이 2023년 13.8% 감소, 2024년 4.9% 성장세로 전망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증저가 스마트폰 수요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폰 수요가 지속되면서 2024년에는 성장으로 전환될 전망

〈표 8-1〉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러-우 사태, 이스라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잠재	☂
· 프리미엄 제품(시폰, 폴더블폰 등) 중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 개선 전망	☀
· 세계 PC 수요 개선(AI PC, 기업용·교육용 PC, 게임용 PC 교체 수요 등) 전망	☀
· 초거대 AI 수요 급증 등으로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회복 및 AI 서버 시장 성장	☀☀
· 소비자용 SSD 수요(거시여건 개선, PC 재고량 개선 등) 회복	☀☀
·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지속 가능성 상존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가트너(2023. 9)는 2023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9.4% 감소하지만, 2024년에는 약 5%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세계 경기 침체 지속, 이-팔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변수이지만 2024년 주요 수출시장은 정보통신기기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중국 시장은 보급형 및 고급형 신규 스마트폰과 PC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세계 폴더블폰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화웨이, 비보, 모토로라 등 다수의 로컬기업이 중국향 폴더블폰을 출시한 상황이며 2024년에는 보급형 폴더블폰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카운터포인트 리서치(2023. 9)에 의하면 2023년 2분기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비 10% 증가했으며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의 58.6%를 차지
  - 2024년에 애플 스마트폰 협력사인 LG이노텍의 대중국 카메라모듈 수출 증가세가 예상
    - 애플 스마트폰에 처음 적용된 LG이노텍의 폴디드줌 초도 생산 물량의 차질(품질 문제)이 해소되면서 2023년 4분기부터 대중국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미국과 유럽 시장은 프리미엄폰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가 회복되면서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8-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35.8	☹☹	☼	· 중저가 및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PC 시장 수요 개선 · 보급형을 중심으로 폴더블폰 수요 급증 전망 · 애플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국내 카메라모듈 수요에 긍정적 영향 전망 ·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 계획으로 중국 내 경쟁 심화 전망
미국	18.6	☹☹	☼☼	· 프리미엄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수요 증가 전망 · 빅테크 기업 투자 회복으로 소비자·기업용 SSD 시장 성장
EU	13.5	☹☹	☼	·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부진했던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될 전망 ·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주력 시장으로 한·중 경쟁 심화 예상 · 서버 재고 안정화 등으로 하반기 이후 기업용 SSD 수요 증가 전망
베트남	11.3	☹☹	☼	·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개선되면서 현지 생산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고 부품 수요 증가 전망
기타	20.9	☹	☼	· 전반적으로 수요(스마트폰·PC 등)가 개선될 전망
합계	100.0	☹☹	☼☼	· 초거대 AI 수요 급증 등으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가 회복되면서 SSD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세계 스마트폰 수요 증가 전망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1~9월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유럽 스마트폰 시장은 2023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감소했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할 전망이나 2024년에는 프리미엄 신제품 교체 수요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세 전환이 예상

### □ 해외 생산

-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개선되면서 2024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국내 스마트폰 업체의 해외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생산 거점의 가동률 상승으로 해외 생산국으로의 부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국내 스마트폰 기업은 베트남 외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인도에서도 플래그십폰 초도 생산을 시작
- 국내 스마트폰 기업은 중국에서 자체 생산 공장을 철수한 상황이지만, 중저가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 업체를 통해 ODM 생산 중

〈표 8-3〉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베트남	☹	☼
인도	☺	☼
인도네시아	☺	☼
브라질	☹	☼
중국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삼성전자 중저가폰의 중국 ODM 생산 비중은 2019년 약 7%에서 현재 3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

□ 제품단가 변화

-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저가 제품보다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스마트폰, 휴대용 PC 등 기업들의 제품 고급화로 제품가격이 상승 추세
- SSD 단가는 제조사들의 감산 및 수요분야(PC, 태블릿 등)의 재고 조정 등이 마무리되면서 2024년에는 회복될 전망
- 가트너(2023. 9)에 의하면, SSD 평균 단가는 2023년 56.5달러로 전년 대비 37.2% 하락하는 반면 2024년에는 약 93.3달러로 64.9% 상승할 것으로 예측

〈표 8-4〉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프리미엄 제품 및 고급형 부품 수요 증가(제품 고급화)	☼
· 재고 안정화 및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SSD 단가 상승	☼
· 보급형 스마트폰(폴더블폰) 시장 확대 및 제품 경쟁 심화로 제품가격 하락 영향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국내외 IC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신제품 출시효과 등이 작용하면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24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상·하반기 신규 국산 및 외산 스마트폰 특히, AI 및 카메라 기능이 강화된 플래그십폰과 폴더블폰으로의 교체 수요에 힘입어 성장할 전망
  - 2023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출하량 기준 전년 대비 12% 감소하고, 2024년에는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가트너, 2023. 9)
- 2024년 국내 PC 시장은 기업용·교육용 PC 수요가 회복되면서 2023년의 감소세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국내 PC 시장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소비자 및 기업 수요가 감소하면서 2023년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1% 감소하나, 2024년에는 0.5% 감소가 예상(가트너, 2023. 9)
  - 국내 데스크톱 시장은 2024년 출하량 기준 8.4% 감소하나 노트북PC는 5.1% 증가 전망
-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투자, 디지털 전환 투자가 회복되면서 국내 수요에 소폭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표 8-5〉 정보통신기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 프리미엄 제품 가격 및 통신비 부담	↑
· 스마트폰 신제품 중심의 교체 수요 증가	☆☆
·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증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2023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동기비 약 8% 감소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출하량 기준 약 2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애플(16%), 샤오미, 오포, 비보 등의 순

- 애플은 2023년 3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43%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으며, 부진했던 중국의 화웨이와 오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시장경쟁 심화가 예고
- 세계 SSD 시장에서 최근 수요 감소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했지만 국내 업체들이 신제품 역량을 강화하면서 높은 경쟁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도 높은 편
- 세계 기업용 SSD 시장점유율(2023. 2분기, 트렌드포스): 삼성 35.2%, SK그룹(SK하이닉스, 솔리다임) 24.9%, 마이크론 14.3%, 키옥시아 13.6%, WDC 12% 등의 순
- 삼성전자는 2023년 9월에 소비자용 SSD 신제품(990 PRO)을 출시

〈표 8-6〉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수요 회복으로 해외 생산 공장 가동률 상승 전망	☆☆
· 베트남 외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글로벌 공급 역량 안정화	☆
· 기업용 및 소비자용 SSD 신제품을 출시하며 공급 역량을 강화	☆
·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 물량 축소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정보통신기기산업의 2024년 국내 설비투자는 신규 스마트폰(AI폰, 폴더블폰 등) 및 핵심부품 개발 투자가 지속되면서 증가할 전망
- 그러나 국내 스마트폰 및 PC 산업은 해외 생산 구조로서 국내 설비투자 증가폭은 제한적인 상황

〈표 8-7〉 정보통신기기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연구개발,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투자 수요 특성	· 설비효율 증대, 유지보수 · 신제품 개발 및 혁신을 위한 R&D 투자			
요인	·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스마트폰, PC 등)은 해외 생산 구조로서, 국내 설비투자 증가폭은 제한적 전망 · 수출이 개선되면서 신제품 수요 대응 설비투자가 소폭 확대 전망 · 신제품 및 부품(AI폰, 폴더블폰, SSD, 카메라모듈 등) 개발 및 투자 지속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교체, 유지보수 등.

### 3. 2024년 전망

#### □ 수출은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증가세 전환

- 2024년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SSD,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12.7% 증가할 전망
  - 수출 주력품목인 SSD 수요 증가 추세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수출은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반면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여부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및 PC 시장 포화와 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 추세 등은 국내 수출 확대를 제약할 가능성이 상존
-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챗GPT의 생성형 AI 수요 확산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및 서버 투자가 회복되면서 SSD를 중심으로 2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요 감소에 따른 SSD 기업들의 감산과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SSD 단가가 상승하고 수요 분야인 PC, 태블릿, 서버 등의 수요가 회복될 전망
    - 세계 경기 침체 영향 확대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 가능성은 변수 요인
  - 세계 PC 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낮은 상황이지만, 2024년 세계 PC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수출 증가에 소폭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통신기기 수출은 신제품 출시 효과 특히 프리미엄폰(AI 지원 폰, 폴더블폰 등) 교체 수요와 주요 부품 수출 증가 그리고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약 6.7% 증가 예상

〈표 8-8〉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SSD 수요 개선(AI 서버 수요 등)</li> <li>· 신제품(AI 기능, 카메라 강화 등) 수요 증가</li> <li>· SSD 단가 상승</li> <li>· 폴더블폰(고급형·보급형) 시장 성장</li> <li>· 2023년 부진의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저하</li> <li>· 해외 생산(위탁생산) 확대</li> <li>· 스마트폰 교체주기 연장(경기 침체, 제품 상향 평준화), 중고폰 시장 성장</li> <li>· 스마트폰 및 PC 시장 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효과와 함께 SSD 단가 상승 및 수요가 개선되면서 증가 전망</li> </ul>

- 세계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주요 부품의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

#### □ 내수는 신제품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증가

- 2024년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출시 예정인 국산·외산 스마트폰 및 노트북PC 신제품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및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SSD 수요가 증가하고 2024년 출시 예정인 AI 지원 스마트폰 및 PC도 내수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PC 시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고급형·게임용 노트북PC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용·교육용 PC 수요 등에 힘입어 회복될 것으로 예상
  - 국내 PC 시장도 교체주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윈도 11 및 차세대 CPU (2023년 12월 출시 예정) 업그레이드 수요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국산·외산의 신규 플래그십폰 및 폴더블폰으로의 교체 수요 증가,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반면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5G폰 보급률 확대, 제품의 상향 평준화 및 제품혁신 부재에 따른 교체주기 연장은 내수 확대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표 8-9〉 정보통신기기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스마트폰 교체 수요 증가</li> <li>· 기업용·교육용·게임용 PC 교체 수요</li> <li>· 기업의 디지털 전환(서버 등) 투자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li> <li>· 국내 PC·스마트폰 시장 포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위축 요인이 상존하나, 신제품 수요 및 기업 투자 회복에 힘입어 증가 전망</li> </ul>

#### □ 생산은 수출 증가와 내수 확대로 증가 전환

- 2024년 생산은 수출과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7.2% 증가로 전환 전망
  -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주요 제품의 해외 생산 및 중국 위탁생산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통신기기 생산은 국내 기업의 신규 플래그십폰(폴더블폰 등), 보급형폰 출시와 함께 카메라모듈, 힌지 등 핵심부품의 수출 수요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
  - 수요 부진으로 누적된 재고가 조정되고 신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반면 국내외 경기 침체 지속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컴퓨터·주변기기 생산은 국내외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SSD 수출 확대에 힘입으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노트북, 태블릿PC 수요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외 생산 비중이 매우 높아 국내 생산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표 8-10〉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 수출 및 내수 증가 · 신제품 및 부품 수요 증가	· 완제품 해외 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확대	· 신제품 수요 및 수출 증가로 생산 확대 전망

### □ 수입은 증가세 전환

- 2024년 수입은 외산 신규 스마트폰 및 노트북PC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2023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외산 신규 스마트폰과 국내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서버 투자 회복으로 SSD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및 노트북 등 해외 생산 국내 제품의 역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국내 PC 시장이 포화상태이며,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표 8-11〉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 외산 신제품 수요 증가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 저하 · 제품가격 상승	· 경기 침체 영향이 있으나, 신제품 교체 수요 증가 및 기저효과로 증가 전망

〈표 8-12〉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48,492 (26.4)	14,753 (-36.6)	17,000 (-32.6)	31,753 (-34.5)	16,615 (12.6)	18,965 (11.6)	35,580 (12.1)
내수	47,284 (-6.3)	27,266 (11.6)	24,292 (6.3)	51,558 (9.0)	28,142 (3.2)	26,194 (7.8)	54,336 (5.4)
생산	50,626 (-1.9)	23,696 (-13.5)	23,083 (-0.6)	46,779 (-7.6)	24,766 (4.5)	25,394 (10.0)	50,160 (7.2)
수입	45,150 (21.3)	18,323 (-9.8)	18,208 (-26.7)	36,531 (-19.1)	19,991 (9.1)	19,765 (8.6)	39,756 (8.8)

자료: 수출입은 KITA 및 ITSTAT 무역통계(HS 기준), 생산은 통계청 참고, 2023년 하반기 이후는 산업연구원 전망.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8-13〉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34,866 (3.9)	11,389 (-39.5)	12,791 (-20.3)	24,180 (-30.6)	12,556 (10.2)	14,692 (14.9)	27,248 (12.7)
수입	32,464 (-0.3)	14,146 (-13.8)	13,673 (-14.8)	27,819 (-14.3)	15,107 (6.8)	15,339 (12.2)	30,446 (9.4)

자료: 수출입은 KITA 및 ITSTAT 무역통계(HS 기준), 생산은 통계청 참고, 2023년 하반기 이후는 산업연구원 전망.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4. 시사점

### ○ 스마트폰 내수 진작 및 통신장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제도·규제(통신요금, 유통·마케팅 등) 개선 검토를 통해 스마트폰 내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고도화 투자 등을 촉진
- 5G 오픈랜, 인빌딩 및 농어촌 지역 등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5G 기반의 응용 서비스 활성화 지원(세제 혜택,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통신기기 내수를 촉진



- 주요 수출시장의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스마트폰 수출 확대를 지원
  - 일례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전관리 강화 차원으로 스마트폰 내장 배터리를 포함한 리튬이온 배터리 대상 중국의 무인증(CCC) 적용 발표(2023. 5), 중국 정부의 자국 공무원에게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 명령(2023. 9) 등은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유망 핵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 AI·데이터, 5G 기반의 신제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확대
  - 해외 생산 체계 확립으로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핵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확보 및 수출처 다변화 등 시장 개척(마케팅, 해외 인증 등) 지원
- 유망 수출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역량 강화 지원
  - 플렉시블폰, 5G 통신장비, SSD 등 유망 제품·부품의 경쟁우위 유지 및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 강화
  - 대·중소기업 및 기업 간 협력 활성화, M&A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부품과 장비의 글로벌 역량 및 GVC 참여 역량을 강화
-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 클라우드 투자 등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 인공지능·데이터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 제품 혁신 등 디지털 전환 추진을 지원(컨설팅, 자금, 인프라 지원 등)

〈표 8-14〉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내수 진작 및 통신장비 시장·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li> <li>·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첨단 부품(플렉시블폰용 부품 등) 경쟁력 강화 지원</li> <li>· 정보통신기기산업 생태계 및 미래 성장 기반 강화</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도·규제(통신요금, 유통·마케팅 등) 개선으로 스마트폰·통신장비 수요·투자 촉진</li> <li>· 신제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위한 실증 지원체계,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마케팅, 인증 등) 강화</li> <li>· AI·데이터 활용 여건 확충, 규제 혁신, 테스트베드 조성 등 국내 투자 및 산업 성장 여건 개선</li> </ul>

- 국내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가상화 공장) 구축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

○ 정보통신기기 산업생태계 및 미래 성장 기반 강화

- 해외 생산 확대로 약화되고 있는 국내 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AI·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규제 혁신, 테스트베드 조성 등 국내 투자 및 산업 성장 여건을 개선

## 제9장 가전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수출, 고물가·고금리 및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소 부진

○ 2023년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상반기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 추정

-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고금리 및 고물가,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8.0% 감소

- 2023년 하반기에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 흐름과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프리미엄 냉장고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2위 수출국 일본의 경기 호조로 하반기 수출이 증가

· 2023년 3분기(누적)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비 0.3% 증가, 대일 수출은 3.2% 증가

-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여타 주요 수출국도 하반기 수요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부진과 느린 회복으로 2023년 3분기(누적) 수출은 감소

○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주요 품목인 냉장고와 음향기기는 프리미엄 제품에 힘입어 감소폭이 낮았고, 조명기기는 고효율 제품 수요로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

- TV(영상기기)와 세탁기(가정용 회전기기)는 국내 기업이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이 감소세를 유지

- 2023년 2월 미국 대형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종료되었으나, 2019~2022년 기간 국내 기업의 미국 세탁기 공장 신설 및 증설이 완료되어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지속<sup>3)</sup>
- LG전자, 2023년 6월부터 베트남에서 일반형 냉장고 완제품 처음으로 생산 시작

〈표 9-1〉 가전산업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3분기 (누적)	전년동기비 증가율	비중
영상기기	1,072	801	630	768	532	-8.1	8.8
음향기기	998	913	1,005	1,091	826	-0.5	13.7
냉장고	1,778	2,209	3,181	2,566	2,023	-1.1	33.5
가정용 회전기기	937	1,017	1,455	1,256	911	-8.1	15.1
난방 및 전열기기	491	519	695	681	472	-13.2	7.8
조명기기	1,262	1,125	1,219	1,164	912	4.0	15.1
기타 가정용 전자	404	405	484	503	366	-3.8	6.1
총계	6,942	6,989	8,669	8,028	6,041	-3.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 내수, 경기 둔화 및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부진

○ 2023년 내수는 경기 둔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부동산 시장 위축 등 가전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4.3% 감소 추정

- (상반기) 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 2022년 상반기 기저효과 영향으로 내수가 큰 폭으로 감소

• 시장조사기관 GfK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국내 가전 시장은 세탁기, TV, 냉장고 등의 대형가전 판매 감소가 주요했으며,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sup>4)</sup>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 추진으로 내수 감소세 둔화

• 상반기 내수는 전년동기비 7.9% 감소, 하반기는 0.3% 감소(추정치)

3) 세이프가드 조치의 효과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기간 미국 대형 세탁기 생산 및 시장점유율 증가분 대부분을 신규 진입자인 LG와 삼성(미국 생산법인)이 차지함.

4) 전자신문(2023), "GfK '상반기 국내 가전 시장 14% 하락' ... IT기기 수요 침체 돌아서", 8월 31일.

#### □ 생산,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2023년 생산은 국내외 수요 부진, 상반기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 추정
  - (상반기)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수요 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수출과 내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생산도 감소
  -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수요가 증가세를 보였고 내수 감소세도 둔화하면서 생산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상반기 부진의 영향으로 연간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
    - 상반기 생산은 전년동기비 8.0% 감소, 하반기는 4.1% 증가(추정치)
- 연초 재고 누적과 판매 부진으로 상반기 생산이 더욱 부진했으나, 하반기에는 내수용을 중심으로 국내 생산이 증가하여 생산에 긍정적 영향
  - 국내 기업의 주요한 해외 생산지역인 베트남, 중국 등의 경기 부진이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 □ 수입, 내수 위축과 고환율·고유가로 감소세 지속

- 2023년 수입은 상반기 내수가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6.3% 감소 추정
  - 고환율 및 고유가로 수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중국, 베트남 등에서의 수입이 국내 생산품(또는 재고)으로 일부 대체되어 수입 감소폭이 더욱 증가
    - 2023년 3분기(누적)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12.7%, 대베트남 수입은 9.0% 감소
  -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생산이 증가로 전환했으나, 높은 물가로 인해 해외 고가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생산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수입은 하반기에도 감소 지속
    - 2023년 3분기(누적) 주요 선진국 수입증감률(%): 미국 -3.7, 독일 -14.3, 일본 -16.9, 이탈리아 -17.6, 프랑스 -18.6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세계 시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수요 회복세가 점차 본격화되고, 신흥권 경제성장 호조가 수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고금리와 주택 시장 부진(거래량 감소)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소비심리 회복 및 전년 기저효과와의 영향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세계 수요는 점차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2024년 세계 가전 시장 전망(전년비 증감률, %): 3.9(Statista), 9.2(Gartner)<sup>5)</sup>
  - 2024년 선진권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나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기대되며, 신흥권 경기 회복이 수요 회복에 긍정적 요인
  - Matter(매터), HCA(Home Connectivity Alliance)와 같은 스마트홈 표준이 확립되면서 스마트가전 시장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EU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EU 에코디자인 규정(2022. 3월), 미국 에너지부(DOE) 에너지효율 규제 예고(2023. 2월)
    -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는 고효율·스마트 제품에 대한 정부 지원 인센티브를 촉발하는 요인이며, 프리미엄 제품 수요와 가격에 긍정적 영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고유가·고물가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나 국내 가전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의 증가는 고효율 가전 수요를 촉진하는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도 작용

5) Statista(2023. 9)는 영상음향기기와 생활가전 분야의 세계 매출액 증감률이며, Gartner(2023. 9)는 반도체산업 수요 분야 중 TV와 생활가전 매출 증감률임. Gartner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데, 이는 반도체 사용이 활발한 스마트 제품 또는 서비스에 초점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9-2〉 가전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선진권 중심으로 경제성장률 다소 둔화	⬇
·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의 소비심리 회복과 신흥권 경제성장 호조	⬆
· 국내 기업이 선도하는 프리미엄(친환경·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	⬆
· 우-러, 이-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지속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은 프리미엄 제품 수요를 중심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양호한 경제성장 및 달러 강세 영향으로 2024년 수요도 증가할 전망
  - 수요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대미 수출액 비중은 2023년 50%를 넘어섰고(2022년 수출 비중은 48%), 2024년에도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할 전망
  -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고효율 제품 선호로 국내 기업이 경쟁우위를 보유한 프리미엄 냉장고 제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달러 강세로 미국 내 생산이 풍부한 월풀(Whirlpool), GE Appliances(중국 Haier 자회사) 등에 비해 국내 생산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유리
  -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3년 2월 생활가전제품 에너지 규제 강화를 예고했고, 이에 따라 고효율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다만, 규제 발효는 2027년 이후로 현재 직접적 영향은 적음)
- 일본은 경제성장률 둔화 및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2023년 수요가 감소할 전망
- 중국은 2023년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내수진작책으로 2024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다만 자국 브랜드 중심의 내수 활성화로 우리 기업의 수출 수요 증가는 제한적
  - 2023년 7월 중국 상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 등 13개 부처가 가전(스마트홈), 가구, 인테리어 등의 소비진작책을 포함하는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통지’ 발표
- 베트남은 경기 회복 및 전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4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멕시코는 경기 회복 및 미국 수요 호조로 2024년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인도의 2023년 수출 비중은 2%대로 낮은 수준이나, 양호한 경제성장과 가전 소비 증가 추세로 국내 기업의 수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인도 생활가전 시장은 2023년 550억 달러로 중국(1,550), 미국(600)에 이은 3위이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6.8% 성장하여 중국·미국과 격차가 감소할 전망(Statista)

〈표 9-3〉 가전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50.7	☁	☁	· 경기 호조, 달러 강세, 프리미엄 제품 수요로 수요는 증가세 지속 · 국내 기업의 미국 공장(세탁기) 생산 증가는 수출 수요에 부정적
일본	6.7	☁	☁	·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환율(엔자)로 소비심리 위축
중국	5.2	☂☂	☁	·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내수지원책과 기저효과로 수요 증가 ·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출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베트남	4.6	☂	☀	· 경기 호조 및 기저효과로 2024년 수요는 긍정적 · 국내 기업의 생활가전 생산 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멕시코	4.2	☂	☀	· 경기 호조 및 미국 수요 증가로 2024년 수요는 긍정적
인도	2.4	☂	☁	· 경기 호조 및 가전 수요 본격화로 세계 시장 내 비중 증가 · 2024년에는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수출 수요 증가 기대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해외 생산

-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수요 둔화로 해외 생산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 비중이 소폭 증가, 이는 수출에 다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국내 기업의 국내 생산 대수와 비중(천 대): 2020년 11,120(8.1%) → 2021년 11,060(8.3%) → 2022년 (9.3%)(후지키메라연구소)<sup>6)</sup>
- 세계 수요 회복세, 국내 기업 해외 공장의 생산 확대로 해외 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요인

6) 국내 주요 기업의 국내 TV, 룬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생산 대수 합계를 기준으로 함.



-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은 인근 신흥국의 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LG전자는 2023년 6월부터 베트남에서 일반형 냉장고 완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는 네팔 TV 조립공장을 2023년 4월 준공
- 동유럽과 중남미는 전년 기저효과 및 인근 지역의 수요 회복으로 생산 증가
- 중국은 코로나19 봉쇄정책 및 경기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최근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의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 내 생산은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주요 가전 생산 대수(천 대): 2020년 14,550 → 2021년 12,650 → 2022년 10,500(후지키메라연구소<sup>7)</sup>)
- 미국은 2024년 수요 회복세 및 국내 기업의 세탁기 공장 증설로 생산 증가세 유지
  - 2022년 9월 LG전자 테네시 공장 증설이 완료, 현지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국내 기업의 북미 세탁기 생산 대수(천 대): 2021년 2,350 → 2022년 2,900(후지키메라연구소)

〈표 9-4〉 가전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동남아(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
유럽(폴란드 등 동유럽)	↑	☁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등)	●	☀
중국	↑↑	●
미국	☀	☀
합계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7) 국내 주요 기업의 중국 내 TV, 룸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생산 대수 합계이며, 이들 품목 중에서는 세탁기가 2022년 590만 대로 가장 큰 비중(56%)을 차지함.

## □ 제품단가 변화

- 스마트·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로 제품단가는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는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높아 단가 상승 요인이 더욱 큰 편
  - TV를 포함한 영상음향기기는 글로벌 경쟁 심화, 서비스·콘텐츠 중심의 수익 확대 추진으로 제품단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
    - 2024년 스마트홈 시장은 전년비 14.5%의 고성장이 전망되어, 전체 가전 시장의 성장률(3.9%)을 크게 상회(Statista)
  - 국내는 대기업 중심의 브랜드 경쟁력 우위와 높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으로 단가 상승 요인이 상대적으로 큼.
    - TV는 2,000달러 이상의 고가 제품 시장에서 국내 기업 매출 점유율이 2022년 67.4%로 경쟁국(일본, 중국 등)을 크게 상회(Omdia)
    - 생활가전은 국내 기업이 매터, HCA 등 스마트홈 표준 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 중이며 스마트·고효율 제품 시장을 선도하면서 미국, 유럽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 확보<sup>8)</sup>
  - 원자재 가격 안정화는 제품단가 하락 요인이나 가격전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품단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표 9-5〉 가전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국내 기업의 높은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
· 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	⚡
· 철, 구리, 레진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8) 미국 J. D. Power의 생활가전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삼성전자, LG전자)가 11종의 생활가전 품목 중 9종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주요 경쟁기업은 미국의 월풀, 키친에이드, GE 등임(자료: J. D. Power(2023. 7. 20), "Brick and Mortar Dominates Home Appliance Sales, J. D. Power Finds").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고금리·고물가,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예상되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4년 수요는 소폭 증가 전망
  - 국내 수요는 경제성장률 회복과 원자재 가격 안정화(공급망 불확실성 감소), 전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국내 GDP 성장률(전년비): 2023년 1.3% (추정) → 2024년 2.0% (전망)
  - 그러나 고금리·고환율로 인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sup>9)</sup> 가전 소비지출 여건 개선은 제한적
    - 2023년 10월 내구재지출전망CSI(한국은행)은 95로 조사되어 여전히 100에 못 미치며,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을 보여 수요 회복이 지연될 우려 존재
- 친환경·고효율·스마트 생활가전 및 OLED TV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 수요와 다양한 신가전 출시는 긍정적 요인

〈표 9-6〉 가전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소비심리 위축(고금리 및 고물가 유지, 부동산 시장 부진)	↑
· 경제성장률 회복세 및 기저효과	☆
· 프리미엄·신가전 제품 수요 증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가전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생산거점이 확립되어 있어 국내 공급능력의 영향이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3. 10. 31)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주택·부동산 매매가격은 2.0% 하락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하반기 하락세가 클 것으로 예측함.

작은 편이며, 국내외 수요 변화와 공급망 비용 상황에 따라 거점별 생산량이 조정되어, 정확한 국내 공급능력 파악이 어려움.

- 국내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주로 생활가전)의 경우는 수요 변화에 따라 생산 품목을 변경하거나 위탁생산을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영상음향기기와 조명기기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해외 공장 또는 해외 위탁 생산에 의존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공급능력이 적고 구체적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
    - 국내 주요 기업의 2022년 TV 국내 생산 비중은 0.2%(후지키메라연구소)
- 코로나19 종식과 베트남을 비롯한 신흥권 경제성장률 회복, 미국 세탁기 공장 증설 완료 등으로 해외 생산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내 대표적 생활가전 중견 그룹 부진이 국내 공급능력에 부정적 영향 요인
-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생활가전 계열사(위니아전자, 위니아 등)는 실적 부진으로 2023년 9~10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정상화가 불투명하며 협력사로 피해가 확대되는 중

〈표 9-7〉 가전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베트남 등 신흥권 경제 회복과 미국 세탁기 공장 증설로 해외 생산 확대	⬆
· 국내 생활가전 중견그룹의 사업 부진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2024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가 지속되면서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 대기업의 제품 생산 및 신규 투자는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신규 투자 요인이 부재하여 의미 있는 설비투자 증가 요인이 부재
  - 2024년에는 수요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나 고물가와 해외 생산 증가, 국내 중견 그룹사의 실적 부진으로 설비투자 감소 요인이 우세

〈표 9-8〉 가전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투자 수요 특성	· 제품 고급화, 효율화, 스마트화 및 신제품 수요 대응 · 설비효율 증대로 생산성 개선			
요인	· 2023년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었고, 하반기 수출 및 생산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수요 여건으로 설비투자는 감소세 유지 · 2024년에는 국내의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국내 생산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고금리, 고환율 기조와 불확실한 대외 여건(러-우, 이-팔 전쟁 등)으로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 생활가전 중건그룹의 부진이 설비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생산성 향상 및 신제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이 주요한 설비투자 수요이며, 내수를 제외하면 제품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어 국내 신규 설비투자 유인이 거의 없음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 업종별 특징적인 여건 변화 및 주요 이슈

○ 글로벌 가전사와 빅테크 기업은 스마트홈 시장 선점을 위한 플랫폼 확보 및 제품 간 연결성 강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확장 전략을 추진

- 2023년부터 글로벌 민간 표준단체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의 스마트홈 통신 표준 '매터(Matter)' 인증 제품이 출시되고, 글로벌 가전기기 연결 협의체 HCA(Home Connectivity Alliance)를 통한 제품 연결성 강화가 진행

- 가전기업뿐 아니라 아마존, 구글, 애플, 알리바바, 바이두 등 글로벌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미국·중국의 대기업 또는 빅테크의 시장 진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향후 가전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

- 국내 대기업이 글로벌 표준 확립과 플랫폼 경쟁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외 플랫폼과 표준에 기반한 제품경쟁력 확보가 요청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수출 기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국내는 대형가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규모와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질적 경쟁력과 수익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경쟁전략 모색이 필요

- 중국 브랜드의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국내 기업은 제품 디자인, 스마트홈 서비스 및

플랫폼,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외 생산과 공장 스마트화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추진

- 중국 가전 브랜드와 국내의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sup>10)</sup>, 중국 기업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스마트화, 해외 생산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
- 2022년 글로벌 기업의 생활가전 매출(조 원): 중국 메이디 66.6, 중국 하이얼 46.9, 중국 그리전기 36.4, 한국 LG전자 29.9, 미국 월플 25.2 순
- 한국과 중국의 세계 TV 매출 점유율 추이(% , 금액 기준): 한국 2021년 48.0 → 2022년 46.4, 중국 2021년 28.6 → 2022년 32.7

### 3. 2024년 전망

□ 수출, 세계 수요 회복세와 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

○ 2024년 수출은 주요국 소비심리 회복과 신흥권의 경제성장 호조, 친환경·고효율 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 전망

- 2023년 하반기부터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이며, 세계 수요 회복과 프리미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우위를 토대로 2024년 수출은 증가로 전환

· 수출액 증가율(%): 2022년 -7.4 → 2023년 -1.2(추정) → 2024년 2.3(전망)

- 그러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함에 따라 수요 증가가 제한적이고 해외 생산 증가로 국내 생산도 소폭 감소하면서 수출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측

○ (증가 요인) 세계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갖춘 고효율·스마트 제품의 수요가 확대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23년보다 다소 둔화하나 미국의 프리미엄 제품

10) 2023년 9월 발표된 미국소비자만족도지수(ACSI)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가전 부문은 한국 LG전자, 중국 하이얼, 미국 월플이 공동 1위(82점)로 평가되었고, TV 부문은 LG전자가 83점으로 1위이나 중국 하이센스, 한국 삼성전자, 중국 TCL이 82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격차가 축소됨.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흥권 경기 호조 및 기저효과로 세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갖춘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

- 미국, EU의 에너지효율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스마트홈 확산은 제품단가를 상승시켜 수출에 긍정적 영향
- (감소 요인) 고금리 및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우려가 있으며, 해외 생산 증가 및 중국 브랜드와 경쟁 심화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 회복세가 지연될 우려 존재
- 해외 생산은 국내 생산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수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2024년에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의 경기 호조와 미국 세탁기 생산 증가가 지속되면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망
- 미국, 유럽 등 선진권에서 중국 브랜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에 부정적 요인

〈표 9-9〉 가전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 회복</li> <li>· 베트남 등 신흥권 경제성장률 상승</li> <li>· 국내가 경쟁우위를 확보한 프리미엄 시장의 성장</li> <li>· 친환경, 고효율, 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교체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li> <li>· 2023년 상반기 수요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일본 등 선진권 경제성장률 둔화</li> <li>· 미국 세탁기 공장 증설 및 아세안 경기 호조로 해외 생산 증가</li> <li>· 미국, 유럽 등 선진권에서 중국 브랜드와 경쟁 심화(중국의 점유율 증가)</li> <li>·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이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권 경제성장 둔화와 해외 생산 증가로 수출 증가폭은 제한적이나, 세계 수요 회복과 고효율·스마트 제품 보급 확대로 수출은 증가 요인이 다소 우세</li> </ul>

□ 내수, 경제성장률 회복과 고효율 제품 수요로 소폭 증가

- 2024년 내수는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시장 부진에도 경제성장률 상승과 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
- (증가 요인) 국내 경제성장률 회복,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내수 감소세 완화, 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로 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 증가와 의류관리기, 음식물처리기, 이동식 TV, 신발관리기 등 다양한 신가전 출시도 내수에 긍정적 요인

○ (감소 요인)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부진이 예측되면서 내수 증가를 제한

-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규모도 가전 소비지출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2023년 3분기 1,875조 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 3,000억 원 증가(2021년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 잔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표 9-10〉 가전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제성장률과 소비심리 회복</li> <li>· 친환경·고효율 제품과 스마트홈 시장 확산으로 교체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li> <li>· 다양한 신가전 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수요 회복 지연</li> <li>·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물가 및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소비 여건 개선은 제한적이거나, 경제성장률 회복과 고효율·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내수는 증가 요인이 다소 우세</li> </ul>

#### □ 생산, 해외 생산 확대와 수입 증가로 소폭 감소

○ 2024년 생산은 수출·내수의 증가 전환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유인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7% 감소 전망

○ (증가 요인) 국내외 수요 증가, 국내 프리미엄 제품 생산 증가 및 설비 효율화가 생산에 긍정적 요인

- 2023년 수요 부진에도 양호한 수출 실적을 보인 조명기기와 프리미엄 냉장고 등의 생산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감소 요인) 내수 회복의 많은 부분을 수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중견 그룹사 부진 및 설비투자 감소가 생산에 부정적 요인

- 신흥권 경기 호조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해외 생산 증가, 해외 브랜드 수입의 증가가 국내 생산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 중견그룹(대우위니아)의 생활가전 계열사 부진이 생산에 부정적 영향



〈표 9-11〉 가전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증가, 내수 회복</li> <li>·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증가에 따른 제품 단가 상승</li> <li>· 설비 효율화 및 스마트화에 따른 생산성 및 생산능력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회복의 많은 부분을 수입이 차지</li> <li>· 원자재, 물류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수요 회복으로 해외 생산 증가 활발</li> <li>· 국내 설비투자 감소세</li> <li>· 국내 중견 그룹사 실적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과 내수가 증가로 전환하나, 해외 생산 유인이 상대적으로 커 국내 생산은 감소 요인이 우세</li> </ul>

□ 수입, 내수 회복과 해외 브랜드 수요 확대에 증가

○ 2024년 수입은 내수 회복과 고가의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역수입 확대에 전년 대비 5.0% 증가 전망

○ (증가 요인) 내수 회복,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국내 브랜드 제품의 역수입 증가 등 수입 증가 요인이 우세

-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 및 프리미엄 시장 진입, 미국 빅테크 등 해외 플랫폼사의 스마트 홈 시장 진입 확대에 내수에서 해외 브랜드 점유율이 증가할 수 있음.

- 국내 중견기업(위니아전자, 위니아 등)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내수에서 해외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

○ (감소 요인) 국내 브랜드 경쟁우위, 고환율 지속으로 수입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내수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브랜드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 확산으로 국내 브랜드의 내수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표 9-12〉 가전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회복</li> <li>·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li> <li>· 국내 브랜드 제품의 역수입 증가</li> <li>· 중국 제품의 품질 향상, 미국 빅테크의 국내 스마트홈 시장 진입</li> <li>· 국내 중견그룹 부진에 따른 해외 중저가 제품의 국내 시장 진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브랜드 경쟁우위 지속</li> <li>· 국내 기업의 자체 스마트홈 플랫폼 확산에 따른 국내 브랜드의 내수시장 지배력 강화</li> <li>· 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수입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브랜드가 경쟁우위를 유지하나 내수 회복과 해외 생산 증가(역수입 증가), 해외 고가 브랜드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 요인이 우세</li> </ul>

〈표 9-13〉 가전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0,6830 (7.7)	5,186 (-3.7)	5,212 (-1.6)	10,398 (-2.7)	5,350 (3.2)	5,105 (-2.1)	10,455 (0.5)
내수	30,584 (-3.1)	14,670 (-7.9)	14,609 (-0.3)	29,279 (-4.3)	14,778 (0.7)	14,762 (1.1)	29,540 (0.9)
생산	29,862 (-4.3)	14,507 (-8.0)	14,668 (4.1)	29,175 (-2.3)	14,609 (0.7)	14,362 (-2.1)	28,971 (-0.7)
수입	11,405 (10.9)	5,349 (-3.6)	5,153 (-12.1)	10,502 (-7.8)	5,519 (3.2)	5,504 (6.8)	11,023 (5.0)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9-14〉 가전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8,028 (-7.4)	4,003 (-8.0)	3,928 (6.9)	7,931 (-1.2)	4,110 (2.7)	4,004 (1.9)	8,114 (2.3)
수입	8,547 (-5.1)	4,129 (-7.8)	3,883 (-4.5)	8,012 (-6.3)	4,240 (2.7)	4,317 (11.2)	8,557 (6.8)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MTI 82(가정용 전자제품) 기준.

## 4. 시사점

○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에 대응한 핵심부품·제품 개발 지원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EU 에코디자인(2022. 3월), 미국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예고(2023. 2월), EU TV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2023. 3월)

- 에너지효율 규제 및 인증 변화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규제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관련 핵심부품의 효율 향상을 위한 R&D 추진
- 여러 생활가전에 폭넓게 사용되는 열교환기·압축기·모터 등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필요사항을 식별함으로써 전략적 R&D 추진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홈 표준 대응 지원

- 매터, HCA와 같은 스마트홈 표준 확립으로 여러 가전제품을 연동한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 선점 경쟁이 활발
  - 한국 삼성전자·LG전자, 미국 구글·아마존·애플, 중국 샤오미·투야 등은 여러 가전제품을 연동하는 스마트홈 플랫폼 제공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홈 표준 확립으로 인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기회요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함.
  - 스마트홈 플랫폼 활용 역량 강화, 해외 스마트홈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확대 지원 등

○ 스마트가전 및 생성형 AI 중심의 스마트홈 서비스 역량 강화

- 스마트가전 보급 확대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음성인식, 제스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적용이 서비스 고도화 및 편의성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가전 기반 서비스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임.
- 가전제품에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 기능 및 서비스 고도화를 모색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여러 가전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첨단 기술의 제품 적용 방안을 폭넓게 모색해야 함.

○ 최근 국내 생활가전 기업의 실적 부진이 이슈가 된 바 있으며, 친환경 제품의 보급 확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전제품 내수진작책이 요구됨.

- 2023년 9~10월 대우위니아 그룹의 생활가전 주요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표 9-15〉 가전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에 대응한 고효율 제품·핵심부품 개발 지원</li> <li>·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홈 표준 대응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지원</li> <li>· 친환경 제품 보급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절감 및 내수 진작 도모</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향상에 핵심적인 부품과 기술개발 수요를 식별하여 전략적 R&amp;D 도모</li> <li>· 국내외 스마트홈 표준과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외 진출 기회 창출</li> <li>· 스마트가전 서비스 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의 적용 확대</li> <li>· 고효율 가전 및 친환경 냉매 사용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 확대</li> </ul>

최근까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 증가

-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양호한 접수 실적으로 연내 예산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노후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 시 제품가격의 40%까지를 지원, 시행 15일 만에 4,150건 이상의 접수 실적 달성(총예산 300억 원 중 최대 66억 원 소진 규모에 해당)
- 내수 회복 촉진 및 가전제품 친환경화를 목적으로 상업·산업용 제품뿐 아니라 일반 가구 대상의 소비진작책(구매보조금, 세액공제 등) 추진이 필요
- 지원 대상은 에너지소비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제품이 주요하나, 향후 친환경 냉매(HFCs 물질 등)를 사용하는 '탄소중립' 제품까지도 포함이 가능
  - 냉매(HFCs 물질) 소비량 감축 목표를 부과하는 국제협약(키갈리 개정서) 발효에 따라, 친환경 냉매 사용 제품으로 교체 지원 필요성이 제기

# 제10장 반도체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수출, 하반기부터 감소폭 축소

○ 2023년 상반기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부터 감소폭 축소

-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상반기까지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
-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34.7% 감소하였고 하반기는 25.7% 감소하여 연간 실적은 30.2% 감소로 예상
- 반도체 수출 감소는 수요산업 회복 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며, 감소폭이 큰 것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

○ 반도체 수출 감소폭 축소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감산 등 자구책에 의한 결과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수요산업은 여전히 부진

-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상반기에 SK하이닉스가 먼저 감산을 시작하였고 삼성전자도 감산에 동참하였으며 그 효과가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
- 최근 메모리반도체 단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요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우리 수출 회복도 지연

#### □ 내수, 반도체 수요산업 부진으로 감소

- 2023년 내수는 반도체 주요 수요 제품의 수출 감소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 감소폭이 확대
  - 코로나19 이후 PC 등 반도체 수요 제품의 경기 부진과 SSD를 비롯한 컴퓨터 부품에 사용되는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로 내수가 감소
  - 상반기는 수출과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내수는 그에 비해 소폭 감소
  - 하지만 하반기에는 내수 감소폭도 증가

#### □ 생산, 수출과 내수 감소에 따라 감소

-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가 시작되어 상반기 생산도 대폭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감소폭이 축소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경기 부진 영향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결정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수요도 감소하여 생산이 전반적으로 감소
  - 상반기 생산은 35.5% 감소하여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

#### □ 수입, 장기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

- 장기간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감소로 전환
  - 국내에 수입되는 반도체는 저가의 범용제품보다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고가의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반도체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
  - 미·중 기술 무역분쟁 이후 중국에 있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입 증가에 일조
  - 하지만 글로벌 수요 감소 영향으로 국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도체도 감소하였고 장기간 수입 증가세에서 감소로 전환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세계 반도체 수요는 전방산업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장기간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도 대폭 감소하였으나, 전기·전자 제품의 필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반도체 수요도 완만하게 증가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AI를 비롯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수 부품으로 사용되면서 수요 증가
  -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어 소비 회복이 제한적

〈표 10-1〉 반도체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소비 회복	☼
· 글로벌 인플레이션 완화	☼
· AI 서비스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
·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협 지속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반도체 주요 전방산업인 ICT 산업의 수요가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도 개선
  - 중국은 부동산 문제 등 국내 경제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성장성이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수요 변화에 따라 ICT 제품의 생산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0-2〉 반도체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중국	37.6	↑↑	☆	· 반도체 수요 기업의 생산 증가
홍콩	17.0	↑↑	☆☆	·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중계 무역을 위한 수요가 증가
베트남	12.9	↑	☆☆☆	· 전기·전자제품 생산 확대
대만	9.9	↑↑	☆	· PC 부품 등 IT 산업 수요 회복
합계	77.3	↑↑	☆☆	· 장기간의 수요 둔화세가 완화되고 소폭 증가세로 전환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9월까지 누적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국내 기업의 베트남 현지 전자 제품 생산공장에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 □ 해외 생산

-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생산기지의 생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중국 공장의 생산 증가는 제한적
  -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해외 전문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4년도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 공장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첨단제품은 향후 10년간 5% 이상 생산량 확대가 불가능하므로 중국 공장에서의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

〈표 10-3〉 반도체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중국	↑↑	⇨
미국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제품단가 변화

-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안정세로 전환되었고 시스템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단가 인상 전망
- 메모리반도체 재고 과잉이 공급기업의 감산 등 자구책 효과로 안정세로 전환되면서 단가 하락세 완화 및 완만한 상승세 시현
- 특히 PIM(Processing-in-Memory), HBM(High Bandwidth Memory), DDR5 등 고가의 메모리반도체 보급이 늘어나면서 단가 상승을 주도

〈표 10-4〉 반도체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
· PIM, HBM, DDR5 등 고부가가치 수요 증가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2024년에는 국내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이 회복세를 보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 PC를 비롯한 가공 제품의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 국내 수요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

〈표 10-5〉 반도체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PC 등 IT 기기 글로벌 수요 회복	☼
· 국내 ICT 산업 부진	⬆️
· AI,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신산업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진척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AI, IoT,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을 비롯하여 개인 소비자 사용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극적인 수요 증가 동력은 부족

#### □ 공급능력

-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여 생산도 축소되었으나 계획적인 감산으로 공급능력은 메모리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 메모리반도체는 국내 기업이 첨단 기술을 주도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공급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
- 우리 기업이 메모리반도체 첨단공정 및 제품을 주도

〈표 10-6〉 반도체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미세공정 및 적층화 진전	☼
· DDR5, HBM 등 메모리반도체 신제품 보급 확산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설비투자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우리 메모리반도체 기업은 미세화와 적층화를 위한 신규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HBM 등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도 확대
- 우리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
- 파운드리 분야 역시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텔(미), 라피더스(일) 등 신규 시장 진입 기업의 등장에 따라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0-7〉 반도체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신규 설비 도입, 합리화 연구개발			
투자 수요 특성	· 첨단 장비 도입으로 제품 생산능력 향상 및 효율성 제고 · 미세화, 적응화 진전 및 수율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 반도체 경기 회복을 대비한 투자 확대 · 생산능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지속			
요인	· 반도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대규모 투자는 지연 ·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첨단 공정 개발은 경기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규모를 줄이더라도 신규 설비는 지속해서 도입 · 반도체 경기사이클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2023년 하반기에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기 변화에 대비한 투자가 증가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 HBM 등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투자 확대

○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AI 서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채용되는 HBM은 한국 기업이 시장의 90%를 차지

- 챗GPT 공개 이후 일반 대중들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서버가 AI 서버로 대체되기 시작
- AI 서버에 사용되는 고성능·고효율 HBM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이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SK하이닉스(50%), 삼성전자(40%), 마이크론(10%) 순 (2023. 7. 31, 트렌드포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양사 모두 4세대 제품인 HBM4를 양산하며, 투자 확대도 결정하여 2024년에는 올해 생산량의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

## 3. 2024년 전망

### □ 수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기저 현상과 더불어 전기·전자제품의 교체 수명

이 다한 필수 수요 발생으로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

-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으므로 기저 현상으로 인해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우리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증가 요인) DDR5를 비롯하여 AI용 서버에 채용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로 국내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개인용 PC와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사용되는 D램 중 최근 개발된 고부가가치의 DDR5 보급이 확대
- 코로나19 시절에 발생한 전기·전자제품의 가수요로 올해 반도체 수요산업이 부진하였으나 필수 수요제품은 점진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
- AI를 비롯한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발달과 함께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감소 요인)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이 글로벌 소비심리 개선에 악영향을 미쳐 주요 수요산업이 부진

- 글로벌 경기가 점차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수요산업의 부진이 지속

〈표 10-8〉 반도체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판매 증가</li> <li>· 글로벌 데이터센터 교체 시기 도래</li> <li>· 전기 전자 제품의 필수 교체 수요 발생</li> <li>· 시를 비롯한 신산업 및 신서비스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으로 소비심리 회복 둔화</li> <li>· 기존 주요 수요산업인 PC,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 및 최대 반도체 수입국가인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li> <li>·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가수요 영향으로 IT 제품의 교체주기 연장</li> <li>· 대규모 전쟁 동시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수요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아 우리 반도체 수출 회복도 완만하게 진행</li> </ul>

- 세계에서 대규모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도체 수출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

□ 내수, 수출을 위한 수요산업의 개선 영향으로 소폭 증가 전망

- 내수는 재고 감소 영향 및 반도체 수요 수출산업 회복에 따라 소폭 증가세로 전환
  - 국내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최종 반도체 수요도 극적인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
- (증가 요인) 신산업의 발달로 인한 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부진세였던 SSD 등 컴퓨터 부품의 수출이 증가
  -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효과로 반도체 재고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내수 시장인 SSD 등 컴퓨터 부분품의 수요가 증가
- (감소 요인)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어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IT 기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길어지면서 내수가 감소

〈표 10-9〉 반도체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SD 등 컴퓨터 부품용 수요 증가</li> <li>· AI, IoT 등 첨단산업 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소비 심리 개선 지연</li> <li>· IT 기기 교체 주기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의 발달로 인해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출품에 채용되는 수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li> </ul>

□ 생산,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인해 증가

- 주요 수요산업 변화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첨단제품 투자 확대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은 기저효과 및 반도체 수요산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4년 반도체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은 이러한 전망에 대응하면서 첨단제품에 대한 설비투자도 늘리고 있으므로

2024년 생산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증가 요인) 시장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수요산업이 회복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을 확대
  - HBM 등 첨단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생산이 증가
- (감소 요인) 2024년 국내 반도체 생산은 올해 대비 17.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을 제외하면 감소 요인은 없음.
  - 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의 정전, 화재 등 돌발 상황을 제외하면 회복되는 시장에 대응해야 하므로 감소 요인은 특별히 없음.

〈표 10-10〉 반도체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li> <li>·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li> <li>· HBM 등 첨단 제품생산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등 돌발 상황 이외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어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li> </ul>

□ 수입,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수입도 개선

- 국내 반도체 수입 중 수출을 위한 중간재 성격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웨이퍼 단계의 반도체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출 증감에 따라 수입도 연동
  - 국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R&D 투자 축소가 결정되면서 반도체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에서 채용되는 고가의 반도체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증가 요인) 수출을 위한 웨이퍼 단계의 수입과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고가의 반도체 수요 증가
  -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 중국 소재 우리 공장으로부터 웨이퍼 단계의 반도체 수입이 늘

어날 것으로 전망

-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고가의 시스템반도체는 대부분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산업 발달과 함께 수입이 증가

○ (감소 요인) 국내 산업 전반의 R&D 투자 축소 영향으로 연구개발용 반도체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 국내 소비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입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

〈표 10-11〉 반도체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서 가공한 웨이퍼 및 최종 제품 수입 증가</li> <li>· AI 서버 등 고가의 시스템반도체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기 둔화 및 R&amp;D 투자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중간단계 혹은 최종 제품의 해외 공장으로부터 수입이 다소 증가</li> <li>· 국내 경기 둔화와 더불어 R&amp;D 투자 축소로 반도체 수입도 다소 감소하겠지만 고가의 제품 수입은 확대</li> </ul>

〈표 10-12〉 반도체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72,175 (17.4)	55,756 (-34.7)	64,494 (-25.7)	120,250 (-30.2)	69,079 (23.9)	76,242 (18.2)	145,321 (20.8)
내수	69,568 (10.0)	31,791 (-3.2)	30,379 (-17.3)	62,170 (-10.6)	32,672 (2.8)	35,316 (16.3)	67,989 (9.4)
생산	141,256 (1.2)	47,841 (-35.5)	55,231 (-17.7)	103,072 (-27.0)	56,897 (18.9)	64,251 (16.3)	121,148 (17.5)
수입	100,487 (42.9)	39,706 (-10.0)	39,642 (-29.7)	79,348 (-21.0)	44,854 (13.0)	47,307 (19.3)	92,161 (16.1)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10-13〉 반도체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129,220 (1.0)	43,205 (-37.4)	52,938 (-12.1)	96,143 (-25.6)	52,202 (20.8)	59,180 (11.8)	111,382 (15.9)
수입	74,763 (21.8)	30,768 (-13.7)	32,539 (-16.8)	63,307 (-15.3)	33,896 (10.2)	36,720 (12.9)	70,616 (11.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반도체부품 포함(MTI 741, 742 기준).

#### 4. 시사점

-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전망이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신중하게 대응방안을 마련
  -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경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도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 2024년에는 무조건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팽배
  - 세계 반도체 시장의 경기 추이를 추적하면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기상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반도체 시장 경기가 회복된다는 주장이 우세
  -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세계 시장 경기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기존의 반도체 주기도 변하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회복의 근거로는 부족
  - 따라서 우리 반도체 기업은 주요 수요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시장 수요에 대응해 반도체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미국의 반도체법의 영향으로 대중국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에서 첨단제품은 향후 10년간 생산량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제한



〈표 10-14〉 반도체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확실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기를 통찰력 있게 관찰하고 정책 추진</li> <li>· 미·중 갈등 속에서 국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추진</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수요산업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제품개발 및 시장 대응 전략 수립</li> <li>· 미국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산업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내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한 대응 마련</li> </ul>

- 따라서 국내 기업은 첨단제품의 중국 공장 생산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
- 우리 정부는 평택, 용인 등에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전략적으로도 국내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은 향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 마련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 경쟁으로 발전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반도체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통제가 강화
- 미국의 대중국 통제로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업을 비롯하여 제조 장비 및 소재 기업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우리의 주요 반도체산업 분야 및 기술 수준에서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소수
- 다만 미국의 반도체 정책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교역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 제11장 디스플레이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수출, 하반기 수출 증가 전환에도 연간 수출은 감소할 전망

#### ○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로 수출 증가 전환

- 상반기 수출은 경기 불황과 가격 하락으로 29.2%의 큰 폭으로 축소
-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로 인해 OLED 중심으로 하반기 수출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LCD는 생산설비 폐쇄로 증가폭이 제한적

#### ○ 하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비 5.4% 증가한 10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3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185억 달러 수준 전망

### □ 내수, LCD 생산 감소로 소재 부품 수요 축소 지속

#### ○ LCD 생산설비 폐쇄로 인한 LCD 소재 부품 수요 감소로 내수 감소 지속

- 디스플레이 내수의 대부분은 패널 생산에 활용되는 소재 부품 분야에 해당
- 패널 양사의 LCD 생산 축소로 인하여 지속적인 LCD 소재 부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수 감소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남.

#### ○ 상·하반기 모두 큰 폭으로 내수 규모가 축소되어 2023년 내수는 전년 대비 19.1% 감소

### □ 생산, OLED 생산 확대에도 LCD 감산으로 감소 지속

- 하반기 OLED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LCD 감산의 효과가 아직 지속되고 있어 생산 축소 지속
  - 하반기 OLED 수요 반전으로 인한 생산 증가에도 LCD 감산으로 인한 축소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감소가 지속되거나 감소폭은 완화
- 하반기 디스플레이 생산은 전년동기비 9.8%의 큰 폭으로 감소가 전망됨.

### □ 수입, LCD 패널 재고조정으로 인한 재수입 확대

- 하반기 수입 증가는 가격 상승과 LCD 재고조정 물량 증가로 확대
  - 디스플레이 패널 수입은 수출된 패널의 재고조정 및 AS를 위한 재수입 물량이 대부분이며, 자동차용 패널 수요가 소량 존재
  - 하반기 패널 수입은 가격 상승과 세계 정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LCD 패널 재고 조정량 확대에 증가
- 하반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반기 수입 감소를 상회하지 못하여, 2023년 디스플레이산업 수입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3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수요 기반은 교체 수요 확대 및 경기 회복으로 인해 점차 회복될 전망
  - 세계 경기 회복세 진입에 따른 IT 제품 수요 확대와 스마트폰 교체 수요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

-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40개월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경기 둔화 지속으로 교체주기에 도래한 스마트폰 소유자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으로 이어질 전망

〈표 11-1〉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주요 수요 제품 교체 주기 진입으로 교체 수요 확대	☼
· 세계 경기 회복으로 전자 제품 수요 확대	☼
·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대베트남 수출은 스마트폰 수요 확대 및 하이엔드 패널 도입률 상승으로 확대 전망

- 디스플레이 수출은 베트남과 중국이 90%가량을 차지하는 구조이며, 이는 주요 수요 제품의 생산처가 두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 대베트남 수출은 주로 삼성전자 생산공장으로의 수출 중심으로 스마트폰용 패널의 고부가가치 및 수요 확대 전망에 따라 증가가 전망

○ 중국은 OLED 적용 제품 확대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 내 주요 기업 생산 규모 축소로 수출 증가폭이 제한적일 전망

- 대중국 수출은 주로 애플형 패널 중심이며, 아이패드용 OLED 생산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됨.
- 다만, 애플의 인도 및 베트남 생산 확대에 따라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축소하고 있어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표 11-2〉 디스플레이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베트남	66.3	☂	☂	·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수출 확대 · 고부가 패널 비중 확대로 수출 확대
중국	22.8	☂☂	☁	· OLED 적용 제품 확대로 수출 증가 전망 · 중국 내 전자 제품 생산 축소로 수요 감소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해외 생산

#### ○ TV 수요 회복으로 해외 생산 확대 전망

- 디스플레이 해외 생산은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이 유일하며 주요 생산 제품은 프리미엄 TV용 패널
- 2023년 프리미엄 TV 시장 둔화로 인하여 TV용 패널 시장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2024년 TV 시장 회복으로 해외 생산 확대가 나타날 전망

〈표 11-3〉 디스플레이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중국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제품단가 변화

#### ○ 하이엔드 패널 비중 확대와 세계 수요 회복으로 패널 평균단가 상승

- LTPO, 폴더블 패널 등 하이엔드 패널 적용률이 확대되면서 단가 상승이 전망
- OLED 패널 수명 상승을 위한 투 텐덤(Two Tendum) 기술 적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표 11-4〉 디스플레이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폴더블 패널 및 LTPO 비중 확대	☼
· 수요 회복으로 인한 평균 단가 상승	☼
· 신기술(투 텐덤) 도입 확대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OLED 패널 고도화에 따른 소재 부품 고부가화 및 LCD 소재 부품 수요 축소

- OLED 패널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LTPO, 폴더블, 투 텐덤)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소재 부품의 수요 다변화 및 고부가화가 확대될 전망

- LCD 생산 축소에 따른 파급효과가 소재 부품 기업으로 지속 영향을 미칠 전망

○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로 시장 확대

- 국내 패널 수요 중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디스플레이의 면적이 확대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짐.

- OLED 적용, 커브드 디스플레이 도입 등 고기능성 패널 수요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

〈표 11-5〉 디스플레이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면적 확대	☼
· LCD 생산 축소로 인한 소재 부품 축소	☼
· OLED 패널 고도화에 따른 소재 부품 고부가화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LCD 폐쇄 이후 OLED 설비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내년 생산설비 확대는 제한적
  - 2023년 6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고, LG 디스플레이도 LCD 생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
  - LCD 생산 부지에 OLED 생산설비 구축이 계획되어 있으나, 구축 후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즉각적인 공급능력 확대는 제한적
- 대형 OLED TV 생산 규모 확대에 인하여 공급능력의 확대는 이어질 것
  - LCD 감산으로 인한 생산 규모 축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삼성 QD-OLED 양산 설비 확충에 따른 공급능력 확대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나 그 규모는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

〈표 11-6〉 디스플레이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LCD 생산 규모 축소 지속	↑
· 대형 OLED 양산 규모 확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설비투자는 신규 수요제품 대응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
  - TV용 대형 OLED 생산공장은 양산 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며, IT용 OLED 전용 설비투자를 양사 모두 추진 중
  - 삼성 디스플레이는 IT용 8.6세대 신규 설비를 구축 중이며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설정하여 2024년에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전망
  - LG 디스플레이도 IT용 신규 설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대응하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표 11-7〉 디스플레이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신규 설비 도입			
투자 수요 특성	· 생산능력 확대 · 신규 수요제품 대응			
요인	· 대형 OLED 양산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지속 · IT용 OLED 전용 설비(8.6세대) 구축을 위한 투자 지속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 OLED 적용 IT 제품 발매로 시장 확대 전망

○ 주요 수요 기업의 OLED을 적용한 IT 제품 출시가 예정되어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

- 2024년 OLED를 적용한 애플 아이패드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며, 노트북용 OLED 시장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
- 스마트폰과 TV에 국한된 수요 구조가 OLED 중심의 우리 디스플레이산업의 위협 요소에 해당함에 따라 수요 다각화는 산업의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

○ 신규 시장의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며 경쟁국과의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 초기 생산 물량은 국내 기업이 대부분 담당할 전망으로 시장 확대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
- IT용 OLED 패널 양산을 위해 8.6세대 RGB-OLED 양산 설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역량 확보 시 중국과의 OLED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주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IT용 OLED 패널에는 패널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투 텐덤을 비롯한 신규 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가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



### 3. 2024년 전망

#### □ 수출, IT용 OLED 채택 확대로 증가 전망

- 2024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수요 회복과 OLED 채택 제품 확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9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OLED 수출은 IT용 패널 시장 확대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나, LCD 수출은 생산 축소로 인하여 큰 감소세가 지속될 것
- (긍정 요인) 주요 수요기업의 태블릿 OLED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
  - 애플의 아이패드용 OLED 출시가 2024년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전면 납품이 예상되며 신규 수요 시장 확보에 따라 수출 증가로 나타날 전망
  - 패널의 고부가화로 인한 단가 상승도 주요한 수출 증대 요인으로 작용
- (부정 요인) 중국 패널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인한 OLED 점유율 축소
  - 중국 기업이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OLED 패널 기술 역량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점유율 축소로 나타나고 있음.
  -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에 중국 기업의 OLED 패널 채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

〈표 11-8〉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단가 상승</li> <li>· 태블릿 OLED 채택률 상승</li> <li>· 스마트폰 교체 수요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패널 기업 경쟁력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단가 상승과 OLED 채택 제품 확대에 인하여 수출 상승 전망</li> </ul>

#### □ 내수, 패널 기업의 OLED 생산 확대로 증가

- 2024년 내수는 OLED 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확대에 전년동기비

### 5.6% 증가할 전망

○ (증가 요인) OLED 수출 확대로 소재 부품 수요 증가

- OLED 생산 증가에 따른 소재 부품 수요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며, 신기술 패널 생산 증가에 따라 고부가 소재 부품 수요 확대가 내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

○ (감소 요인) LCD 감산으로 인한 소재 부품 축소의 영향력이 지속될 전망

- 가장 큰 수요 시장인 TV용 패널 생산의 중단으로 LCD 소재 부품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패널 기업의 추가적인 LCD 감산이 예상됨에 따라 해당 효과는 지속될 전망

〈표 11-9〉 디스플레이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LED 수출 확대로 소재 부품 상승</li> <li>· 패널 고부가화에 따른 소재 부품 단가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CD 소재 부품 축소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LED 설비 가동률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상승</li> </ul>

### □ 생산, 대형 OLED 가동률 상승과 OLED 적용 제품 확대로 상승

○ 2024년 생산은 대형 OLED 패널 생산 확대와 OLED 적용률 상승으로 3.6% 증가할 전망

- LCD 감산에도 OLED 생산 규모 확대로 전체 패널 생산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증가 요인) 대형 OLED 양산 확대 및 OLED 적용 제품 확대

- 삼성 QD-OLED의 수율 향상과 프리미엄 TV 시장 회복은 대형 OLED 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
- 아이패드 OLED의 주요 공급처가 국내 기업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 증가로 이어질 것

○ (감소 요인) 주력 품목 전환으로 인한 LCD 감산 지속

- 패널 기업 주력 제품의 OLED 전환으로 고부가 분야를 제외하고 LCD 감산이 지속될 전망이며, 설비 폐쇄와 기존 LCD 설비의 OLED 활용이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

〈표 11-10〉 디스플레이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OLED 생산 확대</li> <li>· OLED 적용 제품 확대로 가동률 회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LED 전환으로 LCD 감소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 OLED 및 IT용 제품 출시 확대로 생산 증가 전망</li> </ul>

□ 수입,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로 소폭 증가 전망

○ 2023년 수입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국내 패널 수요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에 국한되고 중저가용 LCD 패널 중심이며, 재고조정 및 AS용 재수입의 비중이 높음.

○ (증가 요인) 차량용 디스플레이 대형화에 따라 패널당 단가 상승

〈표 11-11〉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용 패널 수요 확대</li> <li>· 패널 단가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CD 감소로 인한 재수입 축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단가 상승으로 소폭 상승 전망</li> </ul>

〈표 11-12〉 디스플레이산업의 수급 전망

단위: 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27,282 (11.1)	9,914 (-25.7)	14,492 (4.0)	24,406 (-10.5)	10,179 (2.7)	14,503 (0.1)	24,682 (1.1)
내수	30,449 (-16.2)	12,734 (-18.7)	11,893 (-19.5)	24,627 (-19.1)	13,127 (3.1)	12,881 (8.3)	26,007 (5.6)
생산	52,890 (-8.1)	20,507 (-22.4)	23,854 (-9.8)	44,361 (-16.1)	21,081 (2.8)	24,856 (4.2)	45,937 (3.6)
수입	4,841 (46.4)	2,141 (-16.9)	2,530 (11.7)	4,672 (-3.5)	2,225 (3.9)	2,527 (-0.1)	4,752 (1.7)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11-13〉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21,149 (-1.1)	7,654 (-29.2)	10,887 (5.4)	18,541 (-12.3)	7,692 (0.5)	11,257 (3.4)	18,949 (2.2)
수입	3,767 (30.7)	1,653 (-20.8)	1,901 (13.2)	3,554 (-5.7)	1,681 (1.7)	1,962 (3.2)	3,643 (2.5)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MTI 8610 기준.

-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패널 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수입 증가로 이어질 전망

○ (감소 요인) LCD 생산 축소로 재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

- 국내 패널 기업의 LCD 생산 축소로 재고조정 및 AS 물량도 동반 하락 중이며 주요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

#### 4. 시사점

○ 신규 수요 시장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임시세액공제 연장 필요

- IT용 OLED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패널 양사가 진행할 전망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3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세제 혜택이 종료될 예정

- 신규 수요 시장 대응을 통한 경쟁국과의 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적기 설비투자 이행이 중요하며 2024년까지 임시세액공제 연장을 통해 투자 여력 확대가 필요

○ 8.6세대 RGB 생산라인 구축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 필요

- 디스플레이 양산에서 마더글라스 확대는 공정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가

〈표 11-14〉 디스플레이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용 설비투자 적기 이행 유도</li> <li>· 8.6세대 RGB 소부장 생태계 구축</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세액공제 기간 연장</li> <li>· 양산 적용을 위한 소부장 R&amp;D 지원 확대</li> </ul>

나타날 수 있으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투 텐덤 구조를 RGB 공정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첨단소재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양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디스플레이 국산화율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을 것

## 제12장 이차전지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수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기록

○ 2023년 이차전지 수출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 대비 4.9% 감소

- 상반기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했으나 하반기 들어서 전기차(EV)용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리튬이온전지 수출 감소세 반전

· EV 배터리 수출 증감률(%): (2023. 1분기) 56.3 → (2분기) 29.3 → (3분기) -16.1

· ESS 수출 증감률(%): (2023. 1분기) 56.0 → (2분기) 15.5 → (3분기) -18.5

- 최근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주요 완성차(OEM) 업체의 전기차 생산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차전지 수요 감소

· GM은 2022년 중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2년간 총 40만 대 생산목표 계획을 수정할 방침이고<sup>11)</sup>, 테슬라, 포드 등 주요 OEM사도 전기차 생산량을 감축하기로 결정

- 특히, 독일 등 유럽향 수출은 상반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고성장세를 기록하던 미국향 수출도 하반기부터 역성장세로 전환

· 독일향 수출 증감률(%): (2023. 1분기) -21.1 → (2분기) -14.7 → (3분기) -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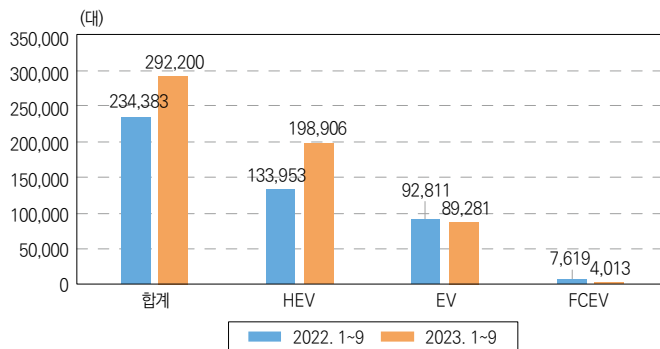
· 미국향 수출 증감률(%): (2023. 1분기) 51.3 → (2분기) 25.3 → (3분기) -7.0

11) WSJ(2023), "GM Scales Back EV Plans as Buyers Hesitate", Oct. 24 참고.

### □ 내수, 국내 전기차 생산·판매 확대에 따른 증가

- 2023년 내수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68.8% 상승
  - 2023년 들어(1~9월 누계 기준)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출용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카 국내 생산 증가세가 이차전지 내수 확대 견인
    - 2023년 1~9월 누계 기준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57.7% 증가한 179억 9,000만 달러 기록(산업통상자원부, 2023. 10월)
  - 또한, 전년 대비 24.7%(1~9월 누계 기준) 늘어난 국내 친환경차 판매 증가 추세도 2023년 이차전지 내수 증가에 기여

〈그림 12-1〉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 현황(2023년 1~9월 누계)



자료: KAMA(2023), 「자동차 통계월보」, 9월호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 HEV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EV는 전기차, FCEV는 수소전기차를 각각 의미.

### □ 생산, 글로벌 배터리 수요 둔화에 따른 감소

- 국내 이차전지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에 그침.
  - 최근 주요국의 자국 주도 배터리 공급망 구축 강화로 국내 이차전지 업계가 미국, EU 등 주요 국내 시장 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해 투자 여력을 해외에 집중
  - 국내외 전기차 시장 규모 성장 둔화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국내 이차전지 생산설비 가동

를 하락세 기록 중

- 축전지 제조업 가동률 지수(KOSIS, 2015=100, 계절조정): (2023. 1분기) 117.3 → (2분기) 111.3 → (3분기) 106.1

#### □ 수입, 중국산 LFP 탑재 차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증가

-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생산거점으로부터의 조달 물량 확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3.6% 증가
  - 국내 완성차업체의 대세계 전기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부터의 배터리 수입이 증가
  - 국가별로는 총수입의 94.5%(2023년 1~9월 누계)가 대중 수입이고, 품목별로는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수입이 전체 수입의 73.9%(2023년 1~9월 누계) 차지
  - 최근 코나일렉트릭(현대차), 니로EV(기아차) 등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종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대중 수입 증가에 기여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그동안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던 세계 시장에서의 이차전지 수요도 다소 정체될 전망
  -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위축이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2024년 하반기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큼.
- 세계 이차전지 시장 수요 정체는 중국, 독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수요 확대가 이어질 전망



- 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중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여 이들 국가에서 이차전지 수요 둔화
- 중국과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전기차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시행 중인 미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수요 기반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표 12-1〉 이차전지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전기차 등 이차전지 수요부문의 시장 규모 성장세 둔화	↑
· 해외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
· 세계 경제·산업의 친환경화 추세 지속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총수출의 46.5%를 차지하는 미국은 2024년에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겠으나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2024년도에 IRA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요건 충족 가능성이 큰 기업 및 국가로 배터리 공급이 집중될 가능성
    - IRA 배터리 요건: 배터리에 내재된 핵심광물은 총가치의 50%(2024년 기준, 2023년은 40%로 적용됨) 이상이 미국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부품은 전체 가치의 60%(2024년 기준, 2023년은 50%로 적용됨)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조항
  - 우리의 경우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IRA 요건 충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IRA 제도가 2024년도 미국향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이미 전기차 침투율 20% 이상을 달성한 독일과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폐지 정책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독일은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해 단계적 축소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23

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4년도 이차전지 수요 위축 예상

-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중국 배터리 업계의 급속한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로 중국 자국 시장은 물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표 12-2〉 이차전지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46.5	↔	↔	· 2024년 IRA 배터리 요건 강화(광물: 40% → 50%, 부품: 50% → 60%)로 요건 충족 가능한 기업·국가로부터의 미국 내 배터리 공급 증가 예상 · 전기차 침투율이 10% 미만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
독일	6.3	↑↑↑	↑	·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전기차 판매 둔화
중국	5.6	↔	↔	· 전기차 보조금 제도 폐지, 중국 기업의 과도한 생산능력(CAPA)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3분기 기준).

2)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해외 생산

-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신·증설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존 해외 공장의 수율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2024년 해외 생산 확대 예상
- 생산능력이 50GWh에 달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테네시 공장(GM과 합작)은 2024년 상반기부터 가동될 예정

〈표 12-3〉 이차전지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미국	☆	☆☆
유럽	☆	☆
중국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공장, SK온 헝가리 코마롬 제2공장 등 비교적 최근에 가동이 시작된 생산 공장의 수율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전망
- 다만, 2024년 11월 예정인 미 대선 결과로 친환경차 구매 세액공제, 생산 세액공제(AMPC) 등 IRA 배터리산업 관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해질 경우,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생산거점 확대 계획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 □ 제품단가 변화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이차전지 단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광물 가격이 최종재인 배터리 판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통상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상반기에 나타난 배터리 광물 가격 하락분이 2023년 말~2024년 초에 이르러 이차전지 가격 하락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배터리 판가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이차전지 기업의 매출액 감소, 수익성 악화 등이 일어나기 시작해 이차전지 업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중국산 저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물량 공세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차전지 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최근 글로벌 평균 전기차 침투율이 10%대 초·중반에 도달하면서 향후 고가의 프리미엄급 전기차 수요는 약화되는 반면,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 수요는 확대 예상
  -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저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과 수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심화시킬 경우 배터리 단가 하락 압력이 상승

〈표 12-4〉 이차전지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수산화리튬, 흑연 등 배터리 원재료 가격 하락	↑
· 보급형 전기차 시장 확대로 LFP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물량 공세 강화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2023년부터 이어진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율 감소 추세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경우 이차전지 국내 수요가 악영향을 받을 전망

- 최근 2년간 70%를 상회하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2023년 상반기에 16.4%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

· 전기차 판매량 상반기 증가율(KAMA, %): (2021년) 81.7 → (2022년) 71.0 → (2023년) 16.4

- 물가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4년에 큰 폭의 전기차 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

· 전기차 보조금 단가(환경부): (2021년) 최대 700만 원 → (2022년) 최대 600만 원 → (2023년) 최대 500만 원 → (2024년 정부안) 최대 400만 원

- 다만, 최근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 추진, 정부의 전기차 보급목표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규모 확대 등은 이차전지 수요 부양에 긍정적 요인

·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안(환경부, 2023. 9월): (기존) 인센티브 최대 180만 원 → (2023. 9. 25~) 차량 가격 할인에 비례해 인센티브 최대 280만 원까지 지급

〈표 12-5〉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국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	↕↕
·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가격 인하 정책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국내 공급

○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가동 본격화, 기존 생산라인 효율화·합리화 투자 확대 등으로 2024년

국내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

- 2024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플랜트 제1공장 217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4GWh)이 증설되고, 제2공장의 4680 라인(9GWh) 가동 및 양산 본격화 기대
-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격 지원, 제조 지능화, 물류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화·합리화 투자는 2024년 생산 물량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미국의 IRA, EU의 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자국 주도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 기조가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이 여전히 해외 생산거점에 집중될 가능성

〈표 12-6〉 이차전지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원통형 배터리 공장 신·증설	☆☆
· 원격 지원, 제조 지능화, 물류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 투자 확대	☆
· 주요국의 역대 배터리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투자 여력의 해외 집중화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표 12-7〉 이차전지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생산라인 신·증설, 기존 생산설비의 효율화·합리화 투자, 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양산 투자 등			
투자 수요 특성	· 국내 투자는 연구개발 관련 투자와 설비 효율화·합리화 통한 생산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 · 우리 이차전지 기업의 설비투자는 상당 부분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수요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인산철(LFP) 배터리, 고출력 미드니켈 배터리 등 신제품 개발·양산 투자 확대			
요인	· 미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자국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추진으로 해외 현지 설비투자 확대가 불가피 · 제품 설계, R&D 등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마더 팩토리는 국내에 설치하고, 해외에는 양산 공장을 구축하는 분업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황 · 최근 볼륨 시장(최고가와 보급형 저가 제품의 중간에 위치한 시장) 전기차 수요 확대로 고성능·고가격의 삼원계(NCM) 배터리 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산철(LFP) 배터리 등의 수요 증가			

주: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3. 2024년 전망

#### □ 수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감소 예상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2024년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92억 4,20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
  - 2024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도 감소 추세가 유지되다가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 반등 전망
- 주요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생산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차전지 수요 위축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2023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유럽향 수출 감소 추세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미국 및 유럽에서 신·증설된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2023년에 나타난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안정화 현상이 배터리 판가에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단가 측면에서도 수출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12-8〉 이차전지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 수출국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세 유지</li> <li>· 국내 생산능력 상향 조정(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본격 가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주요 OEM사의 전기차 생산목표가 하향 조정에 따른 배터리 수요 하락</li> <li>·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 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될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 해외 생산 물량으로의 대체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이차전지 수출 하락 전망</li> </ul>

- 다만 미국향 수출 증가세 유지, 전년 대비 늘어난 국내 생산능력 등은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
  -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2021년 35% → 2022년 39% → 2023년 3/4분기 47%) 중인 미국

시장은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지속 등에 힘입어 2024년에도 견조한 수요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생산능력 제고도 수출에 긍정 요인

#### □ 내수, 국내 전기차 생산 증가 영향으로 소폭 증가

○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전기차 국내 생산 확대에 힘입어 3.3% 증가한 11조 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

- 그동안 이차전지 내수는 해외로부터 배터리 수입 증가, 국내 EV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성장세를 기록했었던 상황
- 2024년도 내수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증가 기조는 유지하되 전년에 비해 소폭의 증가율 기록 전망
- 전기차 국비보조금 규모 축소에 따른 국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나 2024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용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 수요 확대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표 12-9〉 이차전지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전기차 대세계 수출	· 전기차 국비보조금 감소(2023년 최대 500만 원 → 2024년 최대 400만 원)에 따른 국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	· 2024년 이차전지 내수는 상승 기조는 유지하되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 생산, 상반기 수출 부진에 따른 정체

○ 2024년 상반기 수출 감소 영향으로 국내 이차전지 생산이 1.1% 증가한 12조 400억 원 수준으로 예상

- 이차전지 생산 증가율이 2023년에 0.3%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도 1.1%로 전망되는 등 2년 연속 국내 이차전지 생산이 정체될 전망

- 전기차 등 이차전지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세가 국내 이차전지 생산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다만 20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에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의 생산 물량 확대 등으로 하반기 이차전지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12-10〉 이차전지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 국내 기업(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이 2024년 하반기 가동 예정	·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로 수출용 배터리 생산 감소	· 하반기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하지만 상반기는 수출 위축 영향으로 감소가 예상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1.1% 수준에 머물 전망

□ 수입, 기저효과 영향으로 -0.8% 기록

○ 2024년 수입은 2023년 증가율인 48.3%에 크게 못 미치는 -0.8% 성장률을 기록하며 89억 5,500만 달러 규모 예상

-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국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수요 대응을 위해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부터의 배터리 조달 물량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 규모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다만 2024년 전세계 전기차 수출 증가율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23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전년도에 준하는 수입 규모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2023년도 증가율이 48.3%에 달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4년 수입은 사실상 정체 수준인 -0.8% 예상

〈표 12-11〉 이차전지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 국내 전기차 수출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수출용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수입(대부분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공장으로부터의 조달 물량) 증가	· 기저효과(2023년 수입 증가율: 48.3%) · 국내 전기차 내수 판매 위축에 따른 이차전지 국내 수요 감소	· 수입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12-12〉 이차전지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3,419 (35.3)	6,519 (11.3)	5,929 (-21.6)	12,448 (-7.2)	5,848 (-10.3)	6,213 (4.8)	12,061 (-3.1)
내수	6,700 (34.4)	5,855 (95.1)	5,453 (47.4)	11,308 (68.8)	6,099 (4.2)	5,584 (2.4)	11,683 (3.3)
생산	11,872 (10.9)	6,132 (6.2)	5,781 (-5.2)	11,913 (0.3)	5,844 (-4.7)	6,203 (7.3)	12,047 (1.1)
수입	8,247 (96.8)	6,242 (102.5)	5,601 (8.4)	11,843 (43.6)	6,103 (-2.2)	5,595 (-0.1)	11,698 (-1.2)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12-13〉 이차전지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9,981 (15.1)	5,033 (6.4)	4,454 (-15.2)	9,487 (-4.9)	4,419 (-12.2)	4,823 (8.3)	9,242 (-2.6)
수입	6,098 (66.1)	4,819 (93.5)	4,208 (17.0)	9,027 (48.3)	4,612 (-4.3)	4,343 (3.2)	8,955 (-0.8)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4. 시사점

○ 리튬이온전지(HS코드 850760)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 대한 대응 필요

- 국내 이차전지산업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리튬이온전지가 2023년 1~9월 누계 기준으로 수출은 54억 7,000만 달러, 수입 6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 리튬이온전지는 우리 이차전지산업 전체 공급능력의 80% 이상이 해외 생산거점에 집중되어 있어 국내에서 해외로의 수출 확대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수입 측면에서 보면 배터리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배타적 산업정책 영향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생산 물량이 국내 내수용으로 역수입되는 현상 강화
    - 중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축전지산업 규범조건'에 근거하여 자국 기업으로 구성된 화이트리스트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부여
  - 무역수지 흑자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제·금융 등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도 중국 내수시장 공급 방향으로 중국 내 생산거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미국 IRA 배터리 요건 강화 대응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및 지원 강화 필요
- 미국 IRA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의 준수 규정이 2024년도에 한층 강화될 예정
    - IRA 규정에 따르면 미국 또는 미FTA 체결국에서 추출·가공한 광물과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소재)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 부여
    - 광물 및 부품(소재) 준수 비율이 2023년도에 각각 40%, 50%였으나 2024년도는 50%, 60%로 10%포인트 상승(IRA 배터리 요건은 매년 약 10%포인트씩 증가 구조)
  - 배터리 광물 및 소재 공급망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 이차전지산업도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IRA 배터리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과제
  - 리튬, 니켈 등 광물별 매장 및 가공 지역이 다르므로 IRA 배터리 요건 충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광물별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필요
  - 핵심광물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해외자원 개발 강화, 광물 가공 관련 투자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

〈표 12-14〉 이차전지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이온전지(HS코드 850760)의 무역적자 전환에 대한 대응</li> <li>· IRA 배터리 요건 강화(2024년도 광물요건과 부품요건 준수 비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상승)</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이차전지 설비투자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li> <li>·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및 정책지원 강화</li> </ul>

# 제13장 바이오헬스산업

## 1. 2023년 동향 및 진단

### □ 코로나19 특수 종료 후 역기저 효과로 수출 부진 장기화

○ 2022년 하반기부터 관측된 수출 감소세가 2023년 상반기에 회복되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장기화되면서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이상 감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 등 의약품과 진단키트 수출실적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역기저효과로 작용

- 글로벌 경기 부진과 고금리·고환율 영향으로 당초에 계획된 후기임상시험 및 인허가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해외 시장 출시 및 위탁생산 계약 일정에도 차질

○ 케미컬의약품·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해외 수출이 크게 감소

- 지역별로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으로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이 모두 감소했으나 미국향 수출은 2023년 3분기부터 소폭 회복하면서 감소세가 줄어들 전망

- 한편 중국, 러시아향 의료기기 수출은 5% 내외로 증가했고 헝가리, 벨기에,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향 의약품 수출은 76% 이상 증가

□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 확대 및 첨단 의료장비 도입 증가로 내수 회복

○ 2022년 하반기부터 회복된 내수시장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

- 해외로부터 조달하는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의 공급 차질로 국내 초과수요 발생
- 첨단재생의료법 시행과 함께 국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확대<sup>12)</sup>,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정밀의료기기 및 장비 도입 증가

□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신약 출시 지연으로 생산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

○ 국내 바이오헬스 생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치며 현상 유지

- 2023년 초부터 특허가 만료된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관련 위탁생산 수주 및 바이오시밀러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단기적인 성과로 실현되지 못함.

○ 백신, 진단기기 생산 부진의 여파는 2023년 중반 이후 일부 해소

- 팬데믹 이후 면역력 저하로 계절성 독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SK바이오사이언스가 독감백신의 생산·공급을 재개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하던 백신 생산도 일부 회복

□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던 수입은 하반기 일부 회복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2023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11% 이상 감소한 수입은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총수입액은 전년 대비 4.9% 감소로 마무리

- 2022년 의약품 수입 중 상위를 점유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수요가 빠르게 상실되면서 2023년 상반기 수입은 크게 감소
- 하반기에는 국내에서도 당뇨병 치료제(마운자로), 림프종 치료제(킴리아) 등 고가 의약품의 처방이 확대되면서 수입이 소폭 증가

12) 2023년 8월 기준 국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총 76개소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30개, 병원 4개, 의원 3개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27개, 경기 18개, 인천 5개 순으로 분포(첨단재생의료포털 홈페이지, 접속일: 2023. 11. 7).

## 2. 2024년 대내외 여건 변화

### (1) 대외 여건 변화

#### □ 세계 수요

- 2024년 글로벌 바이오헬스 수요는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와 이연된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약 4조 1,248억 원으로 전년동기비 492%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품질 사태를 보이는 비만 치료제의 수요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23년 1월 미국 시장에 '암제비타'(휴미라 시밀러)가 출시된 이후 후발 진입한 경쟁사들의 가격경쟁 심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의료비용 부담 감소로 신규 수요 증가 기대

〈표 13-1〉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혁신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경쟁 가시화	☆☆
· 비만 치료제 글로벌 수요 폭증	☆☆
· 환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경기 위축	↑
· 이스라엘-중동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은 바이오시밀러 친화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 확대가 신규 수요로 연결
  - 2023년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은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미 FDA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약·제네릭 등 다른 품목 대비 바이오시밀러 관련 수수료를 전년 대비 41% 이상 인하할 것으로 발표하여 2021년부터 시작된 바이든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해석

- 또한 미 FDA는 신속심사 의약품 또는 획기적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 2024년 하반기 경기 회복과 금리안정 등 거시경제적인 요인이 회복되면서 기업의 혁신 활동이 증가하면 신약 개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 기초의약품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는 유럽은 당분간 의약품에 대한 초과 수요 전망

- 해열제, 항생제 등 필수약품의 공급 차질로 누적된 이연 수요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유럽 내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령인구 치료·건강관리용 신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규제 완화로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될 전망

○ 일본과 중국은 각각 자국 내 제약바이오 육성정책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의약품 정책 변화를 추진하여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표 13-2〉 바이오헬스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sup>1)</sup>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미국	14.4	☝	☼	·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수수료 인하 등 바이오시밀러 친화 정책 추진 · 자국 내 원료의약품 자립화 및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제고
유럽 5개국	24.8	☝	☹	· 역내 원료의약품 자립화 및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제고 ·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신규 의약품 수요 증가 ·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로 시장 수요 증가
일본	10.7	☝	☹	· 정부의 제약바이오 육성정책 확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튀르키예	5.3	☝	☛	· 자연재해 복구과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수요 증가
중국	5.0	☝	☼	· 글로벌 기준에 맞춘 의약품 정책 변화로 바이오헬스 부문 대외 개방

주: 1)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유럽 5개국은 2023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벨기에를 합하여 구분.

3)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해외 생산

○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은 해외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신규 생산공장 설립으로 글로벌 시장 내 입지 확장

- LG화학과 룩데바이오로직스는 각각 지난 1월 미국 혁신항암제 기업인 아베오 파마슈티

컬스와 글로벌 제약사 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 SK팜테코는 9월 미국 세포·유전자치료제 CDMO 기업인 CBM을 인수하여 미국과 유럽에 생산거점 확보

- 북경한미약품은 유아용 의약품을 기반으로 진해거담제, 변비약 등의 의약품 매출이 신장되면서 중국 내 견조한 입지를 구축, 추가로 중국 정부가 자국에 진출한 바이오 기업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발표한 바 2024년 생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선진국보다 인허가 등록이 수월하고, 해외 제약사 유치에 적극적인 편으로 최근 빠른 인구 증가와 구매력 있는 중산층의 성장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제약사의 생산과 영업실적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이스라엘에 진출한 부광약품은 최근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기업인 '프로텍트 테라퓨틱스'를 인수하여 해외법인으로 편입했으나 직접적인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

〈표 13-3〉 바이오헬스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추정	2024년 전망
미국	↻	☀
중국	↻	☀
동남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	☀	☀☀
이스라엘	↻	☀
전체	↻	☀

주: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 제품단가 변화

- 바이오시밀러는 가격경쟁의 여파로 제품단가가 하락할 유인이 있으나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연구개발비 회수를 위해 고가로 책정되어 양극화 확대
  -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수수료 인하는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허가 확대를 의미,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단가 하락을 유도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환자 맞춤형 세포·유전자치료제 형태의 초고가 신약이 연달아 출시, 제품단가 상승으로 보건재정 부담 가중

〈표 13-4〉 바이오헬스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미국,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수수료 인하 등 바이오시밀러 친화 정책 추진	↑
·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간 가격경쟁 본격화	↑
·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초고가 의약품 개발 증가	☆☆

주: (전년 대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2) 국내 여건 변화

### □ 국내 수요

○ 2023년 첨단바이오의약품·디지털 치료기기 수요 창출은 제한적으로 작용

- 김리아, 졸겐스마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과 급여가 본격화되고 국내에서 개발한 디지털 치료기기 첫 번째 처방이 2023년 말로 계획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로 실제 수요 창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차세대 항암치료기법 및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2023년 도입된 중입자치료기와 최근 난치성 암 치료용 의약품으로 부상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치료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발표되면서 관련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한국 출시가 2024년 상반기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비만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의약품의 국내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표 13-5〉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첨단바이오의약품·디지털 치료기기 처방	↑
· 중입자치료기, 방사성의약품(RPT) 등 차세대 항암 치료 부상	☆
· 비만 치료제 및 당뇨병 치료제 수요 확대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공급능력

### ○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양적·질적 생산 역량 강화로 공급능력 개선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2분기부터 4공장(24만 리터 규모)이 완전 가동되고 최근 화이자, 노바티스 등과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5월 착공 예정인 5공장 수주로 연결될 전망
- 전통적 제약사인 한미약품(평택 바이오플랜트), 대웅제약(용인 바이오센터)도 CMO 본격 돌입, 마더스제약·진양제약·한국파마는 CMO 사업으로 수익성 개선
- 종근당은 노바티스에 신약후보물질 기술 수출(13억 5,000만 달러 규모), 바이오오케스트라는 뇌 표적 고분자 기반 약물전달체 기술 수출(8억 6,100만 달러 규모)을 달성하는 등 국내 제약사의 R&D 개발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공급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

〈표 13-6〉 바이오헬스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를 염두한 생산시설 확충	☆☆
·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역량 개선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 정부·지자체 주도형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 와 함께 바이오산업에 신규 진입한 대기업들의 인력양성·설비투자 확대 예상

-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발표,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단지 조성 및 기업 입주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 공공부문에서는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민간부문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에 신규 진입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양성 및 신규 생산설비 도입이 확대될 전망

〈표 13-7〉 바이오헬스산업의 2024년 설비투자 전망 및 요인

전망	2023년	↔	2024년	☆
투자 종류	· 연구개발, 신규 설비 도입 및 기존 설비 확장			
투자 수요 특성	· 신약 개발 기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 위탁개발 생산시설 확장·가동			
요인	· 정부 및 지자체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정책에 따른 투자 증가 · 바이오파운드리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바이오산업에 신규진입한 대기업의 전문·생산 인력양성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수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 □ 미국 IRA 발효에 따라 10개 의약품 약가 인하 단행

○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 8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와 약가 인하를 협상할 의약품 10개\*를 발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사와 유관기관은 법적 소송 제기

- 고가의약품의 수익 억제 및 가격 상승 제한, 소분자 및 일부 희귀의약품 개발 인센티브를 약화한다는 의견과 함께 제약업계의 포트폴리오 수정, M&A 등 전략 변화를 유도하여 R&D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

\* 협상 대상 의약품으로 노바티스 ‘엔트레스토’(심부전 치료제), 노보노디스크 ‘피아스프·노보로그’(당뇨 치료제), 머크 ‘자누비아’(당뇨 치료제), BMS·화이자의 ‘엘리쿠스’(혈전용해제), BI·일라이릴리 ‘자디언스’(심부전·당뇨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팍시가’(당뇨 치료제), 암젠 ‘엔브렐’(류머티즘 치료제), J&J ‘임브루비카’(혈액암 치료제), J&J ‘스텔라라’(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선정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2026년 10개 약품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인하할 계획을 포함, 다국적 제약사들은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는 전략 모색

- 제약업계는 2026년 이후 발생할 매출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적응증 대상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등 R&D 효율 극대화, 수익률이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단행

- 국내 제약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R&D 투자 감소로 인한 간접 영향은 가능, 글로벌 제약사가 특허를 완화하여 전략적으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방어 전략을 취할 경우 우리 기업에 기회로 작용

### 3. 2024년 전망

#### □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중심, 현지 직접판매 방식으로 수출 회복 기대

- 2024년 바이오헬스 수출은 하반기 반등하면서 4%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긍정 요인) 이연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 출시·처방 확대로 수출 회복
  -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유럽, 미국향 수출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으며 예상보다 지연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가 2024년 중 출시될 경우 수출 증가세로 전환
  - 선제적으로 생산설비를 신규 구축·확대한 국내 제약기업은 위탁생산 여력이 충분, 해외 영업망을 활용한 직접판매로 수출 활력이 더해질 전망
- (부정 요인) 바이오의약품 시장 내 경쟁 심화, 원부자재 조달 어려움에 대비 필요
  -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자체 생산으로 위탁생산 감소 또는 위탁생산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심화, 원료의약품의 해외 조달 차질 등은 수출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요인

〈표 13-8〉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시장 바이오시밀러 처방 증가</li> <li>· 지연되었던 후기임상시험·인허가 결과 발표로 위탁생산 수주 증가</li> <li>· 국내 위탁생산(CMO) 공급 역량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시밀러 제조사 간 가격경쟁 심화</li> <li>· 원료의약품 조달 차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현지 직접판매 방식을 통해 의약품 수출 증가</li> </ul>

#### □ 노령인구 의료 수요 증가 및 방역·소독 관련 위생용품 소비 증가로 내수 확대

- 내수는 2023년 하반기 상승세를 이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 내외 성장 전망
- (증가 요인) 항암 치료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방역용품 수요 증가로 내수 확대 기대
  - 2023년 6월 도입된 중입자치료기의 치료 성과와 함께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 성공으로 항암 치료 분야의 의료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
  -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된 ‘위고비’의 국내 출시 이후 당뇨질환 및 체중 관리를 위한 처방

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1회 투여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증가폭은 제한적

- 최근 빈대 등 해충에 의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방역소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독·위생용품에 대한 내수 확대 전망

○ (감소 요인)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신·출산 및 영아 관련 의약품 소비 부진

-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 이하로 전망되면서 2020년부터 전체 인구 감소세가 지속,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 소비가 감소하고 영아용 의약품 소비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나 단기적으로 전체 바이오헬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표 13-9〉 바이오헬스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세대 항암 치료기기·의약품 수요 증가</li> <li>· 비만 치료제 수요 급증</li> <li>· 해충 방역을 위한 소독·위생용품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 소비 부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민성질환 관련 기술 진보와 혁신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바이오헬스 내수 증가</li> </ul>

□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생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2024년 생산은 대내외적 성장요인이 고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

○ (증가 요인) 다국적 대형 제약사와 위탁생산 계약 체결, 이연된 바이오의약품 생산 증가

- 2023년 바이오 수출을 견인했던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생산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며 추가적으로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위탁생산 수주 실적이 발표되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다만, 국내 CMO 선도기업이 FDA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품목허가 신청이 거절되는 등 생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국내 대기업·전통적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및 CMO 사업 확대를 위해 설비투자와 현장 인력을 확충, 후기임상 단계에서 정체된 신약 개발 계획이 재추진되면서 생산 증가 기대

○ (감소 요인) 대외 불확실성 및 국내 약가 조정 결과에 따라 국내 생산이 위축될 우려

- 고환율이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되어 원료의

약품 조달의 어려움이 연장될 경우 2024년도 생산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개정안이 2024년 적용될 예정, 제품단가 하락 기조가 강화되면 R&D 위축 및 생산 유인이 감소

〈표 13-10〉 바이오헬스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 제약사 위탁생산 수주계약 체결</li> <li>· 보톡스, 바이오시밀러 생산 증가</li> <li>· 첨단약품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생산 인력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정치·경제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시 생산 위축 가능</li> <li>· 원료약품 조달 차질</li> <li>· 국내 약가 조정 개정안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시밀러, 보톡스, 임플란트 등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 지속</li> </ul>

□ 내수 확대 및 수출 회복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

○ 2024년 바이오헬스 분야 수입은 내수와 수출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증가 요인) 첨단재생의료 확대로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기기 수입 증가

- 세포·유전자치료제 처방이 확대되고,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첨단 정밀의료기기 설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치료 효과는 우수하나 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라 가격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감소 요인) 원료약품 안전성 이슈와 원부자재 구매비용 상승으로 수입 감소

-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료약품에서 국가 기준을 초과한 불순물 함량이 검출되는 등 품질

〈표 13-11〉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생의료 확대로 첨단의료기기 수입 증가</li> <li>· 해외 고가 신약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약품 안전성 및 제조품질 관리 이슈에 따라 유동적</li> <li>· 교환율·고물가 원부자재 구매비용 상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의료기기 전 분야의 수요 확대 로 수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li> </ul>

〈표 13-12〉 바이오헬스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24,563 (9.2)	9,000 (-34.4)	8,677 (-20.0)	17,676 (-28.0)	9,043 (0.5)	9,337 (7.6)	18,381 (4.0)
내수	45,484 (41.1)	24,091 (24.0)	27,151 (4.2)	51,242 (12.7)	28,043 (16.4)	28,701 (5.7)	56,744 (10.7)
생산	39,031 (14.4)	19,149 (5.7)	20,735 (-0.9)	39,884 (2.2)	20,559 (7.4)	21,179 (2.1)	41,738 (4.6)
수입	31,016 (50.5)	13,941 (-7.2)	15,093 (-5.6)	29,034 (-6.4)	16,527 (18.5)	16,859 (11.7)	33,386 (15.0)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 계산.

3) 수출입은 MTI 2262, 733, 8146, 8147, 950, HS 3822 기준이며 생산은 KSIC 21101, 21102, 21210, 21300, 27112, 27192, 27199 기준으로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음.

〈표 13-13〉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말	상반기	하반기	연말
수출	18,610 (-1.9)	6,948 (-37.3)	6,518 (-13.4)	13,466 (-27.6)	6,834 (-1.6)	7,248 (11.2)	14,082 (4.6)
수입	23,237 (33.7)	10,763 (-11.4)	11,339 (2.2)	22,102 (-4.9)	12,489 (16.0)	13,086 (15.4)	25,575 (15.7)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출입은 MTI 2262, 733, 8146, 8147, 950, HS 3822 기준으로 집계.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 2024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수입에 영향

- 고환율·고물가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해외 원부자재 구매비용이 상승하여 수입 위축

#### 4. 시사점

- 팬데믹 이후 주요국은 바이오경제 전략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 우리나라도 2022년 하반기부터 팬데믹 수혜 품목의 수출 실적이 급감하면서 바이오산업

의 회복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2022년 미국과 중국이 바이오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23년 3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바이오경제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비전과 전략, 세부 필요 조치를 제안
- 2023년 한국 정부도 국내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과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을 발표, 실효성 있는 시행 계획 마련과 바이오헬스산업 중 누락된 분야에 대한 추가 보완을 진행
  - 지난 3월에 발표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은 바이오의약품·혁신신약 중심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및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수출 판로 개척, 의료기기는 기존 주력분야 수출 활성화 및 디지털 기반 혁신의료기기의 신시장 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
  - 이어 7월에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은 바이오의약품 제조 역량 강화 및 바이오원부 자재 국산화 지원, 디지털 헬스서비스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및 핵심 인재 양성, 바이오수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
  -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제안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소 미흡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 중인 것으로 파악
  - 미국과 EU,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바이오안보의 측면에서 첨단 바이오기술 선점 확보를 위한 혁신 R&D 지원과 기술 수출 제한 추진, 재생의료제품 가치 평가를 위한 새로운 가격산정법 모색, 임상시험 환경 개선 등 전향적인 태도로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국내에서도 정책 수립 시 경각심을 제고

〈표 13-14〉 바이오헬스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경제 활성화 전략 필요</li> <li>· 바이오헬스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규제 개선 및 인력양성 지원</li> <li>· 생산 역량 강화, 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개방형 혁신, 수출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li> </ul>





## 연구진

총괄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자동차	김경유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조선	이은창 시스템산업실 연구위원
일반기계	박상수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
철강	이고은 소재·산업환경실 전문연구위원
정유	최동원 소재·산업환경실 부연구위원
석유화학	조용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섬유	이임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신산업실 선임연구위원
가전	심우중 신산업실 전문연구위원
반도체	김양팽 신산업실 전문연구위원
디스플레이	남상욱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이차전지	황경인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바이오헬스	정지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KIET 경제·산업 전망 2023-02(2)

## 2024년 경제·산업 전망

13대 주력산업편

발행일 2023년 11월 20일  
발행인 주현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화 044-287-3114  
팩스 044-287-3333  
문의 044-287-3146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

ISSN 2983-0338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